



Vol. 4



이화재즈비엔인권은동무인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하늘을 봐,
'변태소녀'가 날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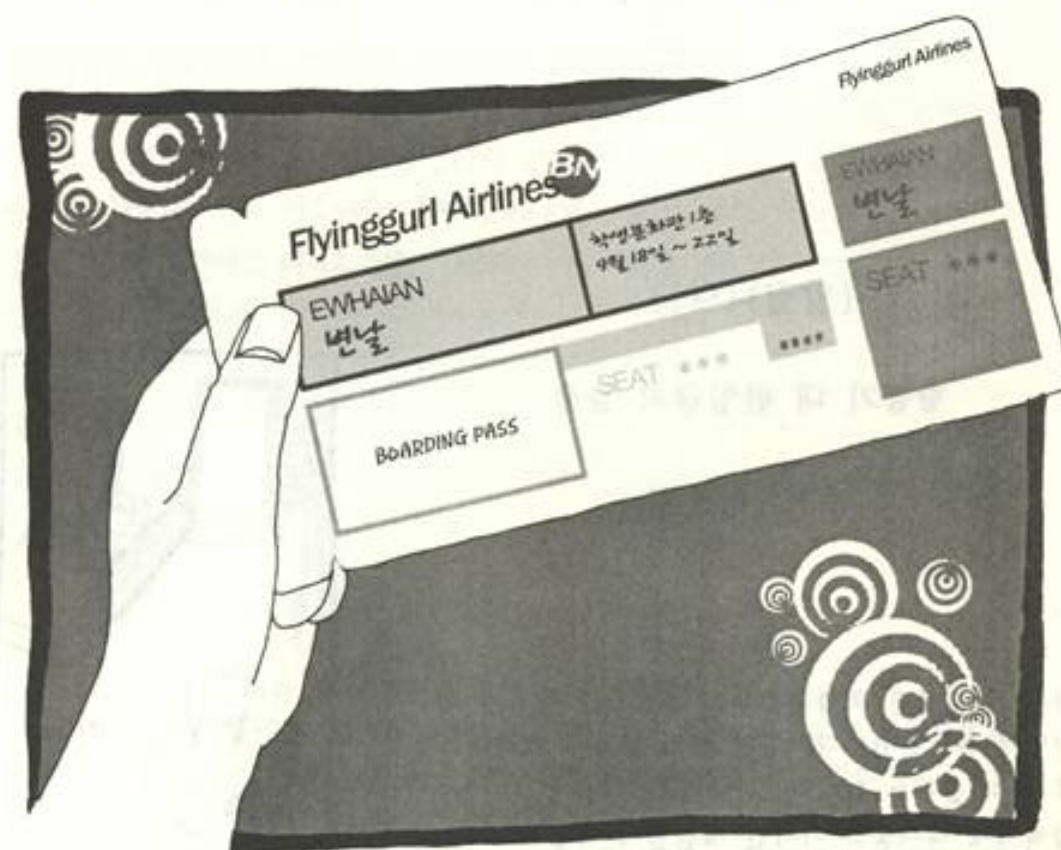
2006.09.18 - 2006.09.22 네 번째 레즈비언문화제

하늘을 봐, 변태소녀가 날고 있어.





이제 도망쳐서 여행 할 준비는
 이미 되어 있다.



비행기표를 받아들었다.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후훗, 여기 내 이름 이화연. 이번 여행은 평소보다 더더욱 싹새여. 어쩐지 기대가 되는데...

{알립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편견, 혐오증

위의 두 물품은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항공기 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불가능 합니다.
검색대에 내려놓고 가시면 세관원이 적절히 처리 하겠사오니, 반드시 지침에 따라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편견 검색대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이성애는 것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까?
당신의 이성애는 동성애에 대한 신경증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동성애 경험없이 어떻게 이성애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유혹해서 이성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는데 치료를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성애를 인정하자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을 '음란의 바다'로 내모는 꼴이 아닙니까?
요즘 이성애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길거리에 자나는 이성을 보면 다 골라나요?
당신은 이성애의 우정을 사랑과 혼돈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요?
이성애자들은 데이트를 하면 무엇을 하고 노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성애자 대신 동성애자를, 동성애자 대신 이성애자를 위의 질문에 넣어보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던져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Homosexuality), 동성애자(Gay)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하지요. 따라서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동성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한 개인에게 동성애자로 정체화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지요.

한편 우리는 주위에서 '동성연애(same-sex act)' 혹은 '동성연애자(호모, Homo)'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는 동성 간의 성관계,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g)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being)인데 말이지요. 따라서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라는 단어는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즈비언입니다. 즉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갖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의 4대 시인 중의 한명인 여류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레스보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양성애자(Bi-sexual)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퀴어(Queer)

퀴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말은, 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된 단어이지요. 퀴어는 동성애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등 모든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이반(iban, 二般, 異般)

이반이라는 용어는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이성애자를 의미하는 일반(一般)에 반하는 이반(二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후, 이성애자와 다르다는 이반(異般)의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어떤 성에게 이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한 개인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의식하고 자각하여 자신을 규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커밍아웃(Coming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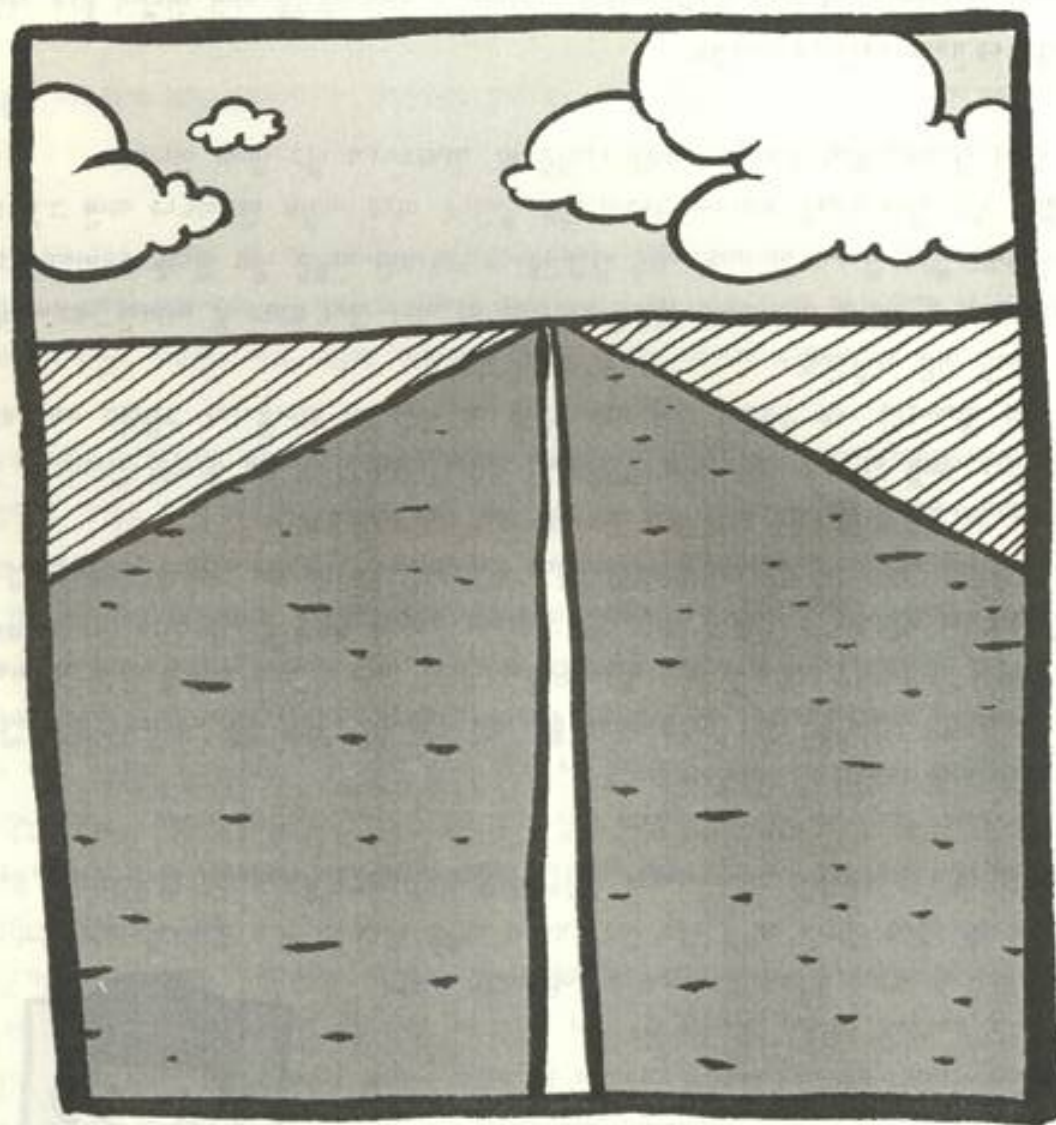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주지만, 성 소수자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아웃팅(Outing)

아웃팅은 성 소수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웃팅은 성 소수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삶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성 소수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요.

동성애 공포증,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

동성애 공포증 혹은 혐오증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동성애(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 혐오범죄를 만들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데 괴로움을 겪도록 합니다. 특히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자에게도 내재화되고, 실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로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앗, (예쁜...) 여자 기장이네. 신기하다. 저 멀리 펼쳐진 활주로.
어디... 이제 10분만 있으면 출발인가?
이 지긋지긋한 땅이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녕-
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날게.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과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

by 노나

1. 시작하면서

몇 일전 레즈비언인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는 무슨 일인지 매우 심각한 목소리였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기독교인인 부모한테 동성애가 병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대답은 들은 나는 순간 당황했다. 마땅히 떠오를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이나 책에서 읽은 대로 '성서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자 주의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문맥을 다시 잘 살펴보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주변의 여러 신앙인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의 신앙관에 의하여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정신병자다'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해대는 걸로 봐서 저런 말로는 동성애에 대해 성서적인 입장으로 '괜찮다,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친구에게 성서의 몇 구절을 이야기 해주며 '이러이러한 이유로 동성애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나 악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친구는 네가 해준 얘기로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래. 동성애를 분명 최악이 하셨다고, 이상한 헛소리 떠벌리지 말래. 무슨 방법이 없겠어? 진짜 눈물만 나온다." 현실이 이렇다. 기독교인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신데! 어찌!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겠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자기만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폭력을 행사하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우스갯소리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달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절대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유교적 관점에 젖어있는 우리에게 보수 기독교가 나름의 영향을 끼치면서 이 들은 '동성애 죽이기'의 환상적인 칼먹궁합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급진적 여성주의 학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여신을 창조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을 창조 하는 것이 차라리 편한 방법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기분 좋게 취해 있는 상태였고, 성 정체성이 무엇이던 간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재밌어 하며 크게 웃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나는 가슴 한 편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 '죄다, 악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웠고, 이들에게 좀 더 유연한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과연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성서 속에서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과 성에 대한 태도와 동성애와 기독교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적을 것이다.

2. 성서 속의 동성애

성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성서를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서 속에 써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성서가 쓰였을 때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로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사고와 그 문화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성서 연구에 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들의 성서 해석은 인간의 갈등과 문제점을 풀어 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말씀을 향해 완전한 개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석상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직접 참여하시고 온전한 인간 해방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1) 구약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동성애에 관한 구절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이다. 신,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죄가 바로 동성애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창세기 18:16-33; 19:1-38) 이 구절은 성서 속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소도마이트(sodomite-동성애자를 일컫는 말 중의 하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구절이기도 하나, 동성애 개념이 가장 회박한 성서 구절이기도 하다.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말이다. '상관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야다(yadah=we may know them)'라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뜻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성간의 성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동성간의 성관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틀림없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의 내용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손님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명백히 위반한 데 대한 처벌이다. 구약성서 다른 부분들이 소돔인들의 죄에 대해 쓴 구절들로부터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돔인들의 죄는 동성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는 재판을 함부로 한 행위(사 1:10-17; 3:9),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부자들의 반사회적인 태도(렐 19:9), 간음, 위선, 잘못을 누우치지 않는 태도(렐 23:14), 우상을 섬기는 것(렐 1:22)등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명기, 레위기에서도 창기(quadresh=whore=temple prostitute), 남창(quadresh=temple prostitute) 등과 같은 단어로 인하여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동성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성전 안에서의 성전교제를 금하는 것을 뜻한다. 이방종교는 제의 시 엑스타시를 위해 성행위를 하였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종교를 비판하고 멀리하라는 뜻으로 가증한 일이라고 하였지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인간을 특징짓는 하나의 성적성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의미에서의 동성애는 성서에 알려 있지 않았다. 성서가 때때로 문제 삼은 것은 순전한 성적 접촉 일 뿐,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의 속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속적 애정관계 혹은 영적·정신적 가치들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서가 동성애를 거부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반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2) 신약

신약성서의 특이한 점은 예수자신이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 1:10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회랍어로 'malakos'라는 뜻으로 문자 그대로 '부드러운'이라는 뜻이다. 동성애로 번역된 말은 바울 자신이 회랍어로 사용한 'arsenokoitai' (4세기 때 성서가 라틴어로 번역되었을 때 남창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다.)이다. 회랍어 'malakos'는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연약한'으로 번역하지 않고 가끔 '방탕한', '음란한' 뜻으로 사용한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한',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로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성애자들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으로는 동성애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약한',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는 이성애자들도 포함된다.

로마서 1:18-32은 인간의 갖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강조하고 있다. 주의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을 숭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 때문에 사람들을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이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바른 관계'를 버리고 바르지 못한 관계로 '욕정에 불탔으며'로 표현되었다. 결국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서 본문에는 두 남성 혹은 여성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말이 전혀 없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교도 신앙의 영향 때문에 바울은 동성애의 표현으로 동성애의 결과라고 보았으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둘째, 이 본문에서는 동성애의 멸망을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마음의 욕

정대로 하도록' 또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다'는 말은 서로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동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바울이 한 말은 단순하다. 그는 이성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욕에 빠지는 것처럼 동성애를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간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바울이 언급한 중요한 단어는 '바른 관계', '바르지 못한 관계'라는 개념상의 문제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바르지 못한 관계로 또 남자들도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영어에 해당하는 'natural(바른 관계)'을 아주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것은 지극히 바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2:14에서도 같은 회랍어 말을 쓴 'pushin'/'natural'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표준 새 번역 성서에서는 회랍어에 해당하는 'pushin'이 영어로는 'natural'을 우리말로로는 '본성에 따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확실히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에 따라'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람의 '본성에 따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성/남성의 동성애가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가 된다면 오히려 그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동성간의 성 관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로 깊은 애정과 매력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계로 본다면 바울은 진실한 남성/여성의 관계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도 바울이 동성애가 반 자연적인 것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자연 개념을 규범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서 주석가들은 우리가 첫 2세기 동안의 윤리적인 견해들에 접할 때 그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적 제한을 받았음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바울의 결혼관 속에 개인적 애정이 들어 설 자리가 없듯이 동성애 역시 그의 눈에는 언제나 그만 둘 수 있는 임의의 행실로 보였는지 모른다.

3. 성서의 성에 대한 태도

이렇게 다른 관점의 해석을 하더라도 성서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확실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동성애 느끼는 반감은 그것이 바른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문화가 유대생활에 침투한 것으로 반 유대인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오늘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서에는 또 다른 성에 대한 규범, 태도, 실행, 실천, 그리고 금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이상 규범이나 기준으로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의 성 관계에 대한 태도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1) 유대교에서 나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비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이 벗거벗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창 9:20-27). 벗는다는 것은 부부관계까지도 터부시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체의 해수욕장을 흔히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집안에서 방안에서 부부가 벗는다 해서 죄라고 할 수 있는가?

2) 구약의 율법은 여자가 월경을 하는 동안 불결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가까이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를 앉는 자는 모두 부정하다"는 것이다(레 18:19; 15:20-23).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범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결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여성의 월경과 관계없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관계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죄인인가?

3) 성서는 서로 동의한 미혼 성인들 사이에 성 관계를 금지한 곳은 없다. 결혼하지 않은 두 남녀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아가서 1:8).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랑의 장면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는 혼전/혼외 성 관계를 금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독신자들, 과부나, 이혼한 사람들이 옛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정죄할 수 있는가? 성 관계는 과연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옳은 태도인가?

4) 구약에서 간음, 근친상간, 강간, 매춘 등에 관한 사회 규범은 여성의 억압과 남성들의 재산권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성은 남성들의 재산권에 속했다. 남성은 창녀 집에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며 미혼녀와의 관계는 처녀성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남성의 특권이였다. 또 창녀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지라도 창녀를 찾아가는 남자는 죄책감이 없었다(창38:12-19, 수2:1-7).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은 더 이상 남성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 평등한 사회로 지향하고 있다.

5)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은 결혼한 남자의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과부 된 여인은 남은 다른 형제와 결혼해서 죽은 형제를 위한 씨받이가 되었다(신 25:5-10). 오늘날 이 법규는 가정파괴 또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성서의 권위에 대한 문제점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성 관계에 대한 사례들은 성서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혼란과 이중성과 모순성을 보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생활을 이끌어 오는 법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어떤 법은 신약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구약의 이러한 율법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도 살아 있는 율법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인간을 율법의 눈

으로 볼 것인가. 복음의 말씀으로 인간을 볼 것인가?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문자를 따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모든 성의 관습은 성령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롬 7:6). 그리고 그러한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있어 야지 인간이 그 법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면 성서야말로 성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윤리만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사랑의 윤리는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도 변함 없이 지배해 오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랑이란 언약, 믿음, 존경, 신뢰를 서로 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시각에서 성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의 왜곡된 사고는 전환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문자를 따른 낡은 정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성서, 전통, 심리학, 인류학, 유전학, 그리고 생물학 등의 관점에서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부정적인 판단이 어느 때 가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정죄라고 판단이 될 것이다. 그 때가 도래하고 있다. 성서의 동성애의 부정적 측면은 마치 구약성서에서 노예제도를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약성서 어느 곳에서도 노예제도를 부정적인 인권유린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오늘날 노예제도를 노의 할 때 그 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5. '기독교'라는 종교와 동성애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신흥종교이다. 몇 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 앞에서 감히 명함도 내밀수 없는 종교인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다. '세상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된 종교는 우리 종교뿐이야.', '우리가 따르는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구!" 하지만 이런 말은 자기 신앙의 소중함에 대한 개인적·공동체적 고백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상이한 신앙이 공존하는 현실에서는 그저 공허한 독백일 뿐이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동성애의 탄압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방 종교라고 해서 배척하고, 오직 하나만이 유일한 진리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인종 차별, 여성 억압, 노예 억압, 성 소수자 억압, 제 3세계에 대한 억압 등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시퍼런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인류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차이와 다양성의 수용이 공존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윤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며, 그나마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과제인 채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반세기에

걸친 싸움 끝에 지금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을 얻어내기까지는 투옥과 박해를 무릅쓴 투사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성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커밍아웃의 대가로 학교와 직장에서 수모와 추방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온 몸으로 보이기 위하여 자살을 하기도 한다. 그래도 여전히 성적 소수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수많은 분투와 희생 그리고 모색을 거치면서 이제는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의 '차이'가 '차별'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증가해 왔으며, 차이의 윤리가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우리의 현실도 조금씩 변해왔다는 점이다. 지식이 있는 교양인들이나 여러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차이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동성애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이에 관한 한 누구도 자신이 완벽하게 개방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건 오류이자 자만이다. 차이는 고정된 항목이 아니라 자기-타자의 유동적 관계 그물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낯선 효과이기 때문이다. 차이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자부하는 순간 당신은 새롭게 맞닥뜨리게 될 차이를 받아들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더욱이 차이의 윤리가 '교양인의 덕목'이 된 오늘날 우리는 아마도 자신을 개방성으로 포장하는 '교양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도 그냥 나를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다'라고 포장하기 위한 것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적 성향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미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골적인 이성애중심주의나 동성애공포증 또는 그로 인한 가시적인 억압이 아니다. 더 큰 장애물은 오히려 동성애도 사랑의 한 유형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무관심과 무의식적인 멸시를 키우는 그렇고 그런 교양 문화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말이다. 아니 나 말고도 많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성적 성향의 차별은 인종차별이나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등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말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차별을 넘어 다양성의 공존하는 진정한 차이의 윤리를 향한 커다란 분투의 일부라는 것, 내가 꿈꾸는 미래는 이렇듯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고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나름의 삶의 몫을 즐겁고 성실하게 일구어 갈 권리를 누리는 그런 세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지 않겠는가?

* 이 글은 H대학 기독교세계관 기말에세이로 제출한 글임을 밝힙니다.

I. 서론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0여년 전, 한 성직자가 rock & roll에 대해 비판하던 말이다. 악마의 노래라고 배척됐던 락 음악은 그러나, 현대에 있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되었다. 그 동안 급기시 되어오던 동성애 역시 최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2000년, 공인으로서 최초로 홍석천씨가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그 동안 움지 깊숙한 곳에 묻혀 있던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했다. 그 후로 동성애는 우리들에게 그다지 생소하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자리잡았고, 2005년 겨울과 2006년 봄에 걸쳐 동성애를 다룬 세 편의 영화- 한국의 '왕의 남자'와 미국의 '브로크백 마운틴', 일본의 '메종 드 히미코' 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한결 누그러진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을 대하는 의견은 여전히 양분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죄악시 하는 기독교조차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단체(한국 기독교 청년 학생 연합회 등)와 그렇지 않은 단체(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등)로 나뉘어진다.

II. 무엇이 쟁점인가

동성애에 대한 주요 쟁점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타고나는 성향이기에 때문에 인위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일종의 학습이라는 주장 모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동성애의 원인이 과거의 학습보다도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2천명에게 8가지 후천적 원인과 4가지 선천적 원인을 제시한 후 그들의 견해를 물었다. 설문에 응한 508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해보니, 선천적 원인 4가지가 가장 관계가 깊고 그 나머지 순위를 차지한 것이 후천적인 원인이었다.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8, p.148.

동성애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성간의 성행위와 그것에 따르는 질병 때문이다.

수많은 질병이 동성간의 성행위를 통해 발생하며 특히, 에이즈가 그것을 통해 퍼진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흔한 사고이다. 그러나 2006년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감염경로가 밝혀진 58명의 감염자 중 이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람은 35명이었고, 동성간의 접촉으로는 23명이 감염되었다. 에이즈는 이성, 동성을 떠나 문란하고 예방을 하지 않는 성행위의 결과라고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세 번째 쟁점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이 때 증거로 드는 말씀이 창세기 19:8-11절, 레위기 18:22절, 로마서 1:27절 등이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을 방문한 천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레위기와 로마서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의 내용을 동성애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매춘의 행위를 금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David Bartlett은 바울의 로마서를 예로 들어, 우상숭배와 자기 의를 포함한 다양한 죄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시는 인애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지적하는데 사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David Bartlett, A Biblocal Perspective on Homosexuality, p.31.

동성애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느냐의 여부도 논쟁거리이다. 현재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미국(일부 주), 호주, 이탈리아 등이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2월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가 동성애자가 가정을 꾸릴 권리, 자녀 입양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인터넷판, 2006.02.21. 동성애자가 가정을 꾸릴 경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생기는 생명의 원칙을 위배하며 그 환경에서 자라날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 가족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자들은 그것은 이성 부모 슬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문제이며 부모의 역할은 성을 떠나 개개인의 자질이라며 맞서고 있다.

III. 동성애자와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동성애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동성애자를 대하는 교단과 단체의 태도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침례교는 동성애가 기독교와 공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연합감리교회도 그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03년 4월에는 그 해 발표한 '동성애는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가정 붕괴와 에이즈 등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한기총 성명서가 가톨릭신자인 윤모씨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여러 단체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고 죽음에 대한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인터넷판, 2003.07.23 이처럼 동성애와 교회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단체도 있는데 반해, 그들을 다른 사람과 똑 같은 구성원으로 대하는 곳도 있다. 성공회에서 파생된 Liberal Catholic Church는 1916년 호주 시드니에 게이들은 위한 최초의 교회를 열었고 Singer, E. Deschanps, D.

Gay and lesbian stats, New York: The New York Press, 1994,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1972년 게이 남성을 성직자에 임명하기에 이른다. Ibid. 국내에선 한국 기독교 청년학생 연합(이하 한기연)에서 매년 동성애와 기독교의 공존과 포용에 관련한 심포지엄을 열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IV. 동성애자인 기독교인

지금까지 살펴본 시각이 동성애 vs 기독교 였다면 이번에는 동성애자인 동시에 기독교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신이 게이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 기독교의 테두리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알려지기를 극히 꺼려한다.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종교적인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관심과는 상관없는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기독교에서 흔히 제시하는 관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남몰래 쓰린 가슴을 어루만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으며, 교회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다. 적지 않은 수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조건'이 기독교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조차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당당하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무리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도 끼지 못하는 이들을 누가 보듬어 줄 수 있는가.

V. 선한 존재와 악한 행동

지난 2005년 가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정이 한바탕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 단체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의 자체 문화제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붙여놓은 대자보와 성적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처참한 테러를 당했기 때문이다. 일다, 인터넷판, 2005.10.04 그 당시, 변날에서 설치해 놓은 모든 전시물 옆에는 기독교 단체의 행사를 위한 전시물이 함께 놓여있었고, 변날이 회지를 나눠주는 동안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두 무리간의 신경전이 낮 동안 계속되다가, 그토록 팽팽하던 긴장이 느슨해진 새벽시간을 틈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붙여진 대자보는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찢겨나갔고, 학교 본관에 걸려있던 무지개 깃발은 건물 구석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

빛과 어둠이 함께일 수 없듯이 선과 악도 함께 일 수 없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며 악에 대한 처벌을 외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묻고 싶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리처드 니버의 문화에

대한 관점 중 다섯번째 모델인 '변혁 모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구조는 선하나 그것의 방향이 악하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동성애에 접목시켜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존재, Being은 충분히 사랑 받고 선하게 여겨져야 한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방향, 즉 Doing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Doing에만 초점을 맞추어 동성애를 비판하며, 그 비판이 결국 Being에 대한 의식 혹은 무의식적인 폭력에 이르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존재조차 부정 당하는 동성애자들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선행 될 때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행동이 따를 것이고,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1인 여자가 매스미디어를 보며...

by LK

요즘 동성애코드니 뭐니 하면서 쇼프로, 영화, 뮤직비디오 등 매스미디어의 많은 분야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 콘텐츠가 언급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나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개 중에는 긍정적인 느낌도 있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아쉽다는 생각도 종종 든다. 이성애자들은 무심코 웃고 넘어갔을 부분이나 우리에게 대한 편견 혹은 이해 등이 만들어질 만한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막상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주위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주위들은 것들을 모아가다 짧게 글을 써보려고 한다.

애초에 우리는 남들과 다르거나 틀리지 않다. L이라면 누구나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는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그냥 평범한 개인이고 특정한 '단체'가 아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그냥 동성을 좋아했고 또 그것을 '내 감정이 이렇구나.' 라고 개인이 정체성을 인정 했을 뿐이다. 이 개인들이 종종 동질감을 느껴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는 있겠으나 그들을 하나의 동일한 개체처럼 바라보며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당사자로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정도이다. 나는 나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가치관에 따르는데, 마치 나의 사랑은 특정한 병과 같기에 동성애자는 병의 증상마냥 모두 똑같은 이미지에 같은 코드로 움직일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를 사회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단체로 싸잡아서 다르거나 틀린 사람들로 바라보고, 작년 문화제때 우리가 다루었던 MBC 뉴스투데이 <현장 속으로>의 보도에서는 '전 이반소속'등의 말도 안 되는 어휘를 사용하는 등으로 하여 L들의 입가에 허탈한 미소를 머금게 하기도 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가입과 탈퇴조차 가능할 것 같은 미지의 특이한 단체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외되게 된다. 의지에 의한 정체성의 변화라는 개념이 우스운 건 물론이거니와 '전 이반소속' 등의 개념 자체가 기겁할 노릇이다. 당신들은 일반이라는 단체 소속입니까? 일반 가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일반은 ㅁㅁ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묻고 싶을 정도이다.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한 변태성욕자라는 의미를 풍길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도 프로그램을 소위 발로 만들었나 싶었다. 난 동성을 사랑한 것(동성애)뿐이지 육체적, 성적인 것만 바라보는 관계(동성연애)는 가져본 적도 없는데.

미디어는 편집권을 가지고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조사해 봐야할 책임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업적으로 동성애를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과정에서 게이 위주의 콘텐츠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동성애자, 곧 게이,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지양해야한다. '우리는 다르거나 틀린 존재다 혹은 아니다.' 와 같은 '동성애자는 어떻다.' 라고 수용자에게의 우리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동성을 사랑한 것 외엔 다른 점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매스미디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일방적이고 대량으로 정보전달을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혹자는 '미디어의 동성애 코드가 동성애의 유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라고도 하더라. 유행이라니, 바뀌서 생각해보자. 이성애를 유행이라고 말한다면 당신들은 웃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렇게 치자면 이성애는 이미 유행을 넘어 세뇌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성애만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동성애는 생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것처럼, 이는 드라마나 쇼프로 등이 남성과 여성의 데이트할 때의 성역할, 로맨스 역할모델, 생활 등 사회화하는 과정 전반을 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뿐 아닌 미디어까지 이성애를 사회화시키니까 이성애자가 많은 것이고 동성애를 비정상 취급을 하는 것이다.

PS. 조금 고루한 부분은 제쳐 두고서라도, 비슷한 이유로 꼭 짚고 가야할 부분은 쇼프로 같은 부분에서는 동성커플들을 찍지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는 것도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 불쾌하다. 억지로 이성의 선택에서 남겨진 동성끼리 짝을 만든 후 동성애가 마치 모자라기에 어쩔 수 없이 찾는 선택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끼리 너 동성애자냐 라며 호들갑 떠는 모습이란... 왜 이성애자들은 느끼지 않을 당혹감을 우리에게만 주는 걸까. 그래 이성애자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이성애가 당연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받을 정도의 동성애 더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SEEYA의 '미친사랑의 노래' M/V라던지, 반디라는 신인여가수의 -제목만들어서는 완조니 레즈비언틱!하지만 가사는 참 어이가 없는- '여자를 사랑합니다'의 M/V 역시 레즈비언 코드를 약간씩 담고있다. 시간 나실 때 한번씩 찾아 재미있게 감상하시길.

2. 노래속 향기- 신비의 'To my friend' 외

여러분들은 신비라는 그룹을 아시는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된다. 나 역시 내 친구가 이노래를 부르기 전엔 전혀 몰랐기에. 이래봐도 빠순빠들이 팬들 많은, 비주얼한 아이돌 가수(수식어가 길군..) 전문 양성 매니지먼트사인 SM출신의 여성 3인조 그룹이란다. Oooooops...

이 그룹의.. 웬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이는..(하하) 1집 앨범의 타이틀 곡인 to my friend, 가사가 레즈비언인 본인의 흥미를 자극한다.

너를 처음 본 순간/ 운명처럼 너에게 이끌려/같은 여자인 너를/ 두려움 속에/ 난 좋아하는데/ You're my first love/넌 느낄 수 있니/Tell me your heart/더는 감출 수 없는걸/ 이제는 너에게 고백할게/ Love is no crime/흘린 눈물만큼 너를 사랑해/ 너의 하루 안에 머물게/ 미안해/넌 웃으며 말했어/영원히 좋은 친구로 남자고/

뭐 대~충 이런류의 가사이다. 매우 가녀린 보이스를 지닌 소녀 3명이 이 노래를 부를때 가사마저도 저렇게나 적나라하다. 뭐 기사를 찾아보니 신비 멤버들 역시 인정하더라.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안좋은 시선을 완화시키려고 그랬대나? 꽤 기특한 발언이지만 과연 정말 그런 의도로 만들었을까는 매우 의문이다.

한 소녀가 첫사랑이라고 2절에 보면 널 지켜주겠다고까지 그렇게 그렇게 말했는데도 매정하게 친구로만 남잔다. 흑흑, 스트레이트를 꼬드기려 한젠가. 사실 스트레이트들도 찌르면 의외로 잘 넘어오는데, 어찌 작품의 세계는 이리 냉정한 것이여! (이런 개인적인 발언은 흘러들길 바람...)

심심할 때 생각나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퍽-하고 웃음이 나올지도. 허나 그렇게까지 못들어줄 노래는 아니니 :)

그 외에 또 한국을 소개 하려 한다. 필자는 흑인음악(특히 힙합)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힙합음반 외의 언더그라운드에서 있는 많은 랍퍼들의 음악도 관심을 갖고 듣는 편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 레즈비언 소재의 랍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는 L친구 동생 언니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들려주고 했던 기억이 사뭇떠오른다.. 하하하.

그 곡이 이전 제법 힙합 리스너들 사이에서, 특히나 레즈비언 리스너들 사이에서 꽤 퍼져서 포털사이트에서 제목만 쳐도 금방 검색이 되니 궁금하면 검색해보시길. 피말라지애의 '욕먹을 사랑' 이란 곡이다.(박경림의 욕먹을 사랑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노래를 부른 피말라지애씨는 안타깝게도 레즈비언이 아니란다. 그저 레즈비언들을 좋아하는 스트레이트 랍퍼란다.(바이일지도 모른다는 필자의 초 개인적인 희망!) 그래서인지 가사에 있어서 유치하다싶은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고, 아 역시 레즈비언의 사랑이야기는 우울하다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많은 레즈비언분들이 이 노래 좋아하시더라. 우리에게겐 우울한 것이 익숙해져버린 탓인가. 악!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나저나 이 분의 보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다. 그저 부러울 따름..

3. 영화속 향기- 여고괴담2 외



이미 너무나도 레즈비언 코드 영화로 유명한 여고괴담 2. 소개를 한다는 것이 민망할 정도다.

그리고 보니 여고괴담 1편이 이룬 공전의 히트로 인해, 작년 결국 4편까지 나왔고, 현재 5편 촬영중이라고 하니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참. 사실 나는 두편(1편, 2편)만 봐서 이후의 성과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게 최고는, 감독 2명(김태용, 민규동)이 제작한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memento mori>(1999)이다. 이 영화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일부 매니아들에게 2편 만의 전가를 각인 시키는데에는 그리저럭 성공한 것 같다. 물론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동성애 코드는 우리가 고교시절 흔히 경험하는 일종의 sisterhood의 사춘기적 증폭을 잘 조리한 것이다.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애적 감성을 갖고있으면서도 동성애적 호기심과 매력을 외면하지 못하는 걸로 묘사된다. 바로 그런 점이 이 영화가 예리하게 포착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묵묵하고 건장한 여자 육상선수 동급생- 하지만 한쪽 청력이 약한 핸드캡 때문에 보호본능과 피보호본능을 함께 충족시키는 캐릭터 시은(이영진), 사랑의 좌절 혹은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지못해 결국 자살로 마침표를 찍는 효신(박예진), 그리고 효신의 빈 자리를 넘보는 민아(김민선). 이 영화의 참신성은 시은과의 동성애적 우정과 국어 선생님과 이성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 여고생(효신)의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음, 사실 공포 영화지만 뭔가 나에겐 공포보단 여운이 남는듯한 영화였다. 내 정체성 때문인걸까? 훗, 그때 당시엔

홍행실패로 끝났지만, 만약 이 영화가 요즘같은 때 개봉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든다. 시기를 잘못 탄 영화임은 확실한 것 같다.

다음은 이 영화. 아.. 지금은 세상에 없는 故이은주양(..ㅠㅠ)이 주연으로 나오는 '주홍글씨'. 물론 이 영화는 소재 자체가 레즈비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전 요소로 사용되었을 뿐. 하지만 영화에서 결코 배제시킬 수 없는 요소이기에 이 영화를 꼽아보았다. 스토리도 정말 현실적이지 않고, 영상도 그닥이지만 이은주와 엄지원이 사랑할때의 모습만은 봐줄 만 하니 이쁘다. 아, 그나저나 글 쓰려고 자료 찾다가 이은주 사진을 무지 많이 봤는데 너무 보고 싶다 은주 언니..-_-ㅠ
별로 추천할만한 영화는 아닌 듯 싶다. (그래서 내 멋대로 소개도 대충..)



4. 사진 속 향기- 여성 듀오 '허쉬'의 1집 앨범자켓



그룹 허쉬? 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가수였다. 팬클럽 소식통에 의하면 이 그룹은 2000년도에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앨범을 냈고 지금은 찢어져서 각자의 길을 걷고있다는 슬픈 사연의.... 하하. 아무튼! 사진 속에서 상반신만인지 전체인지는 모르겠으나 누드로 보이는 차림으로 다정하게 볼을 맞댄 두 미녀라, 딱 봤을때 레즈비언 코드로 읽힐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근데 이렇게 까지 컨셉잡아서 앨범자켓 찍었는데 세간의 이목을 못받아서 어쩌나. 쫓쫓쫓...안타까울 따름이다.

5. 소설 속 향기- 서영은, '그녀의 여자'

제목부터가 레즈비언 코드를 피해갈 수 없는 소설 '그녀의 여자'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던 한 중년 여성화가가 어느날 느닷없이 젊은 여성(신문사 문화부 기자)에게 정신없이 빠져든 이야기이다. 그녀는 화가의 의붓아들의 여자 친구이기도 하다. 화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화가를 사랑한다. 허나 젊은 여자는 관계의 부담감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려 하고, 그럴수록 화가는 젊은 여자의 마음을 독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지만.. 결국 화가는 질투에 눈이 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끔찍하고도 격렬한 사랑

이었다. 화가의 그녀에 대한 감정은 동성애와 모성애가 섞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이 화가와 젊은여성 모두가 레즈비언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여성간의 사랑이 소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분명하다. 허나....이 소설 역시 다른 작품들과 다를 바 없이 미친 듯이 우울하고, 허무하기 짝이없는 결말을 지녔다는 점에서 필자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 고3때인가, 독서실에서 공부안될때마다 찜찜이 꺼내어 읽었던 책. 이성애, 동성애를 떠나 정말 인생의 허무주의의 극치를 맛보았던 걸로 기억한다. 덜덜덜...

여지껏 본인의 허접한 국내 레즈비언 코드찾기 놀이를 함께 따라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재밌게 읽었을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글재주가 없는터라 지루해져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웬지 레즈비언의 주제로 글을 쓰다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푸푸..더 많고 다양한부분에서 풍부한 자료들을 모두들에게 보여주며 공유하고 싶었으나, 아직 국내에서 레즈비언을 다룬 작품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외국에선 이미 어렵지 않게 레즈비언들에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 광고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그래도, 동성애에 관한 작품이나 자료들을 꽤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이전보다는-.

작년에 왕의남자가 그렇게 엄청난 히트를 친 이후 사랑 불었던 동성애 코드 유행 바람 덕택에 많은 작품들이 조금씩 동성애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동성애자들을 자신들의 작품이나 기사속에 담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는 동성애가 표현 영역의 확대보다는 소재 경쟁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이다. 관심 끌기 식의 상업적인 목적을 띤 동성애 소재의 작품들은, 되려 동성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하게 해주는 한계점을 갖고있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사랑은 대개 비극적이고 허무한 결말로 표현되어버리기 일쑤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은 동성애라도 게이보다 레즈비언은 자극적, 상업적인 요소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순수한 사랑을 그린 것들은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내가 조사했던 이 국내 작품들은 그래도 외국의 그것들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느낌이었다는 것. 앞으로도 바람직한 쪽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야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이렇게 보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정도는 고작 시작일 뿐, 아직도 너무 멀고, 많은것들이 남은것만 같아 여전히 쓸쓸한 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할 말이 있다. 국내, 혹은 국외의 많은 레즈비언 작품들을 보고, 적어도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만은 그게 우리 레즈비언들의 사랑과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걸, 우울한 레즈비언들보다 유쾌한 레즈비언들이 더 많다는걸!!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에게 천국은 없다

by KAZE

"그래서 내 말은 너랑 사귀고 싶다고"

사귀는 남자는커녕 친구 이상의 의미로 남자를 생각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내 나이가 14살의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나의 첫사랑에게서 이 말을 들었다. 짧지만 강했던 그 한마디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그 앞에 꽤나 길었던 듯한 서론을 단 한 토시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날. 놀란 가슴에, 기쁜 마음에 펄펄 울던 나를 안아주던 내 앞의 그 사람은 나를 아닌 '여자'였다.

그렇게 나는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 나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사랑했다. 남자? 충분히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직 나의 의지로 항상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했다. 내가 '그'의 팔짱을 끼고 '그'에게 안기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을 뿐 더러, 상상하기조차 싫었기 때문에. 이제 내 나이 스무 살. 정체화를 하고 레즈비언으로 살아온 지 벌써 6년이나 지난 지금, 난 여자를 사랑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고, 그러리라 믿고 싶다. 그래서 난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꽤나 많은 레즈비언 커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아니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대부분이 이성애자인 주변 사람들에게 몇몇이 드러내고 살 수도 없다. 작년, 부산에서 열렸던 한 행사에 참여해서 자신의 애인과 몇 년째 함께 살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세금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이웃들부터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는, 함께 살고 있는 혼기가 지난 이 두 여자들은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어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들' 이 되어버린다 더러. 이 둘이 곧 동네구멍가게 안의, 또는 어떤 가족의 늦은 저녁식탁 위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집안 문제는 그 둘 개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지만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 않은가. 나는 이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지 않는다. 설사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그 법과 함께 확 변해버리진 않을 거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현실도

피를 꿈꾸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 생각을 수 차례 해왔고, 일종의 준비 중이기도 했다.

나는 수 개월간 호주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곳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다. 그리고 나의 소박한(?) 계획 실현을 위해 직접 외국에 살고 있는 레즈비언커플을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찾고 해매고 한 결과, 한 일본인 레즈비언 커플을 만나게 되었다. M과 Y, 지금 나와 내 애인의 나이와 비슷한 이 둘은 일본에서 만났고, 한국과 다를 바 없는 그 곳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이 먼 타국땅까지 도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이 곳까지 온 그들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다음은 그들과 나눈 대화의 한 편을 잘라 만든 간단한 인터뷰다.

K: 왜 호주에 오게 된 거야?

M: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Y는 밀었던 주변 친구들에게 아웃팅을 당해 원래 살던 곳에서 머무는 게 힘들었고, 그 와중에 부모님이 Y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어했지. 솔직히 나는 대학에 가진 않았지만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 계속 사는 게 오히려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던, 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Y를 따라 오게 되었어.

Y: 아빠가 호주에 보내주겠다고 했어. 난 아직 집에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누가 나타나 집에 아웃팅을 할 지 모르는 그 곳에 있는 게 내겐 너무 불안했었지. 그래서, 집을 떠나 이 곳으로 오는 게 M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여튼 최선이었어 내겐.

일본에서 만난 지 대략 반년,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1년 동안 그들은 생각보다 꽤나 큰 위기에 봉착해있었다. 일반 커플 사이에 있을 법한 문제들이 그 둘 사이에도 있거니와, 둘이 일본을 떠나기 전 생각해왔던 계획은 영주권을 따서 호주에서 살겠다는 계획 또한 쉽사리 성사되지 않았다.

K: 호주에서 살려고 온 건데, 잘 되어가고 있니?

Y: 뜻밖의 일이 생겨버렸어. 부모님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대학을 다니라고 하셨거든. 그리고 또 하나, 날 여기로 보낸 이유가 대학 학위 때문만이 아니었더라구. 식구들이 전부 호주에서 살고 싶어해. 난 단지, 여기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잡고 영주권을 따게 되면 식구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온 것 뿐이었던거지. 정말 몰랐어.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얘기야. 혼란스러워.

M: Y의 부모님이 Y를 호주로 보내는 본의를 조금이라도 내비쳤다면 난 Y를 따라 오지 않았을거야. Y와 함께 일본의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봤을 거 같다. 난 Y만큼 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입장도 아니고,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따서 영주권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Y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데, 거기까지 따라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고.. 만약 부모님이 오신다면 난 어떻게 되는거지?

M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1년 동안 호주에서 Y와 보낸 시간이 '낭비'였다고 말이다. 원래 둘의 계획은, Y가 영주권을 우선 받아 그 후 Y가 M이 자신의 연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서류 일정기간 이상 동안 둘이 커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산 공동명의, 증인 등등- 를 준비하여 M을 파트너로써 영주권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Y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M이 그의 동성연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는 기약없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국적의 동성커플은 이 방법보다 둘이 따로 영주권을 따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이 둘은 그렇지 못하니 어느 쪽도 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M이 어떻게든 해서 영주권을 따내고 하더라도 Y의 가족과 함께는 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M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멀리까지 날아온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때문에 M은 진지하게 Y와 헤어질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M: 세상 어디에도 우리 둘이서 쉽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어.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놓아 버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야.

나 또한 외국에서 나의 미래를 전부 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랬다. 내 눈에 비친 외국, 특히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나라는 마치 천국과도 같아 보였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함께 그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고, 내 전부를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1년 전, 고국을 떠나기 전의 M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M과 Y, 이 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현실도피와도 같은 외국으로의 이민은 동성커플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

동성커플의 천국은 어디에도 없으나, 어디에나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천국을 찾으려 하기 보다, 그 천국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 것이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곳이 마치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황무지일지라도 그를 일구고 가꾼다면 '행복'이 있는 천국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나와 나의 사람이 살아갈 곳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말이다.

I'm Lesbian.

Le: So what? Who cares?

by LEO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동부 모대학에 있었다. 내가 있었던 곳은 오하이오주였는데 오하이오주는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 기독교 성향이 강한 주에 속한다. 미국사회에서 몇 개월 살았다고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생각해도 내 글을 매우 단편적일 수 있다.) 그동안 레즈비언으로써 느낀 점을 써보려한다.

*참고: 이 글에서 '게이'라 표현 한 것은 남성동성애자가 아니라, 성소수자(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ed, Questioning)를 지칭한다.

1. 레인보우+게이

미국 사회에서 무지개는 무조건 게이를 상징한다고 과언이 아니다. 게이를 상징하는 거의 모든 물건(버튼, 가방, 열쇠고리 등)은 무지개색(빨, 주, 노, 초, 파, 보)이다. 게이가 아닌 이성애자들은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착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미국사회에서 레인보우가 들어간 어떠한 물건을 가지거나 착용했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설사 그런 물건을 착용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그들-게이가 아닌-이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든). 굳이 게이다(gay+radar)를 돌리지 않아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게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무지개는 대개 '희망'의 상징이거나 다양한 색을 가진 '귀여운 디자인'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에 양말이나 가방, 티셔츠 등의 프린트에 자주 등장하고는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레인보우가 게이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결코 그렇지 않았으리라.

2. 트랜스젠더 교수

모 대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이다. 첫 학기, 첫 수업의 설레임에.. 게다가!! 첫 수업시간부터 게이다(gay+radar)가 돌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는 그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였다!! (그 매력적인 목소리란, 훗) 학기 중반부가 되어갈 때쯤 두가지 정보가 내 귀에 흘러들어왔다. 첫 번째 정보는 같은 학교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녀는 원래 남자였다는 것과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두 번째 정보는 같이 수업들은 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자신의 친구 H가 저 선생님한테 99년도에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저 선생님이 남자였다고. 와우! 이런 엄청난일이! 그러나 나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이야기

를 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이었다. “응, 나도 (그가 아니라 그녀라는 것을)알아, 그게 무슨상관인데? 그 사람은 정말 실력있는 선생님이고, 우리(그 게이교수와 같은 과에 있는 동료교수들..)는 아무렇지 않아,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직업을 못 가진다거나 같이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 게이교수는 같은 직장에서 10여년간 강의를 했으며, 그 직장을 다니는 도중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을 바꾸었는데도, 자신의 직업에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고 했다. 아아, 부러워, 좋겠다. 흥.

3. 학내 성소수자 인권운동

나는 'Gay Pride'라 써있는 게시물이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는걸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포스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몰래 또는 대놓고 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화 내의 테러쟁이들!). 우리와 같이 학생문화관 쯤 되는 건물에 커다란 방도 있고, 활동하는 사람도 꽤 많다. 그들은 매주 게시물이나 공연 등으로 행사를 열고는 했는데 총장이 와서 행사를 같이 준비해 줄 정도였다. 물론 그 사람은 차기 시의원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 행사를 도와 준 것이긴 하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시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도와줬다고 치자 (사실 그런 일을 도와줬다는 것 자체가 생각도 못할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선 보다는 낙선하지 않았을까?

또 한가지, 그들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에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비율이 4:6정도라고 했다. 우리나라 남녀공학 대학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의 경우에는 레즈비언보다 게이 가 현저히 많다. 이건 단순히 한국에는 레즈비언보다 게이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 단체 내의 성비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동성애인권운동이(단순히 대학 내 운동을 떠나서) 게이와 레즈비언 문제가 분리되어 독자적인 담론을 형성했다기보다도 게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고등학교에도 성소수자 단체가 있었다. 그들도 고등학교 내에서 인권운동을 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커밍아웃 하거나, 아웃팅을 당하게 된 경우 교내봉사, 정학등의 징계가 내려지거나 전학을 하거나 자퇴를 권유받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세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자료집의 사례를 참고하시라.) 아니, 레즈비언이 징계사유가 된단 말인가? 대체 무슨 죄가 된단 말이지?

미국에는 Day Of Silence(DOS)라는 전 미국적인 성소수자 행사가 있다. 이는 1년에 딱 하루동안 진행되는 행사로서 성소수자들은 침묵을 유지한 채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지지하는 서명을 부탁한다. 이 행사는 1996년 버지니아대학교 성소수자인권운동 단체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포함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인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힘든 일이다(게다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화 내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문화제

때마다 테러를 경험한 변날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4. LGBTQ강의와 전공

미국에서 여성학이 처음 뿌리를 내릴 때에, 정식으로 학위를 받는 전공이 아니고(모든 학문이 그렇듯), women study라 하여 부전공 정도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성학이 점점 정식 교과로 채택되고 여성학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화 내의 여성학과와 같이 미국에는 gender study라는 학위가 있다.) LGBTQ강의도 개설되었는데 이 강의는 계열학기 과목으로도 개설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LGBTQ강의라고 불릴만한 것은 없고 여성학을 비롯한 사회학 여러 교과에서 조금씩 세부 주제로 다루어질 뿐이다.

5. 기독교와 성소수자

“와! 교회에 레인보우가 붙어있네? 무슨 뜻이야?” 마트에 가는 길에 이모에게 물었다. 이모가 대답했다. 그 교회는 성소수자 성도도 있는 교회라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있었던 곳은 전통적인 기독교문화가 아주 강한, 매우 보수적인 곳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이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호모포비아적 설교를 한다. 우리나라 성소수자들은 언제쯤 교회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6. 게이가족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 이었다. 레즈비언커플이 유모차 한 대씩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유모차에 있는 아이들은 “Both of them are my real moms”라 써있는 윌도리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

미국의 성소수자, 그들은 충분히 드러나 있고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성소수자로 그들을 드러내는 것을 존중받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의 제도적 장치들(법적으로 인정받는 결혼과 사회보장제도들)이 마련되길 원한다.

언젠가 학교 화장실에 쓰여있던 낙서를 본 적이 있다.

'I'm Lesbian'

↳ 'so what? who cares?'

내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대답 또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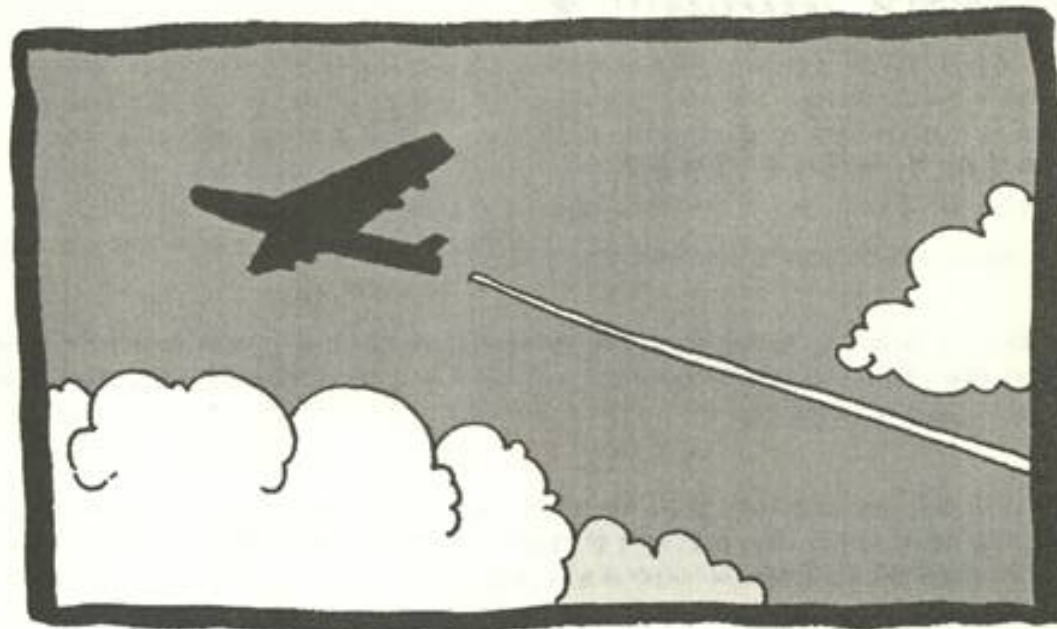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래서?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며 내게 따뜻한 웃음지어주길..

당신의 친구일지도 모르는 내게.

당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내게.



앗, 이제 이륙이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하늘.

스스 날아볼까?

★ 우리끼리 interview!!! ★

+ 자신의 첫 커밍아웃 상대는?

(Lego, Sea 는 '나의 커밍아웃이야기'에 자세한 글로 썼습니다.)

달: 나의 첫 커밍아웃 상대는....기억이 안 난다(;;) 커밍아웃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며 말하고 다닌 게 아니라 기억이 안나(;;) 근데 아마 지금 캐나다에 있는 친구한테 10년 말했던 게 처음이 아닐까 싶네.

LK: 아직 커밍아웃 해본 적은 없음. 사실 길은 배장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강강하고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주위에서도 그렇게 L에 대해 나쁘게 보는 (엄밀히 말하면 내게 난 액제워 라고 말할 만큼 도전해줄 사람이) 이가 없어서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커밍아웃을 못 했던 거네요. 하지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굳이 두갈 필요 없이 하다못해 L끼리의 커밍아웃은 필요 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굉장히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만큼 생환하는데 불리해지는 거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Dykeblue: 나의 첫 커밍아웃은 고2때 같은 동아리 친구들이었어요.

그 동아리 내에 좋아해서 사귀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원래 동아리 활동이 많고 언답때문에 동아리 동기들끼리 부대끼는 시간이 많았었다보니 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할 수도 없었고, 이미 다들 눈치를 쭉 후여서 공식적으로 말 했을때 아이들의 거부감도 없었던 깔끔하고도 산뜻한 커밍아웃이었다랄까. 킁킁

KAZE: 첫번째 커밍아웃이 뭐였다고 딱히 말하기가 그래요. 어느 날부터가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그 사람들은 누가 먼저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말하기 싫어도 서로가 다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커밍아웃은, 고등학교 2학년때예요. 수학여행에서 몇몇 아이들과 드러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아웃팅을 시키겠다는 험박같은 걸 제게 했었어요. 애매 담당한척하고 아무렇게 참으려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죠. 그래서 같은 반에서 가장 친했던, 당시 방을 같이 쓰고 있던 네명에게 말을 했어요. 저희 반에서 제가 레즈비언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만약 제가 두려하던 일이 발생해도, 내 편이 되주고 날 이해해줄 친구들을 만들했기 위해서였죠.

L: 생각해보니 제가 자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 커밍아웃 한 적이 없었네요. 전부 상

대폰에서 물어온 경우였어요. '네 L이지' 혹은 '너 ~ 좋아하지' 혹은 '언니, ~언니랑 사귀지' 이런 식이었죠. 아마도 마지막 말로 물어왔던 게 친동생이 처음이었지 싶네요. 동생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사귀었거든요. 원한 거지말을 잘 못하고 싫어하는지라 그냥 공격해버렸지요. 그 때 동생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평생의 가슴 아픈고 미안한 일이기도 해요. 애하든 모두 그런 식으로 커밍아웃 했어요. 한마디로 유도당해서 한 거라 내가 커밍아웃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간 정식으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아직은 두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못까지 차올라도 입밖으로 꺼낼 수가 없더라구요..

흑하: 나 레즈비언이야_ 라고 커밍아웃을 했다가보다는 좋아하는 애가 있고, 그애랑 이랬어 저랬어 그 애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것까? 관 식으로 연애상대를 했던 선배가 있었 습니다. 애자라는 것도 자연스레 말했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 반응 없었던_ 생각해보 니 첫 커밍아웃상대군요.

black: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이 L이라고 말한 친구에게 했던 것이 처음인 것 같네 요. 그치만 그 친구가 오히려 아웃팅을 물고 온 주범이 되어버려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진 않습디다.

록나: 커밍아웃은 아우팅쪽으로 먼저 사건을 터뜨려버린 것 같아서, 아우팅 이야기에 쓰겠습니다-

피키피키피: 고등학교 3년 내내 미치도록 좋아했던 아이에게 졸업 후 어느날 문득 전화를 걸어 "난 레즈비언인 것 같아. 널 정말 좋아해서, 알고 있었어?" 라고 커밍아웃했죠. 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대답은 "알고 있었어.. 난 바이인 것 같아" 했죠. 그 날 우리는 꽤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죠(웃음)

스타: 정확한 첫 커밍아웃상대는 대학 들어와서지. 굉장히 친한 동시에 내가 술값이 있 던 친구에게, 그 친구는 당연히 예상할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생각해보니 죄다 아우팅이군 @#\$%^&*~!~!~!

회린: 고등학교 때 정해하한지 얼마 되지않았을 때, 그러니까 뽕 물렸을 때 거의 반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나 어떤 애자애랑 사귀고 있다'라는 식으로 커밍아웃한 적이 있어. 결과는? 그때는 뭐 이번이나 레즈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던 시절이기도 하고- 꽤 오래전이야, 내가 꽤나 고학번이잖아ㅋㅋ- 내가 레즈=남자애같은 애 라는 편견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해서 애들이 싹 일어버렸었지. 그냥 장난으로 여겼던 것 같아. 난 진지했었는데 ;□; 다들 귀담아듣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후에 만났을 때 나한테 남친 없냐 왜 없냐 너 전에 누구 사귀다고 했는데 그 남자랑은 헤어졌냐 등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았거든. 어이도 없고, 아 애네들은 커밍아웃만 한 애들은

아니거나 싫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어가버렸어, 그게 나의 첫 귀찮이야.

+ 레즈비언에 대한 자신의 정의는 ?

Dykeblue: 여자로서 같은 여자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끌림을 느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여자로서 같은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끌리고 설령 관계를 한다하더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레즈비언 같아 보여도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레즈비언이 아닌 거죠 뭐. 결국 그 사람이 레즈비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오로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어렵네 아주 어려워!!

Lego: (단계) gender가 여성인 어떤 존재가 내가 아닌 gender가 여성인 또다른 존재를 사랑하는것. (단계) (단계)를 그 자신이 인정하는것. (정체화) 결론)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만족하는 어떠한 존재.

L: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자신을 남성과 같이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진 여자가 아닌, 자신을 지극히 여성으로 인정하는 여자가 자신과 같이 지극히 여성인 사람을 사랑하는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레즈비언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체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LK: 딱히 금정지를 것도 없이 사람의 일상에 있어서 동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성 이끌림도 있는 게 보통인데 사회에서 성역할을 사회화 하듯듯이 나는 이성만을 좋아하고 지금 내가 동성에게 끌리는 건 비정상이다 라고 순간순간 부인하기 때문에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취향이이정도로는 나는 아무래도 이성쪽에 내 취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성 쪽이 다 좋은게 아니라 보통 이상형이나 일부 취향이 있잖아요) 이성을 많이 혹은 짧은 인생동안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저같은 경우는 제가 여성임에도 동성인 여성 쪽에 호감인 사람들이 많기에 동성을 주로 좋아하게 되는 건 일태국로. 정체화하신분들 말씀 들으면, 저처럼 이성을 좋아하기 전에 먼저 정체화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성과 아무런 문제없이 교제하다가도 내가 동성도 좋아할 수 있다 라는 걸 정체화 하신 분들도 있어요.

달: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Sea: 자신이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 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서 정체화한 사람.

black: 다른 분들의 답변과 같은 생각입니다. 설명하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꼴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 혹은 이해하고 있는나의 여부인 것 같아요.

KAZE: 다른 분들 말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해보기 어려운 문제니까,

아니 그 거의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버려서 어떻게 따로 금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간단해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알지만큼 '알'을 것 같네요. 사랑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루나: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키피키피: 뭐 딱히 거의-랄 것까지는 없지만. 굳이 말해야만 한다면 다른사람들이랑 비슷한 애기들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가끔 많은 '레즈비언'들이 그들만의 '레즈비언' 안에 갇혀 있다고 느껴. 그리고 타인들에게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야'라고 지적하고는 하는데, 난 그건 싫어. 누가 알겠어? 그게? 그녀들이 레즈비언인지, 아닌지. anyway, 난 여자가 좋다급!! (다들 그렇지? ㅋㅋ)

하린: 내가 거의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서 별로 할 말이 없네. 다들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내가 더 말해봤자 사족 밖에 안될 것 같다. dykeblue의 대답과 제일 비슷한 것 같아 나의 대답은 특히.

+ 너는 니가 왜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니?

LK: 딱 가늠고 여성이 좋아서. 사실 어렵게 적어는 정도는 나르시드했었어요. 자기 만족도 강했고, 결백증도 있었고(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디다만). 여자의 멋진 점이 눈에 더 들어와요. 남자의 행동들에서도 본받을만한 장점이 많지만, 그것은 그저 본받고 싶고 이르면 도움이 될 장점들이라 생각될 뿐, 사랑하고 싶은 주체까지 될까? 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어. 여성의 성체하고 이것저것 자잘한 성격적인 특성부터 외모적으로 더 끌리는걸로. 사실 요즘은 여성을 사랑하자, 소유하자 라는 강한 욕망보다는, 오픈라 원프라가 알했던 사랑과 우정과는 조금 다른 여성들끼리의 특별하고 돈독한, 금정되지 않은 관계가 더 끌리기도 해요. 사고방식이 다른 남자들보단 여자VS여자의 특별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금정되지 않은 관계.

결로.

Lego: 아 어렵다 이 질문. 근데 이성애자들에게 되물어 보고싶어. 스스로 이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레즈비언? 인간이고. 여러 사람이 있고. 즐겁고. 내 인생이고. 아 어려워. 어려워.

L: 독특하며 대단한 존재. 독특한 것.,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다수의 성향이 아니라 (말하자면 현재 성적소수자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독특합니다.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재들은 독특하고 싸이코같다는 편견 아닌 편견. 거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능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장차 각자의 위치에서 커다란 어떤 것을 해낼 인물들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항상. 레즈비언은 멋진 여성들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우리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대단한 사람들이예요. 하하

달: 이 질문 편견하겠어- 이성애자들에게 "스스로 이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Sea: 아름답고 현명한 존재? 굉장.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정말 남자보다 수천만 배는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해야 하나. 나에게 레즈비언은 사랑스런 존재야. 뭔가 반항적이기도 하고? 난 세상에 반항해야 하니까 - - ㅋㅋ 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레즈비언들을 보면서 참 뭔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껴.

축하: L도 그렇고 GBT 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LK: 솔직히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나누는 기준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 뿐이므로 딱히 그 사람들의 성격에서 공통점을 찾기는 별로 연관성없는 것을 생각지로 연결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다만 사회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부분은 동성애자들은 어떻게든 다른 시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아무래도 이성애 중심사회이다보니 시시콜콜한 농담에서부터 날 고려하지 않는 농담들에 기분상하기도 하죠. 당면하다는 뜻이 이성애를 전제한 이야기들. 애드만 L을 규정지를 공통적인 성격은 별로 없을 듯... 각자 사례들을 좀 들어주는 정도라면 모를까...아, 각자 사례 얘기해서 생각하는데 각주에 L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 L임에도 못 알아챈 L이 무진장 많았고 또 L들도 이성애자들처럼 애자면 다 좋아하지않고 자신의 취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거부할 때도 있다는거...

black: 똑같은 인간이라고 밖에.. 더하자면 모한 센스가 있어서 반짝이는 면이 하나씩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루나: 어떻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키피키피: 레즈비언이 뭐 별거 있어? 실존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만약, "레즈비언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라는 것이 이 질문의 포인트라면, 나는 "조낸 킴들어!" 라고 말할래. 정말 킴들어. "다른 레즈비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거라면 난 솔직히 헤테로인 애자들 보다는 확실히 레즈, 바이섹이 더 끌려. 예전에 헤테로인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만큼 전자의 경우가 나를 오픈한 채 관계 맺기에 킴들어서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내게는 레즈비언들이 이성애자 여성들 보다 매력적이라고 느껴. 그런걸 보면 확실히 뭔가 다른 다른가봐(웃음).

+ 니가 페르미언으로 정세화한 후 남자를 사랑한적 없니?

Lego: 음 없어; 결코 없어; never 없어. 사랑하고 뭐고 끌린 적도 없어. 정세화하기전에는 이성애중심적 사회때문에 남자랑도 한도번 사귀어봤지만 뭐 끌려서 사귀었다기보단 그냥 어릴 적에 이성애 친구이상의 객관적 관계를 맺었던것 뿐이야.

Dykeblue: 음..결코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난 양동근의 열혈 팬.....-_-; 우우. 정세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것 같아요. 레고처럼 저도 정세화 전에 남자와 교제한 적이 있지만 너무 그저 친구 같기만 했었죠. 결론은 없다입니다.

KAZE: 사실 남자랑 교제 해 본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남자를 좋아해 본적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호감이라는게 장기적이지 못하고, 그 이상의 발전적인 관계를 생각하기 어려워요.

L: 사랑이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비로소 끝나고 나서야 정말 사랑이였는지 그저 호감이 발전된 열정일 뿐이였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끝난 후 생각이 들었죠.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어쨌든 좋아서 교제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성과의 교제에서는 느낀만큼 거부감때가 있어요. 여성과는 그렇지 않은데.. 어린 시절의 안쪽은 기억으로 남성기피증이 심했던 터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 더더욱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지도.

달: 없다. 이성애자인 나의 친구들은 신기해하지만..이성애자들이여 당신은 정말로 이성

애자라고 경제화한 후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는가? 단 한 가지 나의 의문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명의 남자도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절대 그렇지 라고는 대답 못한다. 왜냐면 아직 내가 살아야 할 생은 많이 남았으니까, 레즈비언 혹은 게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그대들도 화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다.

Sea: 바이섹슈얼에서 나를 레즈비언으로 경제화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어. 지나가던 남자로서의 이상형을 보고서 그냥 아 멋있다, 하는 호감을 가질 뿐이지 그 이상은 없었어.

후후: 없다, 사랑이라고 할 만큼 깊은 감정은 없었던 듯. 근데 경제화하고 나서 사랑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하하;;

LK: 연예인들 몇 명 호감이 다 싫은 사람들빠른... 솔직히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남성을 사랑해보려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설사 하게 되더라도 성관계는 거부할 것 같은. (이건 사랑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black: 경제화 이전엔 주위에서 흔히 그러듯 남자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역시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심증내는 재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경제화 이후에는 매력은 느끼지만 그것이 매력일 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더군요.

루나: 사랑해 본 적은 있지만, 쉽게 질리게 되더라구요. 어근나는 부분이 자꾸 눈에 거슬렸달까.. 아무래도 여자에게 끌리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여자로서 말이 통하는 것에 대한 매력도 좀 더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남자랑 만나다 보면 자꾸 애를 끼우는 느낌이 들어서;

피키피키피: 사랑한 적은 없어. 매력적인 남자가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별거 없었어. 그리고 재미없었고. 그치만 여전히 좋은 내성이라고 생각해. 뭐 그런거지--

+ 레즈비언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Dykeblue: 가족들. 앞으로 내가 꾸러갈 가족 말고 그동안 돌봐주는 맘으로 지금까지 날 도와주고 지켜준 가족. 특히- 앞으로 끊임없이, 수도 없이 부딪히게 될 것 같은 엄마 (우리 엄마는 정말 극보수이기때문에... 정말 내가 제대로 맘 놓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듯)

아아.. 정말 많은데. 가장이라고 했으니... 하나만 해야겠지-- 미안해. 엄마

Lego: 현재의 가족과 앞으로의 가족. 그리고 이 이성애 중심적인 대한민국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나.

L: 가족, 친구들, 그리고 주변인들이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라기보단 근심. 이해받지 못할 거라면 잘 두겨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텐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이일로 날 떠나간다면 너무 큰 절망에 휩싸이게 될 것만 같아)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후후: 부모님, 친척들이 결혼안하냐고 나쁜만 아니라 부모님한테까지 뭐라하시겠지 TT TT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야. 그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본적도 있어 하하하;

달: 훗날 내가 나이 들었을 때가 걱정된다. 레즈비언으로서 안락한 가정을 갖고 싶은 나의 마음..

Sea: 난 지금 나의 연인과 죽을 때까지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아빠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혹은 둘이 살 수 있을만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돼. 그리고 항상 누군가에게 거지알을 하며 평생 살아야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보다는 조금 속상하지. 아, 그리고 난 내 애인 닮은 애기도 낳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안되나.. 하는 생각들..-- 마지막으로 걱정 되는건, 나의 가족. 혹시나 눈치 채지 않을까.. 난 부모님께 평생 귀머귀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들이 걱정되고 계속해서 그렇지. 그리고 평생 외지는 기본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살겠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살기힘든 인생이야 --

LK: 나이먹어서.....그리고 가족들. 하지만 가족 분들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용인해 주실거고, 나이 먹어서 콧매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게 이성애자들만큼 쉽지 않다는거정도...? 음, 사실 가장 걱정되는건 가족들의 인정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아 내가 외톨냐고요.....?

black: 평생 거지알과 진실을 오락가락하며 살아야할 내 자신. 보수적이어서 이해 여부에 앞서 내 존재에 의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오히려 나에게 주는 부담감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지켜봐주어야 하는 것..

루나: 가족들이조- 역시, 솔직히 아기도 낳고 싶고...

피키피키피: 가족들...내가 레즈비언이라는데 분명 미안해 해야 할 일은 아닌거 알아. 그래도 다른 집 딸들처럼,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라시는 능력좋은 남자 만나 아들만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 남들한테는 시집도 못한 딸들로 비쳐질테고, 그것때문에 속상해 하실테고, 만약 내가 귀찮을 한다고 할 지라도 부모님은 당신 자신들 탄을 하실 테지. (사실 그렇게 아닌데도 말이지) 자식 잘못(잘못 자라지 않았는데..)키운 당신들 탄이라고 생각하여 암으실 테니까..그래서 이상이면 평생 둥기고 싶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시켜드릴 수도 없는 것도 슬프고.. 친구들에게도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지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귀찮을 때, 혹은 아플때를 당했을 때 나를 거부할까 두렵고..주위의 시선들도 사실 많이 부담되고 그래. 과연 내가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로 레즈비언 정체성을 고수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면 혹여나 남들처럼 대중 선택해서 결혼해버릴까, 생각도 하고는 해..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KAZE: 아주 처음, 정체화를 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엔 내 자신에게 제일 미안했어요. 왜 그러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렸을 때였고, 이게 좋은가도 싶었고,그 당시엔 많이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던거 같은데 막상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지금은,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해요. 몸이 좋지 않은 남동생대신 장녀인 내게 남동생의 몫까지 네가 다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그만큼 기대도 많이 하시고, 내가 귀가해서 점점 의지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겠다고 돈 물장고 나타난다면, 내게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모두 실망과 절망으로 변해버릴까해서,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진 않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제일 크네요.

스타: 사람들의 편견

휘리: 뭐니뭐니해도 가족들. 가족들만 빼면 단지 레즈비언이라서 덜으려 해야 하는 거 같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나에게). 사실 엄마아빠가 내가 레즈비언인 걸 거의 알고 있는데, 나에게 편 번이고 "적당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좋은 거다" 라고 말을 흘리시니까. 어릴 적엔 마냥 자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조금 더 나이 들고 나니까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파

+ 레즈비언이어서 행복한 점은?

Dykeblue: 우우 변날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Lego: 많지.. 일단 부모님 있을 때도 친구를 빙자하여 애인과 둘이 집에 있을 수 있고. 여행을 갈 때도 편 쉽고. 애인과 체격이나 스타일이 비슷하다면 옷도 같이 입을 수 있

겠고. 서로 같은 여자니까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많고. 아. 내가 너무 연예중심적으로 말했나;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소수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어. 변날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아.. 많다 많아..

L: 사랑하는 사람과 화장실도 같이 갈 수 있고 목욕탕도 같이 갈 수 있고(웃음) 말하고 자 하는 바는 남/여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다는 것. 더욱 제약이 없다는 것. 위에 레즈가 말한듯이 부모님이 있을 때도 애인을 집에 쉽게 둘 수 있고 여행 하러도 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강점! 음 사실 레즈비언이어서 행복한 걸 따르긴 쉽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거지.

혹화: 나도 변날을 만나게 행복해. 만약 연예중심일 때 변날 밖에 나가면 남자친구 없는 나는 솔로인척을 해야함_거짓된 연기를 해야하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싫어, 하지만 변날안에선 가면을 벗을 수 있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말할곳은 변날뿐이고, 정말 좋다 호호.

달: 동성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많다는 것?

나는 그냥 사랑을 해서 행복하다.

Sea: 1. 변날 사람들을 만났다.

2. 현재, 너무나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다.

3.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4. 일정부분 세상에 반항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_-

LK: 많은 것들이 있지만 추가하자면 같은 동성끼리도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성끼리 애인관계일 때도 그 이전 혹은 이후에 세상에 또 없는 안정적인 관계, 친구나 애인으로 포용할 수 있는...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걱정해주고 하지만 구속하지는 않는...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건 굉장히 부가적인 요소이지만 언급이 안 되었잖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일때도 많은 곳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이 못 난사람이 변날 사람들 만난 것도 정말 감사한 일.

black: 역시 함께일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좀 더 깊은 이해가 쉽다는 점이 있네요.

루나: 연인이라는 관계에서 조금 더 깊은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중에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애자콜 사랑하고 애자콜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대화할 하면서 조금씩은 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귀찮기 위해서이 될 때가 많아요.

피키피키키: '레즈비언이어서' 행복한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레즈비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들을 맺게 되었다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것들, 그런 것들에 행복해.

스파: 이런 문을 조차 필요 없지. 사랑하는 데 안 행복한 사람이 있나?

최리: 나 역시도 일단 변할 사람들과 만난 것? 더불어서 경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화성남자, 금성여자 이런 식의 유익한 맥락이 아니야. 오히려지는 말ாய면, 내가 이제껏 경험해온 참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진 시각들, 생각들, 그들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으로서 내가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당연히 같은 사회에서 같은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하고 쉽게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얘기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소소한 대화에서조차 내가 왜 그런 기분인지, 이 말이 어떤 맥락인지,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피곤하게.

그리고 누군가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 페즈비언은 못생겼니?

LK: 그럼 이생애자는 다 잘생겼나요? 글썄요. 제 얼굴이나 주위 L분들은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L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 잘 생겼단. 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꽤만한 사람들만큼은 생겼어요. 술집하는 사자아녀사자로 제 얼굴이 마음에 들 때도.

Dykeblue: 비록 나는 못생겼지만 레즈비언 중에 이쁜 사람 많고 또 이쁜 사람중에도 레즈비언이 은근히 많은 것도 같고 말이죠.. 다 비웃하거 아니겠어 이성애자나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뭐나. 잘생긴 사람 소수 있고, 조금 단단, 못나아들 다들 그런거 아닌가요. 이쁜걸 떠나서 현실이 근데 레즈비언중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레즈비언이어서 그런가? - -;

Lego: 똑같아 똑같아! 이성애자중에서도 온정인사람있고. 예쁜사람 있든것처럼. 레조비
전도 온정인사람있고. 예쁜사람있고. 우리가 뭐 괴물이지? 이성애자들아. 거울을 보려.

L: ㅋㅋ 누가그래 ㅋㅋㅋ 이게 솔직 보편적인 편견중에 하나인가?? ㅋㅋ 아니요 아
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레즈비언중에 이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
은데, (경말로). 물론 못생긴 사람들도 있고, 중간인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 미국사람 중에도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한국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듯이, 그렇게 다양하고,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전혀 다를
게 없이 같은 이치. 마찬가지로이다.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그저 다 똑같다. 그리고 솔직히
잘생기고 못생기고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내 눈에 이준기가 예쁜데 이준기가
못생기고 반만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허랍- -

달: 이번 건너들이 나를 웃게한다구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a: 지금 나랑 장난해?!?! ..레즈비언들은 뭐 해도 돼. 그리고 레즈비언들은 실제로
10모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단다. 변날 물도 얼마나 좋은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LK: 아 지와 아지우거거한 언디맨 L로만 모든 불아서 보아라고 한다.
 그런 새끼들이 바리새교 박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 중에는 유대교도도 있고

black: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잘생기고 못생김의 비율은.. 레즈비언 중에도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을 참 많죠. ㅎㅎㅎㅎㅎㅎ

[illegible]

피키피키피: 아.. 정말 이것 대답할 가치를 못느껴.(웃음) 근데 사실 레조비언들이 더 이쁜 것 같아(소곤소곤)

KAZE: "못생겼다"라는 말의 기준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것은 너무나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잡아서 레즈비언 모두가 못생겼다고 치부하는 건 잘못일듯. 그리고 같은 여자이거든요. 이성애자 여성들이 모두 다르게 생길 것처럼 레즈비언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주세요. 외모 때문에 레즈비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스타: 뭘 하고 있네. 겨울이나 보내지?

회관: 먼저 누가 말했듯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야.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 미치지.

(아, 근데 왜 L-bar에는 세련된 사람이 넘치는 거대크)

+ 넌 기독교인인데 왜 레즈비언이니? (각자의 종교에 대입시키기)

Dykeblue: 난 불교인데 음... 불교인데 왜 레즈비언이냐구요? 가끔 절도 다니고 스님 말씀도 듣지만 불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별로 볼것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관련 글들을 몇번 읽어봤지만 그것도 너무 들쭉날쭉이어서 무슨 말이 맞는 건지 함.. 불교는 원래 모든 욕망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성애든 동성애든 '애'는 희락되지 않겠조 하나 불교에선 스님이 아닌 이상 보통 신도에게 동성애를 권유하기도 금하기도 엄격하게 해서 아직 내가 레즈비언인것과 나의 종교를 깊게 연결시켜 생각해 볼것은 없는것 같아요. 우쭌 뭐래..

Lego: 솔직히 난 내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 천주교 세례를 받아서 천주교일수도 있고 지금은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일 수도 있고. (종교에 대한 나 자신의 질문은 아직도 답이 없어.) 저번 문화제 자로집에 기독교와 동성애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정말 솔직히 난 그 글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난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나왔고 지금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있고. 그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 것 같아. 뭐... 말이 좀 뻔대로 쓴 것 같은데.. 그냥 종교와 동성애에 관한 나의 생각은 아직도 끝나지않았고 아직도 고민중이며 갇혀 머리아픈 존재야.

L: 저도 불교인데요, 맨 위에 dykeblue씨가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동감입니다. 결론까지요.

달: 종교는 선택이지만, 레즈비언은 선택이 아니다.

Sea: 난 무교예요.

LK: 기독교의 아니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배척하는 모습은 그 이후 사람들이 만들어 낸것인데... 사실 그런 후대가 만든 규칙들이 기독교의 이미지나 본질만 깎아 내리는것 같아요. 나도 절실한 기독교 이었지만 L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 실망하고 무교가 되었조.

black, 록나: 저도 무교입니다-

+ 레즈비언인 크리스찬이 있어?

서희: 글썽, 크리스찬이다가 레즈비언이어서 잘 모르겠다. 그냥 크리스찬인건 내가 태어날때부터 그리 되있었던거고 레즈비언은 신앙이란게 상관없이 있었어; 그냥 신앙을 재껴 두고 그냥 그런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지.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 나 솔직히 신앙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신앙이 크려면 기도를 해야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기도하기 앞서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거야. 애인도 크리스찬이 아니고..그랬는데 최근에 알게 된 한 애가 되게 신실하다? 그 애한테 조금 끌려서, 끌린 이유가 바로, 신앙때문이었어.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나같이 태어날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 무시해버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파도너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로한테 더 힘이 되고, 신앙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 ㅋㅋ 그랬어 그냥 ~이반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싶어 그게 공존할 수 있는걸 끊임없이 갈구하는거야..

달: 크리스찬이라고 레즈비언이 아니라는 뱀 없고, 레즈비언이라고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뱀 없다. 성당의 신부님 중에도 게이가 있고, 교회의 목사님에도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다.

LK: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서도 ...L이 뭐 특이한 존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black: 잊기로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교와 성 정체성은 일치시켜서 생각할 문제라기엔 모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록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종교와 성 정체성은 일치시켜서 생각할 문제라기엔 모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22222222

+ 왜 면담에 왔니?

Dykeblue: 스타 존장과 롤러라라 뭐도 모르고 들어오게 된 변날. 하늘색 페인트 위에 검은색의 자극적이었던(당시엔.. 지금은 아무느낌 받지못함크크) 그림.. 실로 충격이었어요. 음 아무튼 결국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별생각 없이, 두견히 동기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 인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 이상의 애착도 많이 쌓아가고 있지만요

Lego: 1학년 여름 방학 때 애인이랑 헤어지고 한참 만파고 인술적에 개강이 다가오는데 이대로 살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마디로 미칠 곳이 필요했던거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미친 듯이 허비할 수 있는 곳이 말이지. 그리고 예전 애인과 헤어진 이유중 하나가 경제성과 이 이성애중심적인 사회 간의 갈등이었어. 그래서 난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이 두 가지가 내가 변날에 있게 된 이유야.

KAZE: 사실 입학 전부터 이 변날이라는 단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대에 오게 되면 꼭 이 단체에 참가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구요. 처음엔 호기심에 찾아왔어요. 성인 이반들은 어떻게라는 생각에, 그 전까지 제 동료의 레즈비언만 만나왔었거든요.

두려움만 호기심 반으로 찾아온 변날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인이 된 지금, L로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뭔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으로서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날 활동을 시작한 거죠.

L: 이것 저것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dykeblue씨의 그 그림 충격이었다는 말에 크게 동감합니다. ㅋㅋㅋ 처음 레고 따라 변날밖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시각을 자극하는 아하고 충격적인 그림들. 으하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ㅋ

말: 애인따라 놀러왔다가 객원아닌 객원, 변날인이 아닌 변날인이 되었는데..

그저 좋다 ㅋ 아 근데 이거 변날인만 쓰는 거? 썬리 ~

혹하: 에이 썬리는 무슨 변날인이잖아요 !!! 음 저는 레즈비언으로서 좋은 점...이란 같은 이유 뭐 나랑 같은 사람 만나는거 예다 L운동적 마인드는 들어오고 나서 생겼던거 같애 _T

Sea: KAZE의 소개로 덜덜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오게 됐죠. 일단은, 외로웠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변날이란 단체가 궁금했고, 함께 일해보고 싶었고. 혹하언니처럼 나도 사회운동적인 마인드 형가.

LK: 입학했을 땐 솔직히 오랫동안 L이면서 L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모르던 상태이여가지고 조금은 낯날이 혼란하고 인생에 입어 거북스러운 사람들의 눈빛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둑의 걱정과 혼란을 안고 있었던 때였어요. 처음 대자보를 볼 때만 해도 변날에 들어갔다가 알려질까봐 남몰래 힐끔힐끔 아 변날이라는 곳도 있구나 라고 보기만 했지만, (사실 왜 하필 이름이 베타소년 하늘을 날다야? 라고 생각도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이름이더군요 ^^) 거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더 혼란이 가중되면서

변날에 이메일을 날렸어요. 처음 딱 갔을때 체계적인 분위기와 뭔가 세세한 것부터 이성애자 중심이 아닌 동성애자가 느끼는 부분을 정당하게 찾아왔고 또 쓸데없이 증폭될 필요가 없는 군터더기를 제 스스로 버리고 더 제 인생에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처음 딱 들어오면 베타 그라진 그림들이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군요. L운동에 대해선 (적응하게도) 잘 모르고 들어왔지만 제가 L로 살아가면서 딱히 사람들에게 난 L인 사랑인대로? 라고 굳이 조심스럽게 나는 다른 사람인 마냥 행동하지 않아도 될 삼을 위해 당연히 바뀌어야 할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black: 나와 같은 L들과 함께 공식적이지만 포비아의 시선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재껴두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모임, 그리고 사람들을 찾고 싶었어요.

록나: 레즈비언도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 변날은 어떤 곳이야?

Lego: 이화여대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베타소년하늘을 날다. (인권운동모임을 강조) 우리 레즈비언이고,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변날에 이화여대 모든 레즈비언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그렇지 아니야. 베타들의 모임도 아니고, 머리에 양갓도 안쓴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이화여대를 호리는 사람들의 모임 또한 아니란다. 우리는, 레즈비언이고,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해.

Dykeblue: 말 그대로- 베타소년들이 하늘을 나는 곳. 비록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한뼘 떨어진 반에서는 우리에게 동한 손가락질과 추궁거리가 있을지라도 이 곳 안에서만은 우리 자유로워- 크게 울을 수도 있고 문밖에 있는 너희들에게 고향을 칠 수도 있지!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서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해. 우리는 이화여대 속의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레즈비언들이라구!

Sea: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 모임이지. 변날을 소개하는 대표적 문구이자 실체라고 생각해. 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나 많지, 알로는 표현할 수 없어. 변날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난 정말 자유로워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나를 온전히 표현해 낼 수 있는 곳이야. 가족같은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그나마 10분의 1을 표현한듯해.

LK: 현재 우리 사회는 L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보면 종종 올바른 것으로 찾아 바뀌곤 해요. 그리고 꼭 바뀌어야 하구요. 개인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세상의 실수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구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엔 지금 생각하면 이미 인식이 많이 변해서 어처구니없는, 애자도 반의 유전정보를 지닌다 라는 게 지금에야 당연하지 예전엔 전혀 못 믿을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나서도 사람들 인식에는 애자가 씨받이 일뿐이라는 인식이 만연했구요. (알리만 올바르게 생각과 연결되지 않았죠. 애자는 애남는 기계마냥 남자의 정액이 "고대로"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많이들 느꼈었죠. 애성과 남성의 유전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애들이 대를 잇는것을 당연하게 여겼을테구요) 또한 애들을 낳지 못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의 정자에 의해서 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 남에 모두가 참여할 부분인데, 무조건 애성의 잘못이라고 인식되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서서히 바른 잡히고 있구요. (알지만 바로 잡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속에서 일각 집단이 피해를 입다가 잘못된 패러다임들이 문제제기에 의해 제자리를 찾고 또 이 인식이 곧고로 퍼져 경 상적인 개념이 잡히는 것처럼 L에 대한 시선도 제자리를 찾아 바뀔 것이고 또 이 인식이 곧고로 퍼져도록 일조하는 단체중에 변날이 있어요 :)

black: 다들 너무나 잘 써주셔서 뭐라 써야할 지 모를 정도입니다. 좀더 말하면 변날인 들이 당당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넓게 말해보면 모든 L들이 이윤 없는 불편함을 당하지 않고 당당히 제각각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들이 구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기 편한 세상이었으면, 그만큼 편견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나: 아구 구구절절 쓰고 싶지만, 간단히 삶의 답변과도 연결해서 말해 보자면- 레즈 비언들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세상에 외치고 편견 없는 곳에서 두 척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변날이라는 공간에 모인 우리들인 것 같아요-스-

KAZE: 자유로운 곳이에요.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이라는 거창하고 따분한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는 있지만, 이런 변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단체로 인해 자 유로운 것 있다고 봐요. 사실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한 곳이었죠.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로 인해 나와 같은 사람이, 나를 이 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원래 바랬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얻 고 하는거 같네요.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하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거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요.

화린: 다들 건지하구나. - 이 언니는(웃는 소리로) 이제 변날이 어떤 곳이란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다. 몇년동안 하도 인터뷰를 해댔더니, 변날 구성원들은 나의 또 다른 가족. 내가 생각하는 변날은 그런 곳.(카)

나는 레즈비언이자, 나는 레즈비언이야!

-김혜원에서 저빙이웃까지

by LEGO

별거 없었어요. 이성애자가 이성에게 느끼는 느낌을 저는 동성에게 느낀 거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터 레즈비언 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pc통신을 할 때 대화방 에서 이웃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기로한 날, 그 애를 보는 순간 정 말 제가 딱 굳어버렸고,(아; 저 원래 매우 활발한 성격이에요) 편지 같은 것 절대 쓰지 않고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하루가 멀다하게 편지 써서 보내고, 혹시라도 그 아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하고 그 아이네 집 아래에 괜히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때 의 제 표현으로는 '이성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아이에게 말이지요. 그 친구에게 "네 가 이성 이상으로 느껴져."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백이었 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표현은 지극히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이성애중심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성'이상의 감정 이라고 했던 것이겠죠.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성애 중심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동성 애자 라는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남자와 사귀적도 있었어요. 남자인 어떤 애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세 상 이 이성애 중심적 사회니까 그냥 그렇게 어쩌다보니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고 그 후 지금에도 남자를 만나거나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한건 고등학교 때 예요. 내가 레즈비언인걸 내 자신이 인정하는 거죠. 누가 "너의 성정체성은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 게 된 거죠. 제가 레즈비언이란걸 알고서도 저는 뭐 그렇다할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느 낄 수 없었어요(포비아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나 미디어가 많았지만요...). 지극히 그건 내 감정이고.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니까요.

같아요. 보고싶고, 같이있고싶고, 때론 첫눈에 반할수도있고, 뭔가 찌릿한 느낌이올수도

by black

나의 커밍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새삼 나는 내 스스로 정체화를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인 채로 첫 커밍을 했다는 것이 기억난다. 그 때는 고 2였고, 나는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레즈비언이라든가, 바이섹슈얼이라든가, 쉽게 말해 이성애 중심의 성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던지라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어렵듯이 기억나는 것인데, 같은 반이었던 친구녀석이 이전에 레즈비언 사이트들을 가입했다느니,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어딜 놀러다녔다느니 하는 말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레즈비언이 아닐까?라고 고민해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심각하게 어리숙했던 것 같다.

고 1 때는 여자아이에게 자꾸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화제를 만들어 이야기 하지 않았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내 마음을, 대상이 여자건 남자건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과 사귀다는 것 자체가 왠지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겼었다. 지극히 단순하게 동네나 학원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귀엽기까지 하다. 여튼, 나는 당시 친했던 친구가 두명 있었다.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 과정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항상 셋이서 붙어다니고, 그 두명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왠지 두 친구가 묘한 분위기로 더욱 친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두 친구는 대답하게도 같은 방에서 셋이 함께 낮잠을 잘 때 내가 잠들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한채로 스킨십을 하곤 했다. 나는 내가 또 신기한 것이 왜 그게 그렇게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다.

두 친구 중 관계를 주도하고 있던 녀석은 당연히 친해진 이후로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심찮은 고민 상담도 나누었다. 우연히도 정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취향을 가진 친구에게 커밍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녀석이었다.(순진하게도 아웃팅의 위험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는 내 속내를 그대로 말해주었다.)

이후 함께 지내다보면서 그 녀석은 나의 순진함, 믿음, 물질모름에 대해서 친구로 함께 지내기엔 파분함을 느꼈던 것 같다.

편한 이야기지만 당연히 그 녀석의 친구들은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 내가 친구와(우연히도 이 친구도 레즈비언이다. 나는 정체화만 하지 않았을 뿐 소리없이 게이다를 작동하고 살았나보다. 하하) 가벼운 스킨십으로 보일만한 장난(다른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당시에 잠시동안 만나고 헤어진 사람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든가, 좋아하는 녀석의 반에 다른 핑계로 놀러가본다든가 하는 행동들을 바탕으로 주위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많이도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 같다.

아아, 난 그 이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싸우거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한다던가하는 고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엔 대수롭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들 뿐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평가까지 되어야한다니 억울하기 그지 없었다. 자세한 에피소드들까지 이야기하기엔 이 첫 커밍아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길게 쓴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다. 첫 커밍아웃으로 다행이나마 얻은 것이 있다면 내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포비아는 의외로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를 계기로 당시 친했던 친구들 몇명에게는 내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었지만, 결국엔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없다. 내 스스로가 그 시기에는 친구들의 나에 대한 인식까지 하나하나 신경 쓸 정신적 여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대로 서먹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두번 째는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커밍아웃은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이다. 고 3때 나를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래 한번 사귀어보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이 사귀는 남자친구 나도 한번 사귀어 보는거다!라고 생각했었다. 그 관계가 잘 지속되었을까? 글썄, 처음엔 아 나도 남자친구를 사귀는 구나라는 정도의 생각 외엔, 그 오빠에겐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 뒤로도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들과 몇번 사귀었다. 결국은 어느정도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나는 벗어나곤 했다. 나를 좋아한다고 관심을 표현할 때 나는 예전에 좋아했던 그 누군가들이, 남자들과 있을 때와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때의 내 마음들이 떠올라 난감하곤 했다. 결국은 다들 헤어졌고,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연락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 대학 3학년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그 오빠와 대화하면서 요즘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묻는 말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한동안 만나다가 헤어진 상태라고 돌려서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 경험에 비추어봐서는 그 사람이 믿을만한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하겠지만, 웬지 그 상황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대답은 의외였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대답과 함께, 나와 사귀던 기간 동안에도 나는 같은 학교를 다니던 몇 친구들에 대한 애정을 자주 비추었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는 것이다. 남자에게 마음이 가질 않는다는 것을 고단수로 주입시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뭐랄까 커밍아웃치고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그 때의 내 기분은 아주 흥분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는지, 속으로는 포비아를 띄고 있었는지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커밍아웃 자체가 앞으로의 삶에서 엄청난 과제로 남겨져 있는 나에게는 그 경험이 앞으로 있게 될 다른 커밍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커밍아웃이 힘들어야 하고, 무서운 포비아들이 산재해있음을 느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걱정들이었으면 하는 게 진짜 바람이다. 커밍아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애초부터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커밍아웃 이야기

by Sea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에서 활동중인 Sea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셈이 된 건가? 나의 자율적인 의지로 선택하여,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벽장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밖으로 나오게 된 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정확한 ‘커밍아웃’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또 그리고 사실 잘 알고 싶지도 않다. 귀찮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건 나의 기준에서의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의 첫 커밍아웃 상대는 대학에 와서 만난 가장 친하고, 또 나에게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친구다. 1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위기 끝내주는 스파게티전문점에서 맛있는 저녁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얘기를 꺼냈다. 그녀에게 나는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나 아무래도 바이섹슈얼인것 같아” 였나?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쓰려면 그때의 상황을 모두 설명해야해서 pass.

그 당시 내가 좋아하고 있던 사람은 나의 친구이자 대학동기이며 물론 여자였다. 사실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여대의 특성상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글쎄, 사실 생각해 보면 만날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내가 만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친구가 좀 와일드하고 내가 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돌아버린거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다. 근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 내 여자로서의 첫 사랑은 고등학교 때였다. 결국은 .. 대학에 와서 좋아한 그 친구가 내겐 여자로서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거고,

‘나 여자도 좋아하나?’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지.

어쨌든간 그렇게 첫 커밍아웃을 하고 난 뒤 반응은 어땠냐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어. 그 친구의 성격이 그렇기도 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 만들어낸 분위기 탓이었기도 했고 .. 어른 난 그 친구에게 아무에게도 말 할 수 없었던 고민들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난 한 발자국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

변날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게 1학년 2학기때였나 .. 아무튼 그때만 해도 나는 "나의 정체성은 바이섹슈얼이야"라고 말하고 다녔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자들을 꽤 많이 사귀었고 대학에 와서도 미팅이나 소개팅도 해봤고 ..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신있게(?) "나는 레즈비언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것이 딱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체성은 어쨌든 유동적이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목숨바쳐 사랑하고 있는 내 애인은 여자고, 난 변날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런 삶이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커밍아웃 상대는 나의 best friend, 고등학교1학년때부터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내 친구에게였다. 나는 그 당시 사귀던 사람이 있었고 물론 여자였으며 학교선배였다. 나의 bf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여자야"라는 나의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냐고 장난치지말라면서 몇 번을 되물고 나서는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아 그렇구나 .. 하는 식의 대답. 그리고 그 애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니가 지금 처해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여대니까 여자애들만 있고, 너 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자애들 많이 사귀고 막 좋아하고 그랬잖아~ 너 대학졸업하면 괜찮아질걸? 어쨌든, 힘들겠다야. 그리고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말하자면 매우매우매우 그 아이의 반응과 말들은 충격적이고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 (사실 환경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부정하고 싶다 -_-) 그리고 대체 대학졸업하면 뭐가 괜찮아진다는 거야.. 내가 아프냐, 내가 들었냐, 내가 미친거같이 보이냐, 내가 지금은 비정상적이고 졸업하고 또 다시 사회에 나가서 환경이 변하면 정상으로 돌아갈거야.. 라는 식의 말인가.' 별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두 번째 커밍아웃은 그렇게 찻찻한 기분을 남겼다.

세 번째 커밍아웃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대학친구들이 있는데 (첫 커밍아웃 상대였던 나의 친구도 포함), 그 아이들에게는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싶고 .. 내가 변날 활동을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 그래서 그 시험기간에 아이들을 붙잡고 한명 한명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반응은 어땠냐구? 그녀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반응들이었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준 나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내게 굉장한 축복이다.

그 뒤에도 몇 번의 커밍아웃이 더 있었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겠다. 세세한 것들 까지 다 쓰려니 골치가 아프려고 한다. 결론을 약간 내보자면, 나의 커밍아웃에 대한 반응들은 꽤 좋은 편이었고 .. 날 더 이상 안 보려하거나, 나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한 사람들은 일절 없었기 때문에 말이다. 하나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커밍아웃을 할 때의 나의 심정이다. 어떡냐고? 손이 덜덜 떨리지. 머리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리라고 다짐하는데 심장은 미친듯이 두근대고 목소리도 떨려서 나오고 .. 난 이런 나를 느낄 때마다 가끔은 내가 혐오스럽다. 나 죄짓고 다니는 건가? 하긴, 지금 우리 사회에선 죄나 다름없지. 우릴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 천지니까. 혹시 알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날 쓰레기처럼 바라볼지?

어쨌든 나의 커밍아웃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오늘 이 글을 쓰는 이 순간까지의 시간에서 내 마지막 커밍아웃은 지금 내 애인에게구나. 떨렸지만 뭔가 설레는 기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 그리고 그녀였기 때문에, 내가 변날활동을 한다고 말을 하고나서도 커밍아웃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 그냥 나를 고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녀에게 고백하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두근거린다. 께악. 그럼 다음 이야기는 나의 연애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_- !! 호호호호호호호.

- 마지막으로....

Sea의 커밍아웃은 계속된다. 이 말이 꼭 하고 싶었다 -_-

너의 커밍 이야기

by dsl11111111

철 없을 적 한 시기에 나의 모든 친구들에게 커밍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겁대 가리를 상실한 것 같다. 그 때가 고1~고2였는데 나의 커밍에 특별함은 없었다. '나 사귀는 사람있다'로 시작해서 끝맺음은 '여자야'로 해버리면 나의 Good Friends는 '얼마나 됐어?'로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았어'로 자연스럽게 끝을 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 매일매일을 그 녀석들과 함께했다. 학교에 등교하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중에 한 녀석이 평상시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친구가 있었다. HOT에게 미쳐 그 시절 유행하던 팬픽이라는 팬픽소설은 다 읽던 녀석은 동성애는 HOT에게만 용납되었으나보다. 중요한 것은 HOT는 잘생겼다는 것 뿐이었다.(-_-;) 고1이 되어 서로 뽀뽀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는 그 녀석만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커밍을 했다. 그리고 그 녀석에게는 1년이 더 지난 후에야 커밍을 하게 됐다.

그 녀석에게 커밍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아닌 다른 친구가 그 녀석에게 나 대신(?) 커밍을 해 준 것이다. 옆에서 같이 걷고 있던 나는 왠지모를 긴장감에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버럭 화내는 그 녀석을 보고는 찡찡했다. 그 녀석의 첫 마디는 "야! 너 xx실망이다"

그리고 뒤를 잇는 한 마디, "나만 속 빼놓고 얘기했던거야?!"

우리는 그 날 오랜만에 두꺼비 소주를 안할수가 없었다(-_-;;)

지금은 너와나 할 것 없이 만나면 서로의 연애상담도 하고, 나는 내 여자친구를, 그 녀석들은 남자친구를 자랑하기도 한다.

커밍 후, 나는 더 당당해 졌고, 그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친구는 하나도 없으며, 그 친구들이 내가 아닌 다른 레즈비언을 봐도 이제 이상하게 보는 일도 없다.

친구들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동성애자는 다 괴물같고, 우리랑 다르게 생긴 줄 알았었어. 그런데 내 친구가 레즈비언이라니... 별거아니네? ㅋㅋ'

이 죽인 놈의 연애

by dykeblue

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보다 힘든것이 바로 이 죽일놈의 연애이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뒤돌아서서 '아. 쟤장 다신 연애파원 하지 않겠다'라고 피눈물 흘려가며 이빨 꼭꼭물고 다짐하고 다시 앞을보면 '다짐따위야 뭐..후후. 여아일언경천진(女兒一言輕千塵)인걸 :) 그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하는거야.' 하고 생각해 버리게 만드는 연애-_-

쟤장.

나의 제대로 된(기준은 내 맘대로)연애는 총 3번이었다. 한번은 이성과의 연애였고 나머지 두번은 음. 아릿따운 그녀들과의 연애였다. 이걸 변날 자료집이고, 레즈비언의 연애를 쓰겠으므로 그녀와의 연애만 적도록 하겠다.

첫 번째 연애는 고등학교 때.

참 뭇모르고 까불었던 시절 학교에서 같은 동아리 내의 그녀를 좋아하게 되어버렸다. 뭔가 외모는 귀엽장한데 하는것은 어쩔그렇게 싸가지없고 도도한지. 그 매력에 홀랑하고 한번 마음을 빼앗긴 순수했던 18세 소녀는 겁나 심하게 그녀에게 빠져들어서 나이 스물한개 처먹고 철딱서니가 들어서 이걸 좀 아니다.. 라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때까지 그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는 극심한 팔불출이었다고 한다. 어리버리했지만 순수했고, 철없었지만 철든척했던 지금 떠올리면 가슴아프고 모든게 서툴러서 쑥쓰러웠던 첫 연애의 기억. 아아. 결국 그녀는 내가 반했던 싸가지를 끝까지 고집하며 잔인하게 내걸을 떠나주었다. 아냐, 내가 그녀의 아홉번째이자 마지막이 된 이별선고 앞에선 더이상의 불갑을 없이 흔쾌히 보내주었다고!(뺏)

그렇게 해서 아.. 쪼다같은 연애 인생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헤어진지 얼마 안지나 대학교 들어와서 또 내 눈을 확 사로잡은 그녀가 있었으니. (사실 아직 헤어진지 한달 남짓이어서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앞에 처음 사귀었던 것과는 달리 아직 불편한것이 사실이지만 뭐. 더이상은 돈케어하고 싶다 0_0 으흠.)

친구의 친구로 만나게 된 그녀. 참으로 고운 자태를 지니셨는데 덧붙여 성품또한 첫번째 그녀와는 정반대로 매우 온화하고 곱디고왔다. 음,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다고 해야하나. 뽕뽕 뽕 뽕 태어나서 그렇게 얼굴 작고 이쁜 여자는 처음 본 것 같다. 한없이 못난 나에겐 더없이 차고 넘치던 그녀. 이번 연애만큼은 정말 행복하구나. 3년간의 아팠던 기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걸 많이 느끼게 해줬던 고마운 그분. 나의 하루하루를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가득채워주셨던 그 분.

아. 근데 집에서 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안좋은 일들이 터지면서부터 시작인걸까. 아니면 정말 난 연애에 있어서 마조히스트(masochist) 인걸까. (결코 성적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_-;) 그렇게 좋아했던 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해버렸고 무책임한 태도로 난 그녀를 잘라내버렸다. 그것도 어쩌면 가장 행복해야만 할 100일날. (욕하라_-) 연애 초기에.. 상처가 많은 그녀에게 난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걸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난 그녀에게 상처주지 않겠다고 맘속 굳게 다짐했었는데. 안된다는 그녀 내가 억지로 사귀어달라고 조르다시피 해서 힘들게 사귀건데. 나의 첫 그녀에게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난 나의 두번째 그녀에게 전달해 준것만 같다. 그리고 연애초기에 했던 다짐과는 정 반대로 난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렸는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절대 아니었지만(앞에서 말했듯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중엔 그럴 수 밖에 없게되었고 그래서 그래야만 했다고 하면 구차하지만 변명이 될까. 누군가들은 나를 향해 질타를 한다. 그렇다, 난 엄청난 커다란 실수를 했고, 질타를 받을 만 하다. 그래서 한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있고 이것은 나에게도 꽤 오랜시간 동안 씻기힘든 기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난 정말 땃땃하게 말하련다.

내가 연애를 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고, 진지했다고. 이것마저도 어떤 누군가들에겐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후.

보셨다시피 나의 연애는 어긋남과 실수 투성이다. 탄것도 그렇긴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진짜 왕초다인 셈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 거의 극과 극의 연애만 두번을 했던 나. 잃은것도 많고, 배운것도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우리들은 왜 모두 끊임없이 연애에 갈증을 느끼며, 그러한 관계를 원하는건지.

오늘밤, 또다시 나의 지난 연애들과 앞으로 나의 연애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연애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을 하다 잠에 들것 같다. 물론 지금은 연애 감정같은게 몽땅 사라져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있다.정말, 정말.. 고맙다고. 미우나 고우나 여전히 당신들은 모두 내 맘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나의 연애이야기

by Sees

나의 커밍아웃이야기는 그래도 쓸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나의 연애이야기를 하자니, 쓸 말이 없다...가 아니라 사실 부끄러워서 잘 못쓰겠다. 뭐가 부끄러운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쑥스럽다. 그래도 길게 써야지, 이왕 쓰는 김에.

나의 첫 연애. 뭐 고백하거나 사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그때 그냥 친구로써도 이렇게나 좋아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에 생각하지 못했었다. 동성애에 대한 개념자체가 나에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흔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머리 짧고 힙합바지 입고 피어싱하고, 칼라렌즈끼고.. 이런 아이들 몇몇이 어울려 다니거나 가깝게 붙어 다니면 "야, 재네 레즈랙"라고 아이들이 하나 둘씩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해도 그랬었다. 그런 아이들을 비웃고 가십거리로 만들고.. (내가 미쳤었지. 참 어렸었지. 용서해주소서T_T)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그 같은 반 친구를 연애감정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난 그 같은 반 친구 (K라고 하자), K양을 참 많이도 좋아했었다. K의 심정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계는 다른 친구들이 보더라도 조금 다르게 느낄 만큼 친구라는 관계로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부족한 그런 사이였다. 하루에 문자 200통은 기본, (문자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결국 나중엔 킬로요금제 비슷한 걸로 바꿨었다) 메신저 항상 대기, 아침 등굣길엔 K가 우리집앞으로 데리러와서 학교를 같이 갔으며,

학교에 가서도 우리 둘의 시선은 언제나 서로에게 고정되어있었다. 그때 우리 반은 제비뽑기로 짝을 뽑았었는데 처음 우연히 (그때는 운명이라고 믿었었다) 짝이 된 날, 우리는 서로 너무 좋아서 수업도 하나도 안 듣고 계속 장난만 치고 허죽거리면서 웃기만 하고

급식당변이었던 그 애는 편식이 심한 내가 먹을 수 없는 반찬이 나오면 알아서 빼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자기 끼까지 덜어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지 유치해 보이는데 나에게 그때 그런 그 아이의 행동들은 무척이나 설레는 것들이었다. 어쨌든 이

렇게 잘 지내다가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인하여 .. 사소하다기보다는 나의 이 무시무시한 질투심 덕분에 우리 사이는 아주 안 좋게 끝이 났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K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만큼 다 잊었지만 .. 그 당시 K와 안 좋게 끝날 무렵 나는 거의 매일 울고 우울하게 지내고 학교도 가기 싫어했고, 슬픈 나날이었다. 여튼 지금 K 와 나는?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잘 지내고 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만나진 못했지만 ..

나의 두 번째 연애는 대학에 와서 었다. 아 일단 그전에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중간 중간에 연애 비슷한 것들은 했는데 그것들은 다 나의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나의 착각일 확률이 높으므로 굳이 연애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쓰지 않겠다.

두 번째 연애는 .. 커밍아웃이야기에서 말했었던 학교 선배와의 이야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의 넋네임을 보고 피식 웃고 있을, 그런 피식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한 .. 순수한 사람과 함께였었다. 사실, 언니와 내가 만나서 우리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온다면 알 수 있겠지만 별로 뭐가 없었다-_-..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여튼 간에 난 그 기간 동안 언니 덕분에 행복했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나를 많이 아껴줬고, 내가 힘들어 하면서 울었을 때 내가 우는 게 속상하다며 자기가 더 아프게 울었던 사람이었다. 너무나 잘 해줘서 사랑 받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었다. 난 일부러 못되게도 굴어보고 못나게 굴고,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 항상 미안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의 상처를 내가 감싸주겠다고 마음을 먹어놓고서,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준 것 같다. 헤어진 이후에 날 어색하게 대하는 언니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사실 지금도 좀 속상하다. 연락 한 통 없다니, 손가락이 부러졌나 .. 여튼 이게 내 두 번째 연애다.

세 번째 연애이자 마지막 연애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 .. 이 아니라 엄청난 소망이 담겨있는 Sea의 마지막이야기. 하하하하하하, 내 애인님께서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른다는.. 물론 읽겠지-_-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의식되서 자주 쑥스럽구나. 길게 못 쓰겠다, 호호호♡

흠 .. 난 원래 사랑을 할 때 첫눈에 잘 반하긴 하지만, 지금 내 애인만큼 첫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에게 직접 말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확실하게 잘 나진 않지만, 내 애인 J 씨는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아직 다 알진 못하지만 그녀의 성격, 행동, 분위기.. 모든 게 그렇다. 그래서 난 이 애를 만나오면서 애는 내 천생연분이고 내 운명이야 라고 제 멋대로 생각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_-...

우리가 사귀지는 아직 한 달도 안됐다. 만난 건 7개월이 다 되는데, 6개월 동안 우린 뭘 했을까요? 그 과정은 생략하겠다 .. 왜냐면 그걸 글로 다 쓰자면 10장은 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핵심만 말하자면 미친 듯이 사랑했다. 그 아일 만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

고,

그 아일 만나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아픈 시간이기도 했다.

지금은? 그냥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또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에 지치거나 애인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힘든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잠시 힘들 뿐이지, 이젠 그저 행복하다. 생각 만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평생 죽을 때 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하지만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나의 지금 연애는 닭살 돋을 정도로, 눈물 시릴 정도로 무지무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지 ♡

- 이상 Sea의 정신 사나운 연애story 었습니다.

나의 연애 이야기

by dsl|||||

공강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문화제 자료집에 실을 '나의 연애 이야기'를 주절거리며 썼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절주절 하나의 film이 돌아가듯 오랜만의 과거의 기억에 젖어있었던 듯싶다. 그리고 바로 오늘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지금의 나의 애인,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크게 싸운 채 이별과 화해의 중앙선에 서 있다. 오늘 오전 경에 썼던 나의 연애 이야기는 생각났고, 모든 것을 delete시킨 채 나는 다시 쓰고 있다.

22살, 역시나 변함없는 일상 속에 그 시절 유일한 나의 즐거움은 나의 CJ생활이었다. 밤 12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대략 새벽 4~5시정도.. 밤중에 잠긴 나의 허스키보이스 덕에 지금의 내 사랑을 만났다. 인생을 살아가며 단 한번을 마주칠까 말까한 희박한 확률 속에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 만남, 처음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꽤나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새벽 5시까지 데이트는 이어졌다.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의 모든 것이 되버릴 줄은 몰랐던 지금의 사랑.

조금 더 일찍 만났기를 바라지만 늦게 만난만큼 더 예쁜사랑을 할 생각이다.

매일을 싸우기도 하고, 매일을 웃기도 하고, 아침까지는 웃다가도 저녁에는 소리치며 싸우기도하고, 아침까지 싸우다가도 저녁에는 다시 서로를 보며 웃고있는 이 사랑이 나의 과거의 연애사는 모두 무색하게 만들어버릴만큼이나 내게는 소중한 사랑이다.

비록 나의 첫 연애는 아니지만 나는 이 사랑을 첫 사랑이라고 말할거다.

나의 마음안에 들어와 나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있기에 행복하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연애이야기? 아니지 이제는 온전히 땀땀한 옛 사랑이야기

by LK

이쁘장하게 반말로 타이핑을 칩니다.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사실 나는 사키자! 해서 사람과 사키거나 한 적은 없다. 더불어 뽀뽀한번 해본 적 없고, 정말 얼떨결에 고백한번 해봤던 거랑 고백을 좀 여러 번 받아 봤다는 거. 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해서 한 번도 배려있게 타이핑해 보지 못한 몸쓸 니언야. 감정처리 잘 못하여 난감이 얼굴표정에 드러나곤 하나.. 사실 내가 사키자고 말을 못하는 건 나는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다가 (엄밀히는 소심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거지.) 막상 '좋아한다'라는 호감이 들때면 이미 나는 금강석처럼 굳어 버리는 게 문제라서. 말 그대로 여자보기를 똑같이 하게 되곤 했지. 물론 매번 갈수록 나아지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얼어버리곤 했는데다가 첫사랑이 정말 적극적인 아이였기에... 뭐 그 아이도 내게 사랑고백을 듣는데는 실패했지만...

첫사랑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는 사람인데다가 꽤 오랫동안 내 머리를 혼란하게 했었기에 이야기를 꺼내길 주저하게 된다. 말을 해봐도 조금만 지나면 뼈먹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도 들고 하나씩 더 복잡하기도 해서 첫사랑을 포함해 사랑했던 친구들 중 그냥 첫사랑 때랑 고3때만 쓸래. 나머지는 변날방 와서 물어주세요.

내 첫사랑은 중학교 1학년 때였지. 그 당시 나는 뭐든지 자신감에 넘쳤고 뭐든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였어. 친척들이나 선생님들이 거는 나에게 대한 기대도 꽤 컸었고. 성취감들에 자신감이 넘쳤을 때라 그 어떤 것도 날 수그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 한 명이 날 정말 찢찢매매게 만들었었어. 보통 나는 예쁜 친구들에겐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곤 했는데 이 아인 딱히 예쁘지도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리 귀여웠던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보다도 더더욱 보수적이었기에 그 당시엔 정말 스킨쉽 이란건 상상도 못했었거든. 보통 남들과 달는 건 정말 곱고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가 달는 건 곱으론 극구 거부했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기가 싫더라고.

한 2년 넘게 이런 스킨쉽을 거절하면서도 속으론 괴리감을 느끼고, 지금 내가 이 아이한테 느끼는 게 사랑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까지도 나는 '레즈비언'이란 단어도 잘 몰랐었지. 뭐 사랑이라고 인정은 했어도 고백은 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L이란 개념을 알고 사회의 편견도 알게 되고, 자책까지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 왜 하필 난 여자를 좋아할까 부터 시작해서 말이지, 그렇다고 남자이고 싶지는 않고.

이 아이가 내게 너 첫사랑이 누구야, 너 이제껏 사랑한 사람 없어? 등등 간접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노력 좀 많이 했는데 속으론 인정하면서 표현을 못했었어. 완전 굳어버리기만 하고, 안 그래도 사랑이라는거 사람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까지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도 조언이나 털어놓는 수도 없이 정말 끔찍했었지. 친구들은 전부 과학교다 외고다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 첫사랑은 공부와 거리도 멀었어서 같이 공부할 수도 없었고 공부이야기도 꺼내기 힘들었지...

이 친구 좋아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학업도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좀 원망이 있기에 그 이후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었어. 그 이후로 좋아했던 애들은 전부 공부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에다가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을 찾게 된 거 같아. 이해타산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너무 시달렸었다고. 엄밀히는 이상형에 성실하고 공부 등에 관심 있는 정도가 추가 된거지. 긍정적인 성격이나...그런데 그건 다들 똑같잖아. 그 다음에 사랑한 친구는 나랑 죽이 잘 맞아서 목표가 비슷한 성실한 친구였고 해서 더 나은걸 느꼈기도 했고. 첫사랑과 이야기할 때 서서히 토픽이 너무 어긋나는 것을 느끼가면서 더더욱 생각이 맞아야 한다거나 설사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관심분야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

첫사랑과는 전화통화를 참 많이 했었거든, 지금도 연락하려면 할 수도 있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종종 연락을 했었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줄어들고 그 이전에도 정말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하느라 전화하는데 시간을 이어가려 노력했던 것 같고. 물론 그 조차도 너무 좋았으니까 계속 전화를 했었지만. 뭐 전화 하는 데엔 이유는 없었어. 그냥 사랑하니까 전화했지. 가끔은 침묵으로 있기도 했고. 그렇다고 침묵을 불안해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지.

사랑할 때 였으니까.

중학교 졸업할 년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첫사랑, 나, 첫사랑의 또 다른 두 친구가 네 명이 묘한 감정으로 묶여 세상에 둘도 없이 서로 고려해주는 친구들이 되었던 것 같아. 친구들보다 더 서로를 잘 알고 서로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생각해주면서 가족과는 다른 느낌의...서로를 챙겨주었지. 첫사랑과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네 명에서 서로 믿고 도와가면서 생활 했던 건 아직까지도 잔잔하게 기억에 남아서 남은 생애 이런 관계가 다시 있을까도 싶어. L들이 헤어지고 나면 이런 비슷한 관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꼭 헤어졌어야 생기는 건 아니고...

여튼 이런 관계는 다시없을 귀중한 인연들로 기억에 남아.

고등학교 때엔 매번 좋아하는 사람들마다 나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은 조금씩 나아졌어. 첫사랑만큼 힘들지도 않았고 매번 서로 좋아했었고, 나도 조금씩 생각이 개방적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랑들도 애뜻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고3 때 친구가 가장 고마웠어. (아우팅 문제도 있으니 세세한 이야기는 패스할게.) 생각지도 못하게 주변에서 꽤 오랜 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고3 때에서야 파직 하고 반했었어. 세상에 이런 아이를 이제껏 모르다니. 실을 정도였지. 그 친구도 마침 그랬는지(?) 그 친구가 먼저 좋은 티를 내주더라구. 지금 말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 그때 정말 매일, 매일이 두근거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좋아해서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친구였지. 심지어 내 이상형과 반대였던 부분이 이제는 그 친구 덕에 이상형이 되었으니까. 다만 이 친구는 티가 나는 것은 딱 잘라 거절했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도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티가 나면 이 친구는 거부하는 티가 났으니까. 글썽 내 욕감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티를 내서 주위 사람들까지 알릴 필요도 없고, (아무래도 아직 사람들의 시선이 그다 평범하게 바라보지는 않잖아. 생각해보면 무슨 day 때 초콜릿 하나, 때때로 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있게 전해줄 수 없는 게 참 슬프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감정들 주위까지 티가 나게 내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던 것 같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현명한 아이였어. 감정적이었던 내가 매우 휘둘리기도 했고, 이 친구가 그런 나를 오히려 잡아줄 때도 있고. 사랑 인간쯤 나도 꽤나 힘들었지만, 이 친구의 배려덕분에 힘든 것보단 느낀 것이 더 많았어. 성실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사랑 외에도 많은 부분을 배우게 해준 친구였고. 후에 얼떨결에 고백 했을 때도 정중하게 이야기해줘서 사귀지 못한다는 부분에도 상처도 그리 크게 입지 않았지. 게다가 고백을 조금 무식하게 얼떨결에 해서 로맨틱이란 눈썹~ 만큼도 없이 했으니. 나 같은 경우엔 고백을 받았을 때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엔 배려있게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배려를 받으면서 정말 반성도 하게 해준 친구였어. 지금은 이런 감정들 다 추슬러져서 추억만 아련하게 남긴 뒤, 안부전화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그 배려심이란.

뭐 이외에도 많은 사랑이 있어왔지만, 이제껏 인연들 모두 내게 특별했던 여자들로 기억에 남아있어. 추억이라고도 불리 우는, 난 L이지만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이외엔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건 똑같아. 음,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항상 여자를 욕망에 목말라 찾아다닐 것 같은 생각은 접어줘. 사랑만 하려고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어하고 때론 기운내면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고. 똑같이 미래 걱정하면서 공부하고 나를 계발하고 또 가끔은 여자친구들과 우정이란 이름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읽는 분 중 이성애자인 분들도, 모든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 가끔 뽀 받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고백 받으면 어색해지거나 사귀거나 하잖아. 내 취향 아니야 혹은 아 딱 내

이상형이야. 아니면 정말 남자인 친구. 등등 ㅋㅋ) 나도 남자애들이랑은 친구로 지내면서 종종 놀러도 다니고 그래. 남자에 대해 포비아가 있는 건 아니니. 때때로는 공부를 하건, 어딜 놀러가든 아, 애인이 (혹은 지금 좋아하는 누군가) 이 자리를 함께 한다면 좋겠다. 라고 외로움도 느낄 때도 있어. 그런데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던데 뭘.

이답에 애인 생기면 서로 믿고 도와가면서 공부도 하고, 잠깐 산책도 하고 손도 잡고 의지가 될 꺼야. 보고 싶으면 '이유 따위 필요없이' 그냥 보고, 보고싶어, 보고싶은데 이유까지 매번 붙여가면서 보는 건 짝사랑이니까.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는 존재. 보기만 해도 지쳤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흥이 나서 힘을 얻고 하는 건 사람들이 연애를 꼭 해봐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ㅋㅋ.

아, 애인이랑 같이 도서관가고 건학가고 이러면 공부 외방 잘 될텐데.....ㅋㅋ

나의 이야기

-사랑, 레즈비언

by 후현

평소엔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어느날 문득 그리고 언뜻 보았을때 어딘지 모를 그림자를 비치는 사람

처음 10초를 보았을 때보다 10달을 보는 동안 점점 예뻐지는 사람
그리고 보답 받지 못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라면 마음이 흔들린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저런 조건의 사람들은 존재하므로 나는 굳이 호모섹슈얼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무튼, 맘에 드는 음악을 들듯이 맘에 드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어떤 일인지 남자와의 소통은 매번 실패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육체적 관계를 제외하고 굳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개인적으로 스킨십을 꺼리는 편이라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 연애대상의 성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다. 그렇다고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건 단 한번 뿐이다. 다시는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유행가요를 들으세요, SG워너비의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나 MC the Max의 사랑의 시 이야기 그대로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가끔 동성애 사이트에 레즈비언은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레즈비언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걸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레즈비언'이란 집단은 표본을 채취해서 실험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 특이집단인가보다. 하지만 겪어본 결과 레즈비언이란 취향과 생장형식이 뚜렷이 한곳으로 모아지는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보기엔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이라는 점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좋아하는 음식도 이상형도, 위기상황 대처법도 다르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듯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를 구분해야한다면 왜 이성애자에겐 이성애자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고 묻지 않을까?

이 글을 읽는 이화인 모두를 도맷금으로 넘겨서 호모포비아로 몰아붙이고 공격해달 생각은 없다. 그중엔 숨어계신 이반분들과 열린사고를 가진 분들도 많을테니까. (경우는 이상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글적)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작년에 있었던 레즈비언 문화제테러가 생각나 분노와 억울함이 순간순간 상기되는 탓에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 나는 그녀의 몸을 안고싶은 변태성욕자가 아니라, 발렌타인테이가 되면 그녀에게 직접 만든 초콜릿을 건네주고 싶은 레즈비언이니까 오해 말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 꽤나 쓸쓸한 일인 것 같다. 끌리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나 좋아하는 선택이 생겼어." 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몇살인데? 어느 학교다니는데? 군대는 갔다 왔어?" 라고 되돌아 올 게 뻔하니까, 그 선택은 남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대에게 "응 같은 학교 다녀" 라고 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껏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해주며 상대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살핀 다음에 동성애란 사회가 말하는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곁들인 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야..." 하고 운을 떼야 하는데 이미 분위기는 험악하다. 에이 접자. 어쩌면 무성애자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쪽이 더 편하리라는 생각도 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나오는 -남녀-애기 속에 몇 년째 사귀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척하고 있으려니 답답함이 철물점의 암물찌 귀에까지 미칠 노릇이다. 침묵의 원인이 나의 조건 예를 들면 외모, 재력, 학벌 때문이 아니라 성별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억울하면 성 전환하라는 말씀은 않겠지요. 저는 여성으로서 여자에게 끌리는거니까요. 자신을 남자라고 여기고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벽장문은 아직 굳게 닫혀서 열리려면 멀었다는 걸, 그렇기에 더 외치는 거다. 다만 못하는 말이 남들보다 한 두 마디 더 있는 것 뿐. 문화제를 열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위해 까짓 외로움 다 참을 수 있다.

어쨌거나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겨우 반의 사람들과 사랑해야 한다고 내게 강요하는 건 확실히 폭력이다.

변태소년들의 FUN! FUN! 한 대담!!!

- TALKING ABOUT LESBIAN SEX

때는 바야흐로 2006년의 어느 여름날, 곧 한반도에 대형 태풍이 상륙한다는 일기 예보에 겁맞게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투두투두 아스팔트를 적시던 빗줄기가 맹렬하게 굽어지는데! (극적요소를 위해 절반쯤은 과장-TT-) 놀상 복적이던(진짜?) 학문관의 변날 방은 어쩐지 적막하기만 하다.

같은 시각, 대담무쌍한 우리의 변태소년들은 바리바리 식량(어쩌면 주량)을 싸들고 기차에 몸을 싣는 데...(두둥) 곳은 남씨에도 비뚤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들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비장함을 감도...을 띠고, 반쯤은 천성적으로 유쾌하고 반쯤은 세파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낙관론자가 되어버린 그녀들은 그저 마냥 즐거워서 폭우 속에 수증전을 하자노니, 강가에 가서 놀자노니 덩가덩가, 끝없는 본위의 기차 안을 다시 변날화 시켜버린다.

(중략)

그 날 저녁 늦은 시간, 일용할 술들을 사이좋게 나누어 마시고 벌개진(어쩌면 나만-TT-) 얼굴로 합숙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변태소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참가자: sea, 루미루브, LK, 섹섹, 뽕뽕, 성순가면, connie, Dark, 미니미.

- 참가자의 사생활을 절대 운송하기 위해 익명 식네임을 써드립니다. 누가 누군지 추이해보는 또 하나의 재미!

루미루브 : 야, 시작해!

성순가면 : 야 Dark, 너 애.

Dark : 난 뭐 그렇게 정소에 섹스하고 일만 생각은 결코 안 들어.

성순가면 : 너 딱 섹스하거나 야한 서 울 애 오음 하려든 기분이야!

Dark : 그래. 야한 서 울 애도 그렇고 애인일랑 섹스 할 애도 그렇습니다.

성순가면 : 애 첫 기스라고 오음 하러 가고 자고도 오음 하러 가고. ㅋㅋㅋㅋ

Dark : 어 그런 기분 몰라? 야한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난 진짜 화장실을 가.

다들: 야야, 실기아다ㅋㅋ

성순가연: 니가 진실을 해서 뭘 하시는 거 아냐?

주미유브: 너 오실음 아냐? ㅋㅋㅋㅋㅋㅋ

Connie: 아냐 넌 미노기라에 가야 돼. 문제가 있어 ㅋㅋ

Dark: 내가 경소에 뭘 하시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유난이 확장실을 가고 싶어.

성순가연: 오줌 마려운 기분은 드는데, 오줌을 그걸라고 아냐????

주미유브: 난 오줌 마려운 기분도 안 들어

Connie: 현재 아는 게 아니거든? 기분만 그런 거지-

주미유브: 너 한 번 알아봐 ㅋㅋ

Sea: 야 난 뭐야, 왜 아무것도 몰라. 진야 아증나. ㅋㅋ

Dark: 처음에 모델 갔을 때는 섹스 하고 확장실을 갔었어요. 근데 바로 가길 않았어!!

그리고 나서 두 세 면에는 안 그랬어. 알았어.

성순가연: 알았어?

주미유브: 알으면 알아지냐? 그럼 그제 오줌 마려운 심리지. 진야 몸이 하고 싶은 건 아냐.

Dark: 나중에는 알아졌는데 처음에는 모르겠어.

Sea: 근데 이런 거 다 대답에 올려? 잘 웃겨 ㅋㅋ

다들: 안돼 안돼 ㅋㅋ 전집애 ㅋㅋ

Connie: 아냐, 애들이 좋아할거야 ㅋㅋㅋㅋㅋㅋ

LK: 근데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섹스에 대한 말을 하길 아깝아요, 근데 저는 키스나 스킨십은 상상을 하여마도.. 섹스는 잘 상상이 안돼요.

Connie, 성순가연: 그건 니가 섹스를 안해 와서 그래.

주미유브: 환경이 갖춰진 상황에서 포포하고 키스하고 그렇게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돼. 근데 내 주위에는 에스미언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애들이 많아.

LK: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 상상이 안돼요. 원자 세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싫을 것 같고.

성순가연: 잠깐만, 근데 왜 섹스를 꼭 삽입위주로 생각해?

주미유브: 삽입을 섹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남성중심적 생각이야. 삽입이란 단어도 있잖아.

Sea: 그럼 에스미언 섹스를 할 때는 삽입을 안 해?

성순가연: 아냐, 아지. 근데 삽입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매일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Sea: 매링이 뭐야?

성순가연: 애두.

주미유브: 아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삽입으로 느끼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

Dark: 트리아는 것도 있고.

성순가연: 응, 맞아. 트리아디움도 있고.

Sea: 그건 뭐야?

성순가연: 성기를 두이는 거야.

주미유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치질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되어야고.

Dark: LK이랑 sea는 한 번도 경험이 없잖아. 모르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걸 얘기해봐.

Sea: 일단은 ...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모르겠어!!!!

LK: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sea 팬픽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서 본적이 있어요.

Connie: 근데 팬픽에서도 섹스얘기가 나와?

주미유브: 응 나와

LK: 거기에 왜 많이 나와요.

성순가연: 팬픽의 한계는 뭐냐면 솔직히 여자가수를 팬픽을 남자애들이 많이 써.

Sea: 오 진야?

성순가연: 그니까 그 자체가 환상이야 사실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없어.

LK: 니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서 조금 말전이 된 것이 있을거야.

모든 사람들이 진야 코르노처럼 섹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

주미유브: 에스미언 섹스 코르노를 보면 될도도 많이 나오고, 남자가 꼭 등장해.

성순가연: 실제로는 될도도 사실 많이 쓰진 않잖아.

다들: 응, 맞아. 그래그래.

LK: 솔직히 말하면 세 안에 뭐가 들어오면 싫을 것 같아요.

스타: 그건 그래, 근데 그제 어의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를 수도 있단 거지.

LK: 일단 삽입보다는 만지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삽입까지는 솔직히..

Connie: 애야, 나도 그랬어. 나도 만지는 것까지밖에 상상을 못했어.

주미유브: 나는 만지는 것도 상상 못했어.

Sea: 난 아무 상상이 안가. 으아아

LK: 지금 좋아하는 애한테는 전혀 아무 상상이 안 가는데,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친구와는 스킨십하는 상상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주미유브: 잠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왔어?

LK: 서로 좋아하는데 서로 인정 못 하는거.

주미유브: 그럼 스킨십 하나도 안해봤어?

LK: 그냥 몸나면 어지를 하는 정도?

주미유브: 어느 정도?

LK: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어때든누를 하거나 이어는 거고, 남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요-

성순가연: 너 그러면 남자 성기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이 왜? 이성애자한테도 물어 보고 싶어. 그제 진야 과연 황홀한 오르가즘을 느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면? 그것보다는 그냥 문위기가 섹스를 하는 문위기가 되서 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섹스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 뭐하는 것이야. '이제 주미유브아아아 보면' 이런 생각밖에 안 할지. 내가 이것 왜하고 있나. 서로 감성적이고 만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섹스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성애자를 애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아는데 가면 갈수록 좋대. 서로의 몸을 이해해 하는 거야. 어지를 맞이하면 좋아하는 구나 어지를 맞이하면 싫어하는구나.

LK: 아 근데, 제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일제라도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주미류브: 나도 그랬어. 나 처음에 1이랑 연애했을 때 나는 손잡고 여자는 것도 싫었어.

LK: 저도 중학교 때 두렵긴 했어요. 제 첫사랑이 저한테 스런함을 많이 했었거든요.

Dark: 난 아직도 그래. 기스하고 애무까지는 하는데 삼입이라든지 이런 건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늘 애
가 많아

주미류브: 상대가 스기니까 하는 거지. 삼입을 할 하고도 느끼지는 사람도 있어.

Connie: 나도 그랬어. 섹스는 도로지 개인취향이야.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는, 삼입 싫어하는 애도 있고 음
아하는 애도 있고, SM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개인취향이야. 웃음 가져다가 떨어뜨리는
섹스도 있잖아.

Sea: 뭐, 인마?

성순자연: 근데 그걸 편애라고 성의를 내리는 것도 어려워. S가 M을 만나면 그게 편애가
아니잖아. 성향차이를 싫어하거나 낯선 사람들이 편애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Connie: 그건 개에 성취취향일거지.

Dark: 우리 너무 얘기가 산발적이라. 정리하고 말하자.

(속들이가 잘 들었나? 라는 것으로 다들 수군수군 대다가 대중 경기가 됨)

Dark: 그럼 우리 첫 경험 얘기를 해볼까. 나는 대학교 들어와서야.

주미류브: 잠깐, 근데 여기서 첫 경험은 뭐야?

Connie: 섹스, 한지 섹스, 자기가 말든지 하든지 간에.

Dark: 음, 경험을 한 건 올해 5월이구요. 모텔에서도, 주변에서 압박을 줘서 했긴 했지만.

주미류브: 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냐?

Dark: 물론 호기심도 있긴 있었지만 겁쟁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건 아니었어.

애인은 경험이 많은 애래고 나는 두경험상대에게 가서 하게 됐지.

성순자연: 잠깐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니가 근데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 아냐?

Dark: 그렇지, 있었지. 얻어 했는데 상대와의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길 못해서 몰라요.

내가 말을 했. 내 첫 느낌이 되게 아팠어요. 좋았다는 느낌은 별로 못 만났어요.

기스랑 애무는 '아 좋다' 막 이랬는데 막상 섹스의 상황이 되니까, 내가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만났어요.

주미류브: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삼입을 했는데도 아팠어?

Dark: 음, 그랬는데도 많이 아팠고 좋다는 느낌은 없었어. 되게 놀람과 충격이었어. 내가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놀라움? 충격적? 그러고 아팠어.

성순자연: 다음에는?

Dark: 다음부터는 점점 점점 덜 아팠지. 나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늘 애도 있었어.

내가 말고 있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단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 사람은 경험 많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싶단 생각이 많이 들었어.

어쨌든 난 아직까지도 막 섹스하고 싶어 욕 알고 싶어 이런 건 잘 모르겠어.

다들: 그 다음 LK, Sea는 pass pass ㅋㅋㅋㅋ

미니미: 왜 패스야?

Sea, LK: 할 얘기가 없거든요 ㅠㅠ

주미류브: 다음 문화제때까지는 얘기 할 수 있도록!

(다들 막장대소- ㅠㅠ)

미니미: 나는 섹스가 처음에 애무부터 시작을 하잖아. 근데 난 첫 경험이 남자였어.

기분이 되게 나았어. 하는 와중에 손잡 이런 게 없었어. 난 그래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 난 첫 경험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의 애도와 언행과 행동이 되게 살서기 했어. 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애
서 근데 불쾌감을 느꼈지.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되게 일탈적이기도 하구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순자연: 근데 그 남자는 처음이었어?

미니미: 아니야 그 남자는 아니었어.

성순자연: 근데 그게 남자가 갈색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잘못 애는 거 같애.

Sea: 보르노 같은 데서 많이 애워오니가.

미니미: 섹스와 애무를 하게 된 것도 서로 동의하에 한 게 아니라 놀고 분위기를 그렇게 되어 버린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지. 나는 눈이가 되어있지도 않았었고. 지금 애인과는 우리 모델가까
속하고 그러면 속옷도 예쁜 거 입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근데 나는 그렇게 마음의 눈이가
간 되어 있었어.

미니미: 두 번째는 여자였는데, 근데도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야. 애매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말을 섹스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지. '아 애가 이렇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 문제는 내가 자연스럽게 만족을 찾기 위해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하는 사이에 압도적으로 말서라고 생각했어. 표현 할 애도 애가 다 알아서 애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애를 애는 말아서 잘 애주면 되겠지 이랬지. 어렸지. ㅠㅠ 근데도
기분은 별로였어.

Connie: 도대체 언제부터 좋았다는 거야?

미니미: 지금 애인 만나고 좋아졌지.

Connie: 음, 세 번째.

미니미: 그 중간에 사귀던 사람이랑은 별로 그런 게 없었고. *만나고 나서 좋아졌지. *도 경험이 있었고
나도 나를 경험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애랑은 근데 소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가 막 말을
꼭 애야 돼? 표현해야 돼? 그러긴 했지 ㅠㅠ

성순자연: *가 그런단 말이야?

'야야, 어이가 좋다' 이럴 것 같은데? ㅠㅠ

미니미: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살서할 수도 있지 않았어. * 애인 경험을 들어보면 되게 일탈적인

정수가 많아져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 나는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 그랬지.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인식 같은 게 많이 바뀌었고 애랑 섹스를 하면 좋아.

Dark: 진아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애. 전 독서머음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애길 일절 말하다가, 어느 땐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끝나고 나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A도 되게 독서머이하면서 막 말도 꼭 해야 돼? 당연히 너랑 해서 좋았지 막 이런 쉼 구체적인 말들은 못 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물어 되게 독서머이하고 소름이 없었어.

주미류브: 나는 고등학교2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해봤어. 근데 나는 솔직히 처음 섹스 할 때 느낌이 완전히 기억은 안 난다. 아프진 않았는데 흥겨운 느낌이나 그런 거 없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해줄 때 더 많이 느껴, 말을 애 보다.

Dark, Connie: 나도 해줄 때가 좋아.

주미류브: 나는 처음 섹스 할 때부터 대화를 했어. 섹스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하는 중간중간. '여기? 아니면 어디해줄까?' 이렇게.

미니미: 그 상황을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솔직말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로 믿고 이어면 되게 감을 것도 없고,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 감추는 것 자체가 웃길거고.

정순가연: 아, 진아 주옥같은 이야기 한다~ㅋㅋ

Dark: 나는 아직도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애.

주미류브: 내가 말한 게 좋아하고 느낄 거는 1이랑 사귀고 나기. 내가 좋아 하는 느낌을 가진 건 애가 처음이고, 애랑 처음 섹스 하면 난 나도 말았을 때 정말 좋았어. 세상에 다 얻은 기분이었어. 좋았고, 섹스 할 때 마다 대화를 해. 예전에 사귀던 애는 내가 '여기 좋아?' 아니면 내가 하는 중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말을 해줬어. 아아 말하면 대로 '천국천국?' 이런식으로.ㅋㅋ 근데 1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음 대화를 하자고 막이었지. 난 섹스를 할 때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미니미: 아 맞다, 몸이 아프면 스팀업을 하거나 섹스를 하려고 해도 흥분이 안돼. 그리고 성감대가 바뀌어. 바뀔 수 있어. 약이 정해진 그런 게 없어. 상황과 분위기를 연출? 아무는 이런 거에 아아 달아. 그러면 물어보고 계속 찾는 거야. 서로 만족시키려고 이런 게 또 다른 행복이서? 새비알아? 즐거운 섹스를 어떻게 할 수 있잖아 이런거.

LK: 도중에 이어들어서 최종하지만 섹스두경험하고, 그리고 일말의 이전까지 고려했을 때, 에이미언 섹스를 하게 되면 소위 무지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흥분을 느끼는 이런 게 궁금해. 여자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궁금해.

Dark: 나는 내가 해줄 때 많이 느껴.

주미류브: 어떻게 느끼는애?

Dark: 예전 애인 A의 평소 스타일은 초그랄고 귀엽고 아담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갑자기 가면 바뀌어요. 되게 많이 바뀌어요. 원래 걸로 표현을 잘 말하는 성격인데 갑자기가면 되게 적극적이야. 솔직임이라든지 신음소리? 이런 게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원사 달라. 나는 생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감

정순가연 흥분을 하게 되고, 내가 해주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 난 그게 너무 좋아.

주미류브: 반응을 하면 진아 좋아. 내가 생각하기에 섹스를 할 때 중요한 게 3요소가 있어.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다들 박장대소ㅋㅋㅋㅋㅋㅋㅋㅋ)

Connie: 남자애들은 페니스 흥분을 하면서 흥분을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지. 근데 여자들이 하면 손가락을 사용하잖아. 남자애들은 그 질 안의 느낌을 잘 못 느낄 거 같아. 우리는 섹스 할 때 손을 넣잖아. 손은 민감하단 말야, 그 안을 잘 느낄 수 있어.

주미류브: 상대가 흥분하면 그 안의 느낌이 바뀌어.

Dark: 솔직히 내 생각엔 남자랑 여자랑 섹스를 할 때, 여자 질에 남자들이 자기 페니스가 들어갔을 때, 남자가 느끼는, 페니스에 와 닿는 느낌을 좋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런 되게 자기 흥분인 것 같아.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상대방의 몸의 상태가 변하는 걸 느끼는 거랑은 다르지.

정순가연: 솔직히 다들, 사운드 그고 오르노를 묻지 있어? 그럼 흥분이 하나도 안 된애.

주미류브: 나는 오르노영상은 내어놓고 사운드만 듣는 적도 있어.

Connie: 나도..

LK: 그럼 만화나 소설 같은 건요? 그런 소리가 없잖아요.

정순가연: 야만 만화나 소설 같은 건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분위기에 취하는 거야.

지금 나랑 같이 몸을 섞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게 좋은 거야.

주미류브: 아, 그리고 삽입을 하거나 밀을 만지지 않더라도 가슴만 애무해도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1이 그랬었대. 내가 가슴을 만졌을 때도 오르가즘을 느꼈대.

Dark: 아, 나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어. 상대가 오르가즘에 올랐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점, 그걸 어떤 걸 보고 판단해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주미류브, Connie: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다르고 질 상태가 바뀌어.

Dark: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신음 소리야연이 경기를 일으킬 듯이 소리를 지르고.ㅋ

주미류브: 야야 지중도 날아가 ㅋㅋㅋㅋㅋㅋ

Dark: 소리 말고는 없나? 소리 같은 건 두터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주미류브: 역안은 강도가 달라.

정순가연: 여자도 사정도 하잖아.

주미류브: 알았, 이제 정순가연 첫 경험-

정순가연: 내가 생각하는 첫 경험은 사기가 정의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나의 첫 경험이라고 하면 일말적으로 아무런 애무없이 키스 오가 없이 삽입만 당했었고.

주미류브: 진아? 첫 경험도 아니었지?

정순가연: 어, 전혀.

주미류브: 진아 아꼈잖아.

정순가연: 아꼈을 수밖에 없지. 사랑 한 것도 아니었어. 그 다음은 남자였고, 그 다음은 여

사였고, 새는 가슴까지였었고. 그 다음은 내가 생각 했을 때는 내 첫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섹스에 대한 보미아가 너무너무 싫었어. 밑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면, 삽입준만 아니라 기스를 세뇌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 몸을 만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보미아가 싫었는데 그게 어질로 자연스럽게 고쳐졌어.

Dark: 어떻게?

성순아연: 음, 그니까 나의 첫 경험은 애를 만나고 나서 (Connie가 아이기여).

루미류브: 그게 언제?

Connie: 2005년...6월 2일이다. 이눔아!!!

성순아연: 나는, 아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날 많이 아끼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 오르가즘 느끼기 전에도, 대화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대화가 필요 없이도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 대화를 하지 않고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들: 공감이야.

Connie: 실상은 엄청 경직되어있었어. 애가, 글은 돌이 된 거야.. 통나무가 되었었어. ㅋㅋㅋ 통나무 정도가 아냐.

성순아연: 너(Connie) 첫 경험이나 얘기하이지? ㅋㅋㅋㅋㅋ 언제?

Connie: 고 3때 여음이었나?

루미류브: 집에서?

Connie: 아니 디미리 방에서.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밑에 가지 내려가는 걸 상당히 못했지. 여자 밑에 내 손이 닿고 내 손을 잡아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밑이라 돼. 음 ㅋㅋㅋ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물어봐~ 진짜아니야? ㅋㅋㅋㅋ

루미류브: 삽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

Connie: 꼭 삽입을 해야 되냐? 난 가슴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사귀던 여아내는 섹스를 좋아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달달했겠어. 나는 섹스를 한다고 했는데, 맨날 섹스하면 가슴까지만 하고, 애추지는 않고. 그니까 걔 친구들이 막 걔한테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사귀냐 이 날이냐 날이냐.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교습을 받았지.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되냐. 그랬더니 친구가 막 한마디 하여야.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들어 갈 때가 만근에 곁에 있다." 근데 너무 막막하잖아. 같은 그래서 디미리방에 들어갔는데 경상이처럼 가슴애무를 하고 있다가 얼얼얼 하면서 손가락을 넣는데 진짜 손가락이 죽 들어가는거야! 막 너무 민 느낌이 나는 거야. 아 이어떨 애가 못 느끼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지. 영 이었어. 거대한 통을 안에 꽂듯하나 같이 넣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하나둘 더 깊어졌지. 근데 여인이 채워지지 않는 이 기분은 뭐야 ㅋ 그래서 하나 둘씩 넣었는데 내 손이 다 들어갔어. 그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서 그냥 됐어. 그리고 물어봤지. 좋았어? 그랬더니 좋았냐? 이어여아. 이제 내 첫 경험이야.:

Sea: 근데 손가락이 그렇게 들어가?

성순아연, Connie: 어, 들어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루미류브: 나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됐는데, 아아보면 하나 넣고 계속 넣다보면 세 개, 네 개 들어가.

Connie: 질이 되게 수축성이 강해.

성순아연: 야야 애도 나오는데 뭐.

루미류브: 자, 이제 뽕뽕이 첫 경험-

(뽕뽕과 짹, 갑작스레 등장! : 사실은 곁에 나가서 다루고 화해하고-_-:)

뽕뽕: 20살 애였나. 그 당시 사귀던 사람의 집에서. 내가 솔직히 모르노 이런걸 보기는 했지만 곱돌이 본 건 아니어서 잘 세상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처음 애 봤을 때는, 나도 Connie이처럼 그랬어. 삽입까지 들어가기에는 사귀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야. 그 전에는 기스를 하고 애두만 했어. 밑애를 손으로 만진다면지 그런 거를 아예 알았을 못했어. 그러다가 처음에 한 세 항상 할 때 위에는 젖고 아래는 입은 상태에서 밀착되어 하다가 내 두툼이 그 사람 아래에 닿아서 그 사람이 느낀 거야. 나도 옷을 입고 애도 입은 상태에서. 근데 걔가 느꼈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러고나서 상태가 좋아지고 애기를 하여야고. 그 위에는 밑에도 느끼는 걸 의식하게 되니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만지다가 다음에 맨이 위에서 만지다가 그 다음엔 다 젖고 하에 됐지.

루미류브: 언니 어렸어. 그대 느낌이?

뽕뽕: 나는 솔직히 내가 맡는 입장이 된 건 좀 어 이난 후였어. 애를 재의 느낌은 '상대방이 좋아하니 나도 좋아.' 이런 거였지.

성순아연: 야, 근데 말이 그렇게 아냐?

Connie, 루미류브, Dark: 야, 당연하지!!! 손이 얼얼 얼얼 막 잡나고 말 완전 아아!! 손가락이 막 뽕겨지는? ㅋ

미미미: 살이 편이 빠지는게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작살내고 - ㅋㅋㅋ)

루미류브: 다들, 짹!

짹: 나는 첫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걸 즉 대학생 때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첫 기스를 우리 집 침대에 했어? 근데 그게 기스만 한 게 아니라 가슴도 만지고 맨이 만지니 손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둘이 그러고 있다가 입술을 베고 그냥 떨어졌어. 그게 첫기스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첫 경험일수도 있다는 거지. 첫 경험이라는 건 내가 정의하는 거니까. 원래는 첫 경험을 정의할 땐 세 항상 20살 애였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첫기스를 했을 때 몸을 쳐주고 이런 게 첫 경험일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하여간 20살 애였던 거는.. 그애 내가 잘지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애인을 만나서 멀리 갔다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가슴 차고 보정을 할 수 곁에 없었어.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에로이디오도 한 번도 안 보고, 지식도 막 야오이나 엔릭, 문막악음, Tv에서 보는 거가 전부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 기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세 달째였지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세 달째 정국대로 가지 않았던 거야. 막 가슴 애

두들 마다가 바로 삽입을 했어야.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만야자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했어. 그랬는데 내가 처음 한 것치고 알았다? ㅋㅋㅋㅋ 근데 그게 막 돌입한 게 아니고 '내가 뭐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제 상황은 진행되어가고.. 음긴 음갔는데 어쨌든에서는 계속 내가 할 하고 있는 걸까 웃기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 그리고 막 상황이 상황이 되는 거야. 아메아 켈러서업 음겼을 때의 그 전말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웃기다는 생각도 들고. 난 아쁘진 않았어. 왜냐면 자위는 했었거든. 그게 첫 경험이었어. 내가 해준 거는 훨씬 주고. 글-

루미유브: LK 물어볼 거 있따며-

LK: 언제나 그렇듯이 일만이 제일 궁금해 할 만한 점도. 손가락으로 삽입을 하게 될 경우 질이 손톱에 의해 다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성순가연, Connie: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당연히.

루미유브: 난 처음 섹스 할 때는 섹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손톱을 아무리 꺾어도 세균에 감염되고 다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 처음 섹스할 사람이랑은 별지도 안 가서 문동을 사기가 좀 뭐한 거야. 이 나라에서 여자가 문동을 사는 게 좀 뭐 하잖아? 아직은 ㅈㅈㅈ

성순가연: 무엇보다 고등학생이었죠!!! 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루미유브: 그래서 나는 문동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못했지. 감염 위험도 있고 L이 문동을 써 쓰면 어 찰 느낌이니까 난 그냥 문동 써. 지갑에 문동을 가지고 다녀 그래서.

이니미: 나도 얼른 구입을 해야겠어. ㅈㅈㅈ

Dark: 문동을 쓴다고 근데 감염이 안 되는 걸 근데 아니잖아.

루미유브: 삽입하기 직전에 막 문동을 끼는 거지.

성순가연: 나는 문동을 쓰면 잘 안 느껴서.

루미유브: 갑갑. 문동 써서 해본사람. (수를 켜) 짹짹. 이니미에. 그리고 나.

이니미: 근데 내 애인 X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서포의 안 전과 전장을 위해서 쓰는 건에 약간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는 거야.

루미유브: 나는 L이랑 열이 가연 때부터 그냥 계속 문동 써.

성순가연: 갑갑. 내가 이걸을 하나 알려줄게. 난 손톱이 길어서 문동을 그냥 쓰면 찢어질만 말야. 그래서 근년에 손가락에 유지를 얹어. 그런 다음에 문동을 써.

나들: 아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 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이니미: 음. 난 나이 많은 사남들을 먼저 많이 알았어. 내가 19살 때 30넘은 서들들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대 언니들이랑 같이 술을 마실 적이 있는데 언니들이 성교육 이런 걸 해준 거야. '여자 실 안에 삽입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한다' 이런 얘기들. 뭐 그대 '삽입이 가능하구나' 그런걸 알았지. 나는 지금 자위를 하고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 들이? 들리 (* 들리도리스) 자극하고 이러면 많이 느끼는데 삽입은 몰랐어. 그래서 그대 언니 들 얘기를 듣고 '아 삽입을 하는구나' 라고 그대 알았지.

루미유브: 예스미언은 삽입을 안 하는 줄 알았어?

이니미: 알았는데 안걸 아니었는데. '나이가 많아야만 삽입이 가능하고 느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브로이드가 쓴 책이나 거기에서 '물리를 서슴에 자극받고 여성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 질 폭으로 감각대가 많이 말라기 되기 때문에 그대만 가 능하다' 라고 써 있는데 그런 건아 남성주의적인 사고지. 완전 잘못된 이론이지.

(나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성순가연: 세이다들 때 손톱을 보잖아. 사실 자위를 한다고 할 때도 손톱이 길면 안 되잖아. 손톱이 짧은 게 기본적인 예이겠이지.

루미유브: 나는 열이에서 섹스할 때도 일단 자위를 하고 애무를 해. 그리고 난 삽입 직전에 '손 깎았어? 깎고 와' 라고 해. 깎고 와도 몸을 만지면서 이불도 만지고 이렇게 되니까.

성순가연: 근데 깎고 와도 그 기분이 지속이 돼?

루미유브: 딱 안 끊겨.

이니미: 왜? 막 뭣아? 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루미유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삽입 직전에도 깎고 올게 이라고 물어볼 거고 와.

책책: 내가 예전에 사귀던 애는 별로 근년에 관념이 없었어. 항상 이미지 망에서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근년에 별로 관념이 없어서 결국 내가 망광염이 걸렸어. 어느 날 진짜 물이 아른 거야. 그래서 몸살이 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의학과를 가서 총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망광염인 것 같다는 거야. 그 의사는 그냥 여자 몸 구조상 망광염이 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서 내가 봤는데 20대 여자 망광염 거의 90프로 이상은 성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남녀관개에서도 그렇다는 거지. 루 미도 그렇고.

성순가연: 야 한편 얘기 좀 애보자. '야 예스미언도 섹스를 해?' '어 왜 안해?'

Dark: '어떤 방식으로 해?' 이거 제일 많이 물어와.

루미유브: 루미도 똑같이 가슴만치고 삽입해.

성순가연: 그리고 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삽입하는게 꼭 섹스야?'

루미유브: 당연히 아니지! 손만 만져도 느끼질 애 있어. 손이 감각대인 사알도 있고..

성순가연: 이성애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내 남자친구 섹스 진짜 잘해' 이러면. 그대 진짜 삽입이 좋아서 섹스가 좋은 거야? 아무런 애무없이 삽입만 해와. 그대 몸을 것 같애? 절대 아니지.

책책: 항상 화면 같은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되는게 뭐냐면. 세네가 얘기하는 업업이 랑 루미루미를 보면 업업은 삽입이고 루미루미는 애임이고. 요알도 루미루미에 들어가. 되게 이상하 지 않아?

Dark: 요알 섹스하는 말에도 있는데?

책책: 어떤 패스들을 보면 자기가 섹스는 안했는데 '오늘 남자친구랑 가슴을 만지고 아래까지 손이 가요 그래서 자기가 요알을 해줬다.' 이러. 근데 그게 왜 섹스가 아니야?

성순가연: 그런 건아 말도 아닌 거야. 너무 고정관념이야.

루미류브: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섹스의 수위는 뭐야?

성순가연: 나는 내 섹스의 정치는 내가 짓는 거야.

책책: 음, 나도.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손을 만지는 것 자체가 섹스 일 수도 있어.

성순가연, 루미류브: 손이 성감대인 사람도 있어.

Dark: 나는 내가 흥분하는 걸 느낄 때 그게 섹스야. 나는 처음에는 칼칼을 할 때 그랬어.

루미류브: 나는 애인이 나한테 허리를 두들 때 아릿함을 느낀 적이 있어.

Dark: 나는 열이에 처음 갔을 때가 섹스 일 것 같애. 아! 애두를 할 때. 가슴까지 갔을 때도 굳이 성기를 만지지 않고 애두만 할 때도. 나는 내가 처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 시만 그 자체가 섹스라고 느꼈던 것 같애. '아 이런거구나' 하고 처음 느꼈을 때가 서로 개장 나알 추고말았을 때. 일방적인 게 아니야.

루미류브: give&take를 했을 때가 섹스라고 생각한다고?

Dark: 굳이 성기까지는 아니어도.

루미류브: 서로 만지는 수위는?

Dark: 가슴정도. 내 가슴을 만지고 이런 사람이 내가 처음 이어서 그런 것 같애.

성순가연: 나 궁금한데, 그럼 너네 둘 (sea, lk) 은 에스미언 섹스가 뭐라고 생각해?

sea: 나는, 일단 내가 에스미언이라고 정체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남자와의 관례에서만 생각을 해 와서 삽입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열날에 들어와서 애기 들어오고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굳이 삽입을 하지 않아도 서로 뭐 느끼거나 이런 것도 섹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난 아직도 삽입이 섹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lk: 음.. 저는 섹스로미야, 삽입로미야가 진짜 심한편이고 제가 되게 보수적이어서 삽입만 섹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서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 섹스라고 생각해요. 섹스는 아직 저에게 완성이고, 오르가즘이라는 게 느껴지지 못한 무언가가 서로 나누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Dark: 오르가즘, 도대체 오르가즘이 뭐야?! 진짜 궁금해.

루미류브: 아아 흠이야애 흠이야애 오이아즘 음 이아애 -

다들: 우하하하하 오이아즘이 뭐야 ㅋㅋㅋㅋㅋㅋ(알이 갔음- -ㅋㅋㅋㅋㅋㅋ)

미니미: 나도 오르가즘, 손을 잡고 열리고 이런 게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한 시작일 것 같아.

술밑술밑서거나 이것이것아거나 이런 거. 나는 그리고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못 느끼면 새운 아기 못애, 되게 힘입애. 답답하고 애오하지 못한 느낌? 이런 거.

루미류브: 난 내가 젖었을 때 그게 섹스라고 생각해. 나는 시각적으로도 흥분이 있어.

Dark: 애인을 보고 시각적으로 젖었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야한 거 봐도 젖을 수 있잖아..

루미류브: 난 아무도 야한 보드들을 봐도 젖지를 않아. 소리를 들어도 난 젖지 않아. 그냥 뭐 출다 이럴 뿐이야. 소이출다. 뭐 이정도? ㅋㅋㅋㅋㅋㅋ

성순가연: 그럼 다음으로 Connie이가 생각하는 섹스는 뭐야?

Connie: 서로 교감하는 것. 내가 진짜 열심히 키스본질을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섹스 한 것 같아

같아.

미니미: 그게 오르가즘이야! 교감이 있어야 오르가즘이 있는 거야.

Dark: 그러면 내가 오르가즘을 느낀 걸까? 근데 잘 모르겠어.

웅웅: 나도 교감! 그애그애야다 다른 것 같아. 음.

미니미: 잠깐! 나 하나만 정정하자. 오르가즘이 없다고 해서 교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애.

Connie: 그래. 맞아. 잘 정정했다. ㅋㅋㅋㅋㅋㅋ

루미류브: 근데 교감이 뭐야?

Dark: 내가 애랑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애.

Connie: 와와. 내가 몰라 키스본질을 하고 있는데 애가 반응이 없어. 그게 뭐야 ㅋㅋㅋㅋ

Dark: 나도 애를 원하고, 애도 나를 원하는 것. 그거야 그거.

책책: 나 아아 애기했는데, 음 내가 생각하는 섹스는 느낄 수 있으면.. 서로 느끼는 것. 성적증분, 성적 흥분이 있어야 섹스가 되지. 서로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되게 안 좋게 섹스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건 섹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들: 잣아앗아.

@ 이후에도 저희의 만남은 녹음기를 끄고 계속 되었습니다.

자, 어머세요? 페즈비언 섹스. 뭔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런 거요.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페즈비언들도 섹스를 한다! 너무나도 이성애자 중심의 섹스개념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우리들의 섹스이야기가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겠군요. 또 다른 반응들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녹음하신 우리 변남인 여러분, 그리고 읽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6년 동안의 두려움

by 주나

나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계쯤에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도덕 관념이 부족했었는지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 '여자'라는 것에 대해 그다지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친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아우팅이라는 개념-그리고 그것이 '범죄'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변날에 들어오고 난 후였던 것 같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개념이 서지 않았었다. 중학교 시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수군거렸을 때에도 그 개념을 몰랐기에 마냥 두려우면서도 말할 수 없었고, 여기저기서 나를 구경거리 삼았을 때에도- 나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속으로 속으로 상처를 쌓아가면서 뭐라 대응할 수 없었다.

커밍아웃이라는 걸 한다는 개념 없이, '나 저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애'라고 친한 친구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다. 그 후에 나는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을 합쳐, 총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특히 아우팅이라는 것에 대해 혐오스러웠거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아우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저런 상황이 지나가 버린 다음에 친했던 친구들을 통해 뒤늦게 듣게 된 그 때의 이야기로 나는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 나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을 했었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나에게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던 거였고,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람이 많았던 이유가 '나'라는 아이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던 아이들 때문이었다는 얘길 듣게 된 거였다. 그 얘길 듣게 된 후에,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정체성을 숨기려 하지 않았던 나의 태도에 감사하게 되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내 곁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물론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걸러내 준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6년동안의 인간관계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다.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내 정체성을 밝히고 경고를 했던-정말 할 일 없는- 아이가 있었는가 하면, 또 누구와 많이 친해졌다 싶으면 그 아이까지 싸잡

아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욕을 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어이없이 잃게 된 친구들도 많고, 6년 동안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긴 채 겉으로만 사람을 대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

교실에서 앉아 있을 때에, 사방에서 몰려들어 나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아우팅을 당하지 않았으면-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숨기려고 노력했을거라는 보장은 없지만-그때처럼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그 눈빛들과 수군거림은 나에게 엄청난 큰 두려움이다.

아웃팅

한 폭서로 이야기

by black

아웃팅. 무서운 일이다.

'그게 뭐 대수롭다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몇몇 분들, 그게 왜 무섭냐고 묻는다면 나는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상처다. 실연에 대한 상처, 배신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상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존재를 부정당하고 존재 자체가 악이라 보여져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있는 것이다.

나는 아웃팅이라는 상처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실패를 했다. 실연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에서 욕을 고스란히 받아야하며, 그런 충격에 의해서 순조로워야 할 삶의 진행이 흐트러지고, 똑같은 상처들을 받게 될 걱정 때문에 나와서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애인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 '난 정말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힘없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문득 되짚어보면서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만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기만 한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하고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초조하게 걱정하고 살아야한다니 막막할 때가 많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또다른 아웃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는 꽤나 좁은 단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때 그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 글을 읽고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아웃팅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아웃팅에 의한 위험과 그 전에 아웃팅의 위험을 만들어 낸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상 수많은 성 소수자들이 이런 글을 써야만하고, 열심히 인권 운동을

해야 하고, 숨어지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한다. 삶은 내 안에서의 고찰만으로도 힘들거울 지경인데, 왜 이런 것들까지 신경쓰며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서 부정당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랑을 한다 해서 그것을 틀리다고 지적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아웃팅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길.



와, 저 몽실몽실한 구름 봐.

어? 저기, 무지개?

(레즈 pass)

by LEGO

화면이들! 본좌가 바로 레즈행이오.

화면에 배워졌던 레즈pass글을 업선하여 3개의 섹션으로 나누었소.

본좌가 진정 레즈행이오. 본좌가 다 말해주겠소!

아! 검색팁을 배우겠소! 지난화면 -> 검색어 '레즈'

주의사항) 본좌는 대한민국 대표 레즈행이 아니오. 본좌의 리플들은 말그대로 '레즈비언인 본좌' 입장에서 쓴 것 이오.

section 1) 편견!

본좌 이런글 볼때마다 눈에 핏줄이 다 서오. 아니 당최 본좌네 변날이 문화제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편견을 가진 행들이 있다니!! 이러지마시오들...

183 근대 학교에서 보면 남행처럼 보이시하게 다니는 행들 종종 보이는데 그들은 레즈이오?(11) 2006-05-24 859

학교 교양이나 이런거 듣다보면

남행과 흡사하게 해서 다니는 행들 있던데..

항상 궁금한것은 그들이 레즈인지??

■ 2006-06-29 (H) (P) 패션이오 (2006-05-24)

■ 2006-06-29 (H) (P) 이런 단순한 편견은 또 간만이구라222 놀람소: (2006-05-24)

■ 2006-06-29 (H) (P) 이런 단순한 편견은 또 간만이구라 (2006-05-24)

■ 2006-06-29 (H) (P) 편견이오.2 (2006-05-24)

■ 2006-06-29 (H) (P) 편견이오. (2006-05-24)

- 2006-06-29 (H) (P) 일반화 시키지 마시오 -_- (지난주까지 샤랄라하다가 보이시 컨셉으로 바뀌본셈) (2006-05-24)
- 2006-06-29 (H) (P) 편견이오 (2006-05-24)
- 2006-06-29 (H) (P) 레즈헔들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오! (2006-05-24)
- 2006-06-29 (H) (P) 패션이오 (2006-05-24)
- 2006-06-29 (H) (P) 당연히 다 그럴지 않소-_- 그냥 보이시한 취향의 핏일 가능성이 더 크오 (2006-05-24)
- 2006-06-29 (H) (P) 아닌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2006-05-24)

본좌가 말해주겠소!

일단! 레즈헔들은 보이쉬 한 핏들의 집단이 아니라오. 변남만 해도 보이쉬하지않은 핏들이 보이쉬한 핏들보다 훨~씬 많소. 옷을 그렇게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건 다 그 핏들 취향이고 맘이오. 그럴소 저 리플중에 '패션이오' 이게 그나마 맘에드오. 편견을 버리시오! 보이쉬하다고 레즈헔들 아니오 또한 레즈헔이라고 보이쉬 한 것만은 또 아니라고! 둘은 대략 상관관계가 없다 말하고싶소.

173 본좌 레즈헔한테 고백받았었다오 본좌는 레즈가 아닌데.. 이럴수도 있는거요?(2)
2006-04-01 392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학창시절때 고백받았었다오
그시절에는 화다닥 놀라서 피했지만

지금생각하니까 좀 불쌍하고 미안해지는구라
가공씩 생각나기도하고

그런데 레즈헔이 레즈아닌핏을 좋아하게될수도있는거요?

- 2006-04-01 (H) (P) = 본좌도 그런적 있었는데... 그때 마음고생 심했소 그헔땜에
- 2006-04-01 (H) (P) 그럴수도 있는거 아니오? 뭐 레즈헔이 레즈헔만 좋아하란 법은 없지않소? =

본좌가 말해주겠소!

레즈헔이 레즈헔만 좋아하면, 레즈헔들에겐 연애의 제약이 생기는것이오? 뭐 다른말 안하고 그냥 본좌이야기를 해주겠소. 본좌는 약 6년동안 세명의 여자와 사귀었소. 첫 번째 애인은 이성애자였고, 두 번째 애인은 이성애자에다가 무려 목사님 따님 이셨소. 세 번째 애인은 이성애자 또는 동성애자 둘중 어떠한것도 아직 정체화하지 못한 핏이었소. 이럼 대답이 되는데요?

172 그냥 레즈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 난거..(3) 2006-03-25 179

본좌 물론 남녀 관계에서도 장난으로 사귀고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오만..
중,고생 여자아이들이 칼머리 하고 레즈 '흥내'내면서 장난으로 사귀는 게 굉장히 안좋아 보였었소.
근데 동성애는 무조건 너무너무 사랑해야 진짜다 이런거는 편견인 것 같소.
사랑에 진짜고 가짜고가 어디있겠소.
게다가 남녀관계에서는 그냥 호감가서 사귀보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데,
왜 여여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야 진짜라고만 생각하는지...
근데 우리가 접하는 모든 동성애 코드는 '힘든 사랑', '매우 걱정적인 사랑' 이런 거라서 그런 것 같소.

- 2006-03-25 (H) (P) 뭐.. 흥내는 내겠지만.. 결국 돌아올거라 생각하오. 자기 정체성 찾아서.. 진짜 레즈인경우면 그 길 계속 갈것이고, 원래 중고생때는 잘 모르잖소.. 이것저것 해보고.. 나중에서야 자기 행동 스스로비웃고 그러잖소..
- 2006-03-25 (H) (P) 동감이오.. 그래서 본좌는 보고나면 유쾌한 레즈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오
- 2006-03-25 (H) (P) (--) (__) 어쨌든 동성애자들 토닥토닥이오. 갑자기 작년 변남 사건이 생각나는구라::

본좌가 말해주겠소!

팬픽 이야기로구라~ 본좌 정말 솔직히 팬픽소설 같은거 한번도 본픽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뭐 그 소설은 매우 현실과 다르단 이야기인 들었소. 사랑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모든 인간 또는 생물체에게 힘들고 아픈거지만 행복한거이기도 하잖소?! 또한, 걱정적인사랑~ 이런거~ 이것도 뭐 인간사 이야기 아니겠소? 아 그리고 3행의 말중에 '진짜 레즈인경우면 그 길 계속 갈것이고' 이말 말이오.. 본좌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소. 성 정체성은 바뀔수 있는것이오. 이성을 사랑했다가도 동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다시 이성을 사랑할수도있고 동성을 사랑할수도있고~ 뭐 그런것이오. 그러니 3행의 그말

은 좀 아닌것 같소만은... (히: 본좌가 넘 짜칠했다면 미안하오.)

73 환경이 레즈나 바이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시오?(8) 2005-06-29 125

여고 남고.. 여중..

여튼 이런 학교에 레즈나 그런.. 행들이 많은건 사실같소. 확실히.

진짜든 아니든..

본좌는 그런 행들 중 진짜 그런 성적취향을 가진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오.

다들 호기심? 혹은 한때의 유행처럼.

왜 학교라는 드라마에서도 있지 않았소.

유행처럼 갑자기 그런게 퍼진적이 있었소.

여튼, 그런 진짜든 아니든.. 특히 아난데 분위기(?)에 휩쓸려 레즈나 게이 흉내 내는 행들..

많은 것 같소.

나중에 그런 행들은 정신 차리게지라.

본좌가 고등학교까지 남녀공학을 나와서..

참고로 본좌네 학교엔 그런 행들이 아예 없었소.

뭐, 장담은 할 수 없소. 진짜 그런 행들이 커밍아웃 안하면 모르는 거니.

하지만 뭐 분위기에 휩쓸린 그런.. 레즈나 게이 흉내.. 내는 행들. 이런 행들은 없었다. 이말이오.

참고로 본좌는 아직 잘 모르겠소.

본좌가 바이인지. 그냥 이성애자인지.

■ 2005-06-29 (H) (P) 5)본좌는 공학공학공학 여대왔소

■ 2005-06-29 (H) (P) 본좌도 남녀공학이었는데 좋아하게 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소. 중학교때

■ 2005-06-29 (H) (P) 이어)그래서 본좌 대학교 공학을려고 발버둥 쳤소... 남자좀 좋아해보려고..

■ 2005-06-29 (H) (P) 본좌는 레즈로 태어난것 같소 아무리 생각해봐도

■ 2005-06-29 (H) (P) 본좌 여중->남여공학->여대. 남여공학에서도.. 여행 좋아했소 -_-; 여자 안 좋아하려고 갔던 남여공학이;; 오히려 본좌의 성정체성을 확고히해주었다 오;;

■ 2005-06-29 (H) (P) 아니오 본좌 여고에서 누가 나 좋다고 하고 본좌도 그게 싫지

않은 이후부터.. 본좌 자꾸 눈에 여자만 보이오;; 이러면안되는데 :::::

■ 2005-06-29 (H) (P) 그런 흉내내면 남행들이 열라 욕했다고하오.

■ 2005-06-29 (H) (P) 남녀공학이었지만. 레즈라오. ㅋㅋ;;

본좌가 말해주겠소!)

본좌는 남자 짝꿍 초등학교 -> 남자 짝꿍 중학교 -> 남녀공학 기독교 고등학교 나왔소. 특히 '기독교' '공학' 고등학교때 레즈 친구가 가장 많았다고. 행이 어떻게 아오? 분위기 위기에 휩쓸린 행들이든지 그러지 않은 행들이든지 레즈인 본좌도 중고등학교때 전교의 모든 레즈행들을 알아차린건 아니라고~

section 2) 정체화!

이런 종류의 글이 제일 흔하오. '레즈행들은 자신이 레즈란걸 어떻게 알게 되었소?' 이런거 말이오.. 아주 쉽게말해서 레즈비언으로의 정체화라는건 자신의 레즈비언임을 받아들이는거요. 요런 글들을 보면 본좌는 이렇게 묻고싶소. '이성애자행들은 행들이 이성애자라는걸 어떻게 알게되었소?' '이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이 있다고 자신이 이성애자인것 같소?'

아! 그리고.. 가끔 '본좌 레즈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오. 그런 행들에게 한마디 해주고싶소. 행이 그렇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행은 레즈인거요! 뭘 그리 무서워하오? 그냥 행의 감정에 충실하면되오. 처음엔 그게 약간 아리까리할 수도 있소. 왜냐? 우리는 이성애 중심적 사회에서 이성애 중심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매우 '생소' 한거요. 뭘 그런 감정은 배운적도없고; 주위에서 들어본적도 별로없고.. 그래서 그런거요. 행이 느끼는 바로 그대로의 감정을 따라가시오~

171 자신이 레즈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오?(7) 2006-03-25 408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때문에

자기가 여자를 좋아해도 호감인지, 이성처럼 좋아하는 건지 구분안갈 거 같은데..

아까 레즈행 있는 것 같아 질문하오..

어찌 알게 되셨소??

■ 2006-03-25 (H) (P) 본좌레즈(헬)들은 헬이 이성애자라는걸 어케 알게되오? 똑같소.

■ 2006-03-25 (H) (P) *) 세인은 정녕 절대미의 지존인 듯..ㅋㅋ

■ 2006-03-25 (H) (P) *) 음.. 그렇구로.. 본좌는 남행을 좋아해도.. 구분이 안가서.. 호감과..-_-:: 이성으로 좋아함이 구분이 안가..난해한 적이 많소. 아직 진짜 좋은 사람을 못만난건가.. 정으로 사귀는 타입인건가..

■ 2006-03-25 (H) (P) 헉 본좌는 좋아하는 친구 생각할때 암설레이는데 본좌 레즈요?--:-----

■ 2006-03-25 (H) (P) 그냥 감정을 부정하던 과정을 버렸소 그랬더니 명확해졌소

본좌가 말해주겠소!!

아 저기 본좌가 쓴게 있구라.. '본좌레즈' 이 본좌라오.! 위에 글과 비슷한 내용이 라 긴말 않겠소. 헬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걸 알았을때 세상이 반짝여 보이고 별이 막 보이오? 아니잖소~ 뭐 그런것이오. (동성애자라고 뭐 그렇게 특별한게 있는게 아니란말이오.) 똑같소. 점점 관심이가고 좋아지고 뭐 그런그런거라오.. (참 설명하기 난해하오. 헬들이 여자에게 빠져보시오. ㅋㅋ) 다만 그 상대가 알고보니 나와같은 여자 였단 거요. 뭐 본좌의 정체화 이야기를 듣고싶다면 이 자료집 어딘가에 본좌글이 있을것 이오... 본좌 이름으로 잘 찾아서 보시구라~

section 3) 기타~ (기독교, 변남?, 등등등..)

186 본좌 고민있소;~ 레즈나 바이들 좀 이리 와보시오 (패스)(5) 2006-06-03 113

본좌 기독교헬이오.

헬들도 아시다 시피 기독교에서는 동성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잖소?

본좌 모태신앙이라 기독교 교리가 몸에 베었다오

근데, 여자가 좋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소....

본좌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오??

서양에서 기독교 중에서도 동성간의 사랑을 인정하는 목사들도 있다고 하여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소만, 남들이 보기엔 이단일 수도 있는거고 ??

그리고 본좌 기독교헬이지만,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오..

그리고 성경의 교리 이렇게

남성우월주의와 사회통치를 쉽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리가 많다고 생각하긴 하오만....

이런말 댄 헬들에게는 사이비 이런걸로 취급받을 수도 있잖소 ??

낼 교회갈라고 하는데 가슴이 떨리오...

본좌가 죄짓는 것 같기도 하고.

절대 사랑을 사랑한다는게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겹쳐서 ??

헬들은 어떻게 극복하오??

■ 2006-06-03 (H) (P) ^^ 헬들 본좌 갑자기 눈물날라그러오 고맙소 ?????

■ 2006-06-03 (H) (P) 그런거에 죄의식을 갖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본좌는--: (2006-06-03)

■ 2006-06-03 (H) (P) 에.... 사랑하는데 그게 댜 죄요? 사랑하면 맘껏 사랑하시오. 그게 하느님, 예수님이 헬한테 바라는 걸거요. ^^ 화이팅~~ (2006-06-03)

■ 2006-06-03 (H) (P) 하느님도 원래 남녀가리지 않고 박애주의는 실천하는 헬아니 오? 괜찮소 죄의식 가지지 마시구라 (2006-06-03)

■ 2006-06-03 (H) (P) 본좌는 무교헬이자 레즈인 헬이온데.. 기독교의 본 뜻을 잘 지키는 헬이라면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부디 헬이 죄책감 느끼지 않기를 기원하겠소.. (2006-06-03)

본좌가 말해주겠소!!

일단, 기독교와 동성애는 끝없는 싸움아닌 싸움인것 같소.

성경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자면, 정말로 그야말로 명백한 중죄이오. 레위기에서는 "너는 여자와 교합 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라고 써있소. 뭐 로마서에도 이런게있고 여기저기 꽤나 동성애가 엄청난 죄라 써있는 구절이있소. 하지만 본좌의 생각을 이러하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비난이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 맥락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소. 왜냐면 그 당시는 현재보다 동성애가 흔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성애적 관점으로 동성애는 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표현했을 거라 생각하오.

아 그리고말이오. 본좌는 기독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미션스쿨에 다녔었소. 기독교학교

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것은 그의 교육이념에 맞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오. 하지만, 한 사람의 성정체성을 이성애로 강요하는건 너무 한쪽(다수. 그러니까 이성애)로 치우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오. 그제 과연 기독교이기전에 교육이라 할 수 있겠나 싶소. 그건 한 인간에 대한 인권침해라 생각하오. 교육은 인권존중과 평등, 소수존중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오. 기독교 정신만을 강요하기 전에 기독교적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 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오. '기독교' 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라오. 교육이란 다수의 생각을 무지한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그것만이 옳은 것 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자신이 결론 내릴 수 있게 하는 도움이 역할이라 생각하오.

아.... 본좌의 코멘트가 길어지고있소.. 하지만 계속할라오:~

그리고말이오, 분명히 기독교인이면서 레즈비언인.. 레즈비언이면서 기독교인행들이 있단말이오. 뭐 그행들에 대한 인터뷰는 이 자료집에 있소. 본좌는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소.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하여 심각히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고 말이오. 기독교행들은 한결같이 말했소.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그렇소 그말은 맞소. 하지만,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말라. 면이나 양모로 된 옷을 입지말라 한것은 어떻게 설명할거요? 기독교행들은 이렇게 대답했소.. 그건 시대가 변해오면서 바뀐거라고. 성격이 기독교되었을 때의 생활과 문화는 지금과는 다르다고.. 그걸 생각해야한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되물고싶소. 본좌네가 지금 이렇게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현재는 어떻게 볼거냐고. 우리가 인권운동을 하는것은 행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나 면이나 양모로 된 옷을 입는 것 보다 간과 할 수 있는 그런일이냐고 되물고싶소..

168 화연이들..레즈 생각보다 많지라?(6) 2006-03-16 347

본좌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없을줄 알았소

(본좌 여중여고여대 라인이오:)

본좌 솔직히 레즈 이해는 안되지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오

뭐 개인마다 다르니깐..

근데 대학교와서 놀랐던게 동방도 있고 짹 짹 놀랐소:

- _-;; 이 동방에 가면

'어? 너도?' 이런다고 하던데 진짜요?ㅋㅋㅋ

■ 2006-03-18 (H) (P) 동방아님. 자치단위임.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임. 레즈비언이라고 아무나 오는데가아님. 연애단체아님.

■ 2006-03-18 (H) (P) 예전 이화레즈모임 가입자수가 200명이 넘었었지라..-.-

■ 2006-03-18 (H) (P) 헬~ 흥미롭게만 보는 곳이 아니라고 거긴...

■ 2006-03-18 (H) (P) 1) 자치단위의 활동 공간이오. 그리고 변날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이오.. 친목 도모 모임 아니오.

■ 2006-03-18 (H) (P) *)근데 동방있던데 그건 뭐요? ㅎㅎㅎ

■ 2006-03-18 (H) (P) 동방 아니라고~ 자치단위라고.. 동아리가 아니오. 그러고 "어 너도?" 이런건 본좌는 모르겠소, 본좌는 안그랬었으니까~

본좌가 말해주겠소!)

일단말이오... 본좌넌 동아리가 절대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자.. 학생수첩을 꺼내보시오.. 주소록 페이지를 펴보시오. 앞으로 3장을 넘겨보시오. 자 '동아리 및 자치단위 전화번호' 페이지가 보이시오? 그 페이지 아래를 보시오. 자치단위라고 하여 6개 단위 나와있는것이 보이시오? 그중 이름이 가장 긴~ 단위가있다고. 바로 변태소녀하늘을 날다이오. 동아리가 아니라 자치단위라고 자치단위! 동아리는 말그대로 취미나 고런게 같아서 또는 비슷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오. 아니 본좌네가 동아리라면, 레즈가 취미나 공통관심대상이오???????????????????? 이화에는 많은 레즈가있지만 그들 모두가 변날인건 아니라고. 본좌 추측으론 그의 100분의 1정도도 안될거요. 본좌네는.. 그러니까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이화레즈비언행들중에 '인권운동' 을 하고 고른 행들의 모임이란말이오~

164 아까 돌이대는 여헬 글쓴행인데...(레즈pass) 2006-02-09 104

그헬 레즈갈소?

만약 그헬 레즈면 본좌 어떡하오?

~~~~~

**본좌가 말해주겠소!)**

본좌가 리플방지위원회가 되었구라..\* 아니 헬에게 돌이대는 행이 레즈건 레즈가 아닌건 그게 뭘상관이오? 헬도 그헬이 좋으면 사귀고 뭐 그런거 아니겠소? 레즈공포증은 이제그만~

163 근데 게이 친구는 선호의 대상이지만, 레즈 친구는(17) 2006-02-01 513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소. 보면, 그 많은 시트콤 중에  
수많은 게이 친구는 있지만 레즈 친구는 없지 않소?  
본좌 요새 왜미니즘 공부하다가 느낀 거라오.

■ 2006-02-01 (H) (P) 게이친구 가지고 싶어하는 거 다 이성애자 여성들의 환상이  
오. 게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오. 여자인 친구가 몇하러 필요하겠소?

■ 2006-02-01 (H) (P) 게이는 남자라 그런거 아니오? 남자들이 성욕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게이가 커밍아웃하는것도 난 남자가 좋다고 하는것도 어느정도? 자  
연스럽지만 여자가 성욕을 드러내는것 자체가 부자연 스러운데다가 여자가 좋다고 하면  
완전 부담-\_-::

■ 2006-02-01 (H) (P) 게이들은 성향이 개방적인데, 레즈들은 배타적이란 말을 들  
은 적이 있소. 게이바의 게이들은 눈물 많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런데 레즈바같은 데 한  
번 잘 못 들어가면 그 거부포스가 무시무시했다고. 레즈들이 살기 더 힘든 세상인가  
보죠

■ 2006-02-01 (H) (P) 엘워드드는 그냥 레즈들 나오는 시트콤이고 그냥 일반 드라마  
나 시트콤에서 게이친구는 좋은 친구로 많이 나오지만 레즈는 안 그럴잖소.. 22

■ 2006-02-01 (H) (P) 엘워드드는 그냥 레즈들 나오는 시트콤이고 그냥 일반 드라마  
나 시트콤에서 게이친구는 좋은 친구로 많이 나오지만 레즈는 안 그럴잖소..

■ 2006-02-01 (H) (P) 레즈친구는 친해지면 감정을 쌓아갈수 있더라.. 앤지 "친구가  
당신에게 커밍아웃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도 취향이 있습니다." 라던 변날의  
포꼬만 자보가 떠오르는구려 ㅎㅎ

■ 2006-02-01 (H) (P) 그러고보니 엘워드 시작하는 것 같소 ~~ 세인의 매력이 편  
견을 깨부실거라고 보오 ♡

■ 2006-02-01 (H) (P) @)그건 안 봐서 모르겠소.

■ 2006-02-01 (H) (P) 2) 아니오. 엘워드라는 시트콤이 있소. 완전 유명하오..

■ 2006-02-01 (H) (P) @)아니, 그런 거 여부를 떠나, 시트콤에 아예 나오지도 않  
소. 나와도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 2006-02-01 (H) (P) 레즈친구는 친해지면 그행이 오히려 감정을 쌓아갈수도 있는  
것이니...게이친구는 그런 감정의 영려가 없기에 많이 등장하는것아니겠소?

■ 2006-02-01 (H) (P) 게이는 여자의 친구가 될수 있지만 레즈는 여자와 남자 모  
두에게 친구가 될수없기 때문?---이것도 만들어진 이미지인것이오 흠

■ 2006-02-01 (H) (P) 그런것같소..게이는고급?이미지지만 레즈는 퇴폐적이미지로  
그러지오 왜그런것인지 안타깝소.

■ 2006-02-01 (H) (P) 여자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반대로보면 남행들에게는 편한 대  
상이 될수있지 않겠소?

■ 2006-02-01 (H) (P) 엘워드~

■ 2006-02-01 (H) (P) 그러고보니 그럴구려

본좌가 말해주겠소!)

아 일단.. 2행~ 엘워드드가 아니라 엘 '워' 드라오.. The L Word라오~ 그리고, 5행! 게이  
는 고급이미지고 레즈는 퇴폐적 이미지라니.. 본좌 너무 마음아프오.. 그렇게 아니란  
말이오~ 그리고 14행! 게이는 개방적이고 레즈는 폐쇄적이다? 음 본좌가 변날활동하면서  
느낀바로는 게이행들이 더 폐쇄적이었소. 그행들은 그들의 문화만 받아들이려 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행! 행의 가장 친한 친구가 레즈일 수도 있소~  
행 수업들을때 바로 옆자리가 레즈행일수도있소~ 본좌는 이화에 레즈친구행들보다 이성  
애자친구행들이 더 많소~

56 레즈인 행이 본좌 앞에서 아닌척 하오 이거 대체 뭐요::(20) 2005-06-15 340

그 행이 레즈인건 고등학교때부터 유명했고  
본좌도 이미 주변친구들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건만  
이 행이 본좌앞에서는 아닌척을 하오:::  
상당히 난감하오  
이거 어찌 해석해야하는 시츄에이션이오??  
본좌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소::

■ 2005-06-15 (H) (P) 아래아래아래행은... 말하는 뽀새를 보니 호모포비아구려.

■ 2005-06-15 (H) (P) 요아래레즈행)아래아래행! 가치관이바뀌다니???? 동성애는  
성적 가치관이 아닌 성적 정체성이오!

■ 2005-06-15 (H) (P) 요아래레즈행)바로아래행! 본좌도 아직 그말 못들어봤다오.  
ㅠㅠㅠㅠ 본좌 친구가 들어봤다오ㅠㅠ 흑.

■ 2005-06-15 (H) (P) 새 삶을 살고 싶은가보죠. 그냥 가치관이 바뀌었나보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오?

■ 2005-06-15 (H) (P) 본좌한테도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해주는 친구있었으면 좋  
겠소..

■ 2005-06-15 (H) (P) 오 좋은것 배웠소 본좌도 고맙소

■ 2005-06-15 (H) (P) 요아래레즈행이오) 숨기기는 정말정말 힘이드오나, 그걸 캐  
묻지 마시구려. 그리고 나중엔 커밍하게되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한마디 해주시  
구려. 그럼 감동이오.

■ 2005-06-15 (H) (P) 요아래레즈헬이오) 헬들.. 마음을 못 열고 열고가 커밍아웃 할수있는 관건이 아니라고. 본좌는 가장친한 친구한테 아직도 말하지 못했다고. 친할수록 그 친구를 잃게 될까봐 커밍하기 어려운것이라고.. 친하지 않다거나 마음을 못 연다고 생각치 마시구라.

■ 2005-06-15 (H) (P) \*고맙소^^

■ 2005-06-15 (H) (P) \*그 헬이 영 불편해보이오 본좌한테 마음을 못 여는 것일 수도 있겠구라...

■ 2005-06-15 (H) (P) 본좌 레즈헬이오.) 먼저 아는척하지마시오. 그리고 그걸 꽤 씹하다 생각하지도 마시오. 아웃팅은 범죄이오. 또한, 헬이 먼저 아는척하면 레즈헬 입장으로 실을수도 있소. 커밍아웃은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려운것이고 친할수록 어려운것이라고.....

■ 2005-06-15 (H) (P) 아는 척 하고 싶으시오?::

■ 2005-06-15 (H) (P) 4헬에게 올인

■ 2005-06-15 (H) (P) 이거 웬 시츄에이션~ 강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모르는 척 하시구라~

■ 2005-06-15 (H) (P) 더 친해져 보시오

■ 2005-06-15 (H) (P) 헬하고 오래만나거나 그닥 가까워질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 해서 그냥 아닌척 하는 거 아니오?

■ 2005-06-15 (H) (P) 그런 것 같소:: 헬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소

■ 2005-06-15 (H) (P) 아직 마음을 못 여나 보오~..

■ 2005-06-15 (H) (P) 헬도 그냥 모르는척 넘어가주시오

■ 2005-06-15 (H) (P) 혹시 헬을 좋아하는?:

#### 본좌가 말해주겠소!!

본좌가 쓴 리플이 보이는구라.. 아마도(잘기억은 안나지만) '본좌 레즈헬이오.)' 이 게 본좌인것 같소..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밍아웃을 한다는건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하는것이오. 절대 미리 아는척하지마시오. 헬이 먼저 아는척한다면 그제바로 아웃팅이라고!

#### 110 궁금한 게 있소 (레즈 패쓰)(13) 2005-09-27 207

레즈헬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때 그 상대헬이 레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오?

그러니까.. 레즈도 커플이 있을 것이지 않소 어떻게 알아보고 사귀게 되는 것이오?

정녕 레즈 커뮤니티에서 만난 커플 알고는 없소?

본좌 짝사랑 하는 헬이 있는데( 여자 좋아하는건 이번이 처음이오^^)

그헬은 본좌의 얼굴만 아는정도?

그냥 첫눈에 반했었소. 머리에서 맑은 터지듯 평하는 걸 느꼈었다고.

한번도 여자좋아해본적 없으나 내 감정이 원지 정확히 알수 있었소

그런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슬프오 ^^

■ 2005-09-27 (H) (P) 5헬)순행 힘내시오-전혀 친해질 기회가 없다면 좀 힘들수도 있겠구라..그래도 그 여헬이 정말 좋다면 계속 잘 지내도록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해보시오!

■ 2005-09-27 (H) (P) ㅅ 5헬 고맙소 ^^ 그러나 친해진 방법이 전~혀 없단오 ^^ 동아리는 원지 알고 있으나, 본좌가 들수는 없는 곳이오(여러사정으로;) 하아..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줘서 고맙소..^^

■ 2005-09-27 (H) (P) 5헬)그 헬의 동아리라던가...내지는 친해질 방법이 전혀 없소?

■ 2005-09-27 (H) (P) 5헬)음...안타깝구려,친해질 기회가 그럼 많이 있지 않소?여 헬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크게 거부감 없다면 잘 발전될수있소.."여자를 좋아하는게 아니라 너를 좋아하는거야.."라고 생각들 많이한단오..스트레이트여헬들이 이반헬들 사귀때...그 헬과 친구 이상의 묘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다면 연애 발전 가능성은 있소

■ 2005-09-27 (H) (P) ㅅ 5헬^^ 본좌 그분과 나이는 같으나 학번도 다르고 전공이 심히 다르단오 ^^ 싸이 알아낸게 전부라용 ^^

■ 2005-09-27 (H) (P) 5헬)스트레이트 인 거 알았으나 본좌가 워낙에 친하게 지내면서 스킨쉽도 자주 하고 그래서 상대도 본좌에게 연애감정 싹텸단오-자주 만나고 진지한 얘기도 자주 하고 같이 손잡고 걸기도 많이 하고..그랬단오

■ 2005-09-27 (H) (P) 5헬)헬, 그렇다면 그 헬과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오-밥을 같이 먹는대거나 수업을 옆자리에서 듣는다거나 하면서, 그리고 옆자리에 앉을 경우 캔 커피를 두 개 사서 그 헬에게도 주고..친구 줄려고 했는데 친구가 안와서요-라던가 워 그런 식으로 같이 좀 친하게 지내시오!

■ 2005-09-27 (H) (P) 5헬) 스트레이트인거 알면서도 고백하셨었소?

■ 2005-09-27 (H) (P) 눈치가 생명이오ㅅㅅ 본좌 첫사랑은 스트레이트였으나 본좌랑 잘 사귀었다오-나중에 헤어지긴 했지만..

■ 2005-09-27 (H) (P) 음.. 본좌의 경우 남자건 여자건 가르느 게 원래부터 개념화되었지 않아서 레즈헬이 다가와서 사귀게 되었소. 첫눈에 반했다면.. 음.. 어쩌나..

■ 2005-09-27 (H) (P) 레즈인지 아닌지 감이 오는 헬도 있으나, 100%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살피오;

■ 2005-09-27 (H) (P) 경우에 따라선 일반헬이 이반헬이 될수도 있소. 하지만 그

아하는 헬이 스트레이트면 참으로 난감하겠지라:

■ 2005-09-27 (H) (P) 느낌이라는게 있다고 하더오. 본좌게이친구왈(남자) 게이인지 아닌지 다 알겠다고 하더오 본좌 레즈친구들 역시 마찬가지..

#### 본좌가 말해주겠소!!

상대가 레즈행이건 아니건 원상관이오? 그냥 사랑하는거요~ 본좌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본좌의 첫 애인과(이 행 사귀면서 본좌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했소) 세 번째 애인은 이성애자였소. 사랑은 평범하!

2924129 저는 변날이라는 단체에 거부감이 듭니다 [IP확인] 2006-08-29 326

동성애가 거부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L 친구들 많고

스스로를 L이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완곡한 표현을 쓰자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하오데.

변날이 보호받고자 하는 극도의 익명성에 악감은 의구심이 듭니다.

레즈비언인권운동 하는 일이 어렵고 위험한 것은 알지만

저렇게 익명성을 강하게 보호받으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변날 분들 수고하십니다

■ New (H) (P) 밑에 밑에 화연분. 기독교에서 벗어난 사이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속해있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그게 없는 일 지어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을 겪는 당사자의 입장은 생각해보셨습니까?

■ 2006-08-29 (H) (P) \* 변날이 어느 정도 그 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한 것입니다. 변날인들만으로 힘들다면 지지하고자 하는 헬들의 도움도 얻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 2006-08-29 (H) (P) 아래 화연. 몇 번이나 리플 달았는데 무시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독교에서 벗어난 사이비 같습니다. 동방 앞에 성수를 뿌리고 신나를 뿌리다니 - -;; 좀 사람 말을 들어주십시오.

■ 2006-08-29 (H) (P) 글쓴분이 리플에 쓴 변날 아닌 사람들에게 향하는 배타심, 본좌도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피곤 사람입니다. 저도 L이지만 그래서 변날 솔직히 싫어합니다.

■ 2006-08-29 (H) (P) \* 그런 것 때문에 변날에 관심있고 지지하는 (본좌같은?) 헬들이 서운할까? .... 그런게지요

■ 2006-08-29 (H) (P) 사회적인 목숨은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동방 앞에 성수 뿌려두고 악의 화신이라면서 신나같은 것도 뿌려진 적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주 동방 앞에 와서 회개하라고 기도드리고 가고 노래부르고 가는 기독교인들 있다 합니다:: 이정도면 보호받을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2006-08-29 (H) (P) \* 이해하지만 변날이 변날 아닌 사람들(L이든 스트레이트이든)에 향하는 배타심? 경계심? 그런 게 좀 보기 안 좋습니다 너무 날서 있는 거 같아서

■ 2006-08-29 (x) (H) (P) 변날행) 하지만 정말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안하면 누가 하나요.

■ 2006-08-29 (x) (H) (P) 변날행) 솔직히, 부분적인 커밍아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변날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문화제때도 그래서 힘든점이 없지 않아 있구요.

■ 2006-08-29 (H) (P) 솔직히 레즈비언으로 드러나면.... 홍석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오. 정말 상상할 수 없을만큼의 편견이 그들을 강타하오.

■ 2006-08-29 (H) (P) 실제로 변날 헬들이 일반 화연에게 드러났을때 생기는 문제들 많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워낙에 남매기를 좋아하니까 알입니다. 그나마 변날이라는 단체가 있음으로써 성적소수애자들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 2006-08-29 (H) (P) 보호받지 않으면 그 헬들은 거짓말 좀 섞어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33333

■ 2006-08-29 (H) (P) 보호받지 않으면 그 헬들은 거짓말 좀 섞어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222

■ 2006-08-29 (H) (P) 보호받지 않으면 그 헬들은 거짓말 좀 섞어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2006-08-29 (H) (P)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좁은 사회에서, 특히 여성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정말 치명타이지요. 이해합니다

#### 본좌가 말해주겠소!!

아직까지 행(이성애 중심적 사회 포함)들이 본좌들을 보는 눈이 아직은 배타적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되오. 작년 문화제때 새벽에 자보 찢기고 정말 조용한 학교에서 그거 테이프로 미친듯이 불이고있었는데.. 정말 2행 말대로 목숨의 위협이 느껴졌소. 저 위에 변날 헬들이 잘 말해주고있소. 대 사회적인 커밍아웃을 하지 '못' 했다고. 배타적

인거나 경계심을 가진건 아니라 생각하오. 이 사회는 아직 본좌네들이 레즈비언으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만큼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오. 아직 이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꽤나 많이 남아있고 뭐 그래서 본좌네는 익명으로 활동을 해야하는거요.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시오. 행들이 동성애자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나는 레즈비언 이오.' 이러면서 활동할 수 있겠소?

본좌가 리플 하나하나마다, 쓴행의 글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리플을 달고 싶었소. 하지만 그러면 글이 너무길어질까봐 그러지 못하였소. 동성애자를 이해한다는 또는 지지(?)하는 행들의 리플이나 글에도 충분히 호모포비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소. 그건 동성애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라 생각되오. 화연이들! 이번 문화제를 통해 동성애에 좀 더 바른시선으로 다가가길 바라오.

레즈행은 화연죽순이라오! 오늘밤도 화연에서 만나는건 어떨소?

## 퀴어 퍼레이드에 관한 몇가지 많은 고찰

by 아랑

종로에 무지개가 떴다.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다양한 퀴어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을 무렵, 일상을 벗어던지고 한껏 숨어있던 끼를 발휘하며 퍼레이드에 나선 것이다. 6월 5일, 종로4가에서는 종묘공원-종로타워-시티은행주차장까지 걸쳐서 다양한 컨셉의 참가자들이 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대형 레인보우 깃발과 퍼레이드 차량, 다양한 부스행사와 퍼포먼스 전시까지... 축하무대까지도 열어 그야말로 늦여름을 화사한 색깔로 물들였다. 이번 퍼레이드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즉, 퀴어절정의 여러 퀴어행사중 한단편으로써, 행사 참여자중 한 명이 가상으로 인터뷰를 가져본다.

### 축제의 새미리-연혁, 주의사항, 내용등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했다. 매년 행사를 치를 때마다 퀴어축제가 꾸준히 변창하여 이제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게 된 것 같다. 참여자로서 감회가 남다르겠다.

-고맙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퀴어축제는 그 역사가 짧지만, 이번행사는 더욱이 어느때보다 즐겁고 성공적인 행사였지 싶다. 누군가 처음 우리도 우리만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겠다며 축제를 제안했던 것이, 조직위원회같은 상설기관을 탄생시켰고.. 지금도 여러 동성애단체들의 후원 및 참여를 받아 꾸준히 행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2000년도- 그러니까 행사의 초창기때 인력이나 경험등 많은 면에서 고전했던 것에 비해 어느덧 지금처럼 각지의 다양한 퀴어들을 포용할 수 있게 성장해 온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행사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와 관련한 강연회, 영화상영, 그리고 축제의 꽃 퍼레이드를 하고, 화려한 뒷풀이도 빼 놓을 수 없는 축제의 일부이다. 당신이야말로 기사에 넣을 사진하나 찍느라 몸소 프레스기자회견까지 참석하고... 아무튼 서로 수고했다.

-허허. 그렇게 사진에 예민한 축제들도 또 없을 것이다.

심지어 그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허락받은 몇 안되는 기자들도 찍혀진 사진에 참여자가 빨간 리본을 얼굴부위나 손 등에 매고 있었다면 삭제해야 하나..

기껏 찍어 결국에는 그다지 쓸만한 것도 없더라-\_-.

여튼, 우리 입장에선 좀 불편하긴 해도 아웃팅 방지 차원에서 그건 이제 다함께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행사의 주최자인 당신, 퀴어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먼저 퀴어라는 단어는, 성적 다수인 이성애자의 시각에서 볼때 이상하고 괴이한 것이라는 뜻을 어원으로 갖았으나, 지금은 성적소수자들을 지칭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 이상의 긍정적 뉘앙스로 변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것이 퀴어의 메인. 그러나 퀴어가 아니라 해서 실망할 것 없다. 당신같은 이성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축제를 지지하며, 함께 즐기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성에 대한 즐거운 소통, 이성애 중심주의 그 차별의 벽을 허물고 다양성과 자연스러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퀴어축제의 의의 아니겠는가. 이번 퍼레이드를 보았는가. 소감이 어떤가.

-음, 이번행사에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었고 작년 종로 퍼레이드를 할 적에 가 보았다. 트럭 같은데 올라가 쇼를 하는 여러 게이들과 레즈비언, 특히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바지에 물안경 쓰고 음악에 맞추어 율동했던 게이 수영모임이 생각난다. 덕분에 홍석천의 연설도 듣고.. 축하공연은 뭐 그리 많던지. 정치인의 지지연설과, 또 덕분에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씨의 파워풀한 노래도 듣고...

개인적으로 드랙퀸인가? 그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자신만만한 웃음으로 거리행진을 하는 여장 남자들이 인상적이더라. 그런데 매년 규모만 조금씩 커질뿐, 대개 비슷한 코스로 간다고 들었다. 왜 똑같은 축제를 네 번씩이나 여는가.

#### 퍼레이드 편견-참가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 우리는 전체적인 축제의 틀을 잡을 뿐, 행사의 세부내용과 길은 참여자의 몫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처한 현실을 하나라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질문은 안 나올 것이다. 외부세계와 소통할 최소한의 빛 하나 없이 답답한 벽장 안에서, 자기혼란에 갇혀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적이 있는가. 그곳에서 나와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거리로 나가 내 모습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지지와 희망의 시선들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설령 자신은 몸소 참여하여 걸기까진 못하는 소심한 퀴어일지라도 그 행진대열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해방감과 자긍심을 느꼈다는 감동의 글들이, 매 축제가 끝나기만 하면 게시판에 쏠린다. 아직 사회와 스스로의 벽을 깨지 못한채 퀴어들이 많기에, 그러기에 힘들더라도 내년에도 이행사를 준비케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 싶다. 우리의 주된 소재는 몸 그 자체이므로, 최대한 신체를 이용하여 기발하고 비.쥬.얼. 하게 말이다.

#### 퍼레이드 편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래, 그 비쥬얼에 대해서 말이 많다.

내가 알기로, 그런 취지에서라면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에 대한 포비아와 사회의 그릇된 편견을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 따라서 대개의 운동의 성격은 당신네들도 성적 다수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을 강조하는쪽으로 흘러야 하는게 아닌가. 그러나 이처럼 퍼레이드에서 보여지는 당신네들의 모습들은 편견의 일소를 위해 강조해야 할 일상적인 모습들과는 많이 다를뿐더러, 심지어 몸과 성의 언어로 과장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 한다. 솔직히 나도 드랙퀸이나 나체쇼에 흡사한 게이 퍼레이드를 처음 보았을때, 사회적으로 신선하다 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윤리적으로)쇼킹했다. 그렇게 비쳐지는 모습이 호모포비아를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겐 '역시 퀴어=퇴폐적'이라는 편견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기만 할뿐 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았다.

-음?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 정장이나 교복, 츄리닝이나 평상시에 입는 옷들을 입고, 그저 평범하게 거리를 걷는다면 편이 많이 구경오겠단다. 아니 퀴어인줄이나 알까? 농담이고..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편견 아닌 편견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없던 건 아니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커뮤니티에 한 회원이 썼던 글이 생각난다.  
이미 이성애자들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서, 5% 미만인 동성애자들은 변태라는 집데기를 벗는 것은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이제 어느 국가에서도 그런 식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동성애자 운동이 진행되는 나라는 없으며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동성애자 사회 내에서의 분열'을 조장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끼도 떨지 않고, 남자답고, 찜질방에도 가지 않고, 번색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않고, 여장도 하지 않는 평범하고 건전한 게이'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많은 동성애자들, 끼떠는 동성애자, 여성스러운 동성애자, 번색하는 동성애자, 찜질방가는 동성애자, 화장하는 동성애자, 여장도 하는 동성애자를 소외시키고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조차 여전히 소외당하고 공격당하고 억압당하는 억압의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그런 동성애자 운동은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뭐 사실 우리 모습 그대로가 뭐 특별하게 이성애자들과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으니 말이다. 알게 모르게 '전전한 게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게이커뮤니티는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된다. 그건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서구 게이 운동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이것은 영화나 학술제, 길거리 행진 혹은 무엇이 되든간에 퍼레이드이다. 퍼레이드에서 드러나는건 비주얼 일색,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다양하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것,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것 이라고 단언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에 관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오히려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뻣뻣한 사고에 유연함을 칠해 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퍼레이드 편견- 레즈비언 in 게이퍼레이드?

-잘 들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다. 퍼레이드에서의 게이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장을 함으로 인해, 또다른 의미에서 사회에서 강요하는 여성성 남성성을 비웃는데도 일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레즈비언 분들은 행사 때 드물게 보이는가. 그것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얼굴과 몸동을 가리고 조그맣게 걷는 정도의 소규모 인원인데,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드러내는 드랙퀸들에 너무 비교된다.

-그러게.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나도 그게 항상 은근히 불만이다.

물론 게이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퀴어 퍼레이드 내에서도 레즈비언이 소외된다는니, 뭐 참여가 저조하다는니 하는 식의 단언을 하기에 앞서 넓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쩌면 퀴어사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고민해 봐야할 문제일 수도 있으니. 나는 아무래도 이 사회가 아직은 가부장적 사회이다 보니 여성의 신체나 성향을 갖고 자유롭게 표시할 줄 아는 참양이 덜 키워지게 하는 것 같다고나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니 사적인 놀이와 공적인 정치를 애써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놀이문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수도 있으니 말이다.

#### 한국의 퀴어축제

-음. 다소 동의한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퀴어축제를 외국에 비추어 간략하게 조명해 주면서 마치 주었으면 좋겠다

-연혁을 나열하라고? 귀찮다.

-그동안 그닥 시원찮은 답변만 한 주제에 말이 많다. 그저 관례상 짧게 몇줄이면 된다. 이를테면 한국 퀴어축제의 현주소라든지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

-기왕 사회 이야기로 일관한 김에 계속 그 주제로 나아가보자.

성적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으며, 또 다양성을 포용할 만큼 성숙해있는지..그것은 각 나라의 동성애자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미국에서는 퀴어 퍼레이드를 열었다 하기만 하면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는 G바,L바 등 퀴어 관련업종들의 선전장이 되어 퍼레이드 자체의 상업성 논란까지 나올 정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반면 아직 예루살렘처럼 교황청에서 대놓고 "참 역겹다"고 박해하는 나라도 있으니 말이다. 그에 비하면 한국 축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것 같다. 흥에 취해 종로를 행진하다보면 그저 우연히 멋모르고 거기 앉아 쉬시면서 조용히 산책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휘둥그런 시선으로 회안한 사람들 보듯이 쳐다보시기도 하고, 아무리 축제라는 형식을 빌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것은 마이너리티의 소통공간이라는 의의를 가지는데... 당신네 기자들은 신문의 한면이나 케이블 티비에도 잘 실어주지조차 않고..(웃음)

그래 뭐. 거창하게 인권운동이니 사회적 편견 일소니 하는 것도, 축제때 한번 날잡고 신나게 즐기는 것도, 다 좋다. 그저 현실적으로 동성연인들을 위한 입법화나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누가 바램까지 말하라고 하였나  
인터뷰에 협조해 줘서 고맙다.

그간 외부에서만 보던 퀴어 퍼레이드를 조금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 주어 내게도 고마운 시간이었다.

다가오는 2006년에는 이런 딱딱한 자리 말고 종로거리에서 만나자.  
하다못해 직접 행진은 못할지라도 거리에서 응원할테니.

#### 함께해요

-좋다. 그때쯤이면 당신의 새로운 동성연인도 데려와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바람이 제법 쌀쌀해지는걸 보니 이제 9월이구나. 이미 기획단 모집이 시작되었다.  
당신의 열정과 변칙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리겠다.  
그간 모두들 종로에서 볼 때까지 모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길

## About 레즈비언 결혼과 양육권의 삶

By Dal

제도적인 차원이나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쓰라면 머리가 무지한 탓에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함에 그냥 쓴다.

결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은 고아가 될 지도 모르고, 한 여성 그리고 한 남성에게 딸린 자식들은 수 없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을지도...

난 뭐 그렇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결혼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다. 나와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내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따뜻한 공간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검은머리가 팔뚝리가 될 때까지 티격태격하며 싸우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며 살고 싶을 뿐이다. 나에게 결혼은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부부들이 정부에서 받는 혜택들을 우리도 누리길 싶은 것이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우리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By LEAO

뭐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거고 인구감소에 뭐 지장이 있다는 등 하여튼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pass!

결혼? 아.. 무슨 말을 써야할까. 결혼이라..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아주 아주 헤어지기 힘들도록 두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이혼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혼도 결혼만큼 쉬운게 아니잖아?)

그냥 나의 경험상으로는 그래. 아무리 동성애자들이 지인들을 불러모아놓고 결혼을 한 다해도 그건 솔직히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굳은 약속에 불과하니까 헤어지기도 쉬운 거 같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도 못 받고.. 예를 들면 의료보험 혜택 정도? 아 그리고 내

가 어딘가에 취직했는데 내 애인네 가정에 경조사가 났다고 쳐봐, 내가 꼭 참석해야하고 뭐 그런 자리라면 난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하지? 그리고 뭔가 입양 문제도 있고.. (만약 애를 키우고 싶다면 말아야..)

뭐 그래서 난 결혼은 필요한거 같아. 서로를 좀더 결속력 있게 묶어줄 수 있고, 서로에게 좀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사회보장혜택을 받기위해서 말이지!

By Dykablue

사실 말하자면 결혼은 제도 아닌 자유다.

결혼할만한 사람이 생겨서 결혼 하고 싶어진다면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생겨도 결혼은 싫다면 안하면 그 뿐인 것이다.

(상황에 따라 결혼이 의무가 되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허나, 이것은 나 같은 동성애자는 제외한 이성애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자유 아닌 제도가 되어버린다.

평등과 자유 개인의 권리가 점점 중시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누구에겐 당연히 되고, 누구에겐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결함이라도 지니진 않았나.. 하고 보는 이상한 시선이 많지만, 결혼은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방법일 뿐이다.

결혼을 하건 말건, 독신으로 살건 말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건 말건 이건 내가 한식을 먹을지, 일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 같은 일종의 취향 문제인 것이다.

(아, 당연히 이것보다는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복잡성을 띄지만 그냥 쉽게..)

허나, 결혼은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혼을 하나 안하나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써, 자유나 취향을 떠나서 엄연히 존중과 권리의 문제이다. 똑같이 세금내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우리 동성애자들에게, 결혼과 부부로서의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다니 거참.. 지금의 현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연한 차별이자 불평등이다.

아직도 동성애자 결혼 문제만 거론되면 수간, 강간 등 타인의 의지를 구속하고 침범하는 성적 일탈과 동성애를 구분 못해서 어버버 거리는 단세포적 편견이 사람들 머릿속에 꼭꼭 들어앉아 괴상망측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어 논의조차 잘 안되는 것이 현실. 게다가 심지어 동성애자들 중 일부는 동성간 결혼이 섹슈얼리티 해방에 족쇄를 채우는 또 다른 반동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니..

이 무식한 사람들아... 동성애자 결혼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단지 우리의 권리만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은 아니라는 것. 그놈의 망할 국익을 위해서는 자국민 뿐 아니라 타국인들을 살해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동성애의 '동'자만 나와도 벌벌 기며 종족 번식과 인구 팽창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는 이 아햏햏스러운 도덕 체계를 재 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 동성애자들의 결혼 논쟁은 반드시 치러져야 할 논의이며, 삼각 구도의 이성애적 가족 외에도 다양한 삶을 아우를 수 있는 많은 대안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데에도 효과적인 지침이 될 것 이기 때문인 것을. 대체 와 모르노와.

물론! 난 동성애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편협한 이성애자서부터 같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2mm 깊이로 밖에 생각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 흥분좀 했다.. 위위.....

By 549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  
사실 이런 생각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다.

흠..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겠지.  
이성애자들만 결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울분을 토해내고 싶고 화도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다.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堂堂하게 여러 사람들의 축복아래서 결혼식을 하고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아마도.. 그럴 수는 없겠지 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에서 나는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이성애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레즈비언 결혼, 1/1000 의 확률로 (임의로 생각해봤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적에도 올릴 수 없으며,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다.  
'부부'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이성애중심적인 단어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다.  
심지어 우리는 자식을 입양하거나 하는 일들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  
여튼 간에 머리 복잡하다..

"너희는 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결혼을 꿈꾸지도 말아라.."  
도대체 무엇이 정상적이고 도대체 무엇이 비정상적이란 말인가.  
답답한 현실이다.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건 비난의 눈초리와 입에 담기조차 싫은 욕지거리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사랑을 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인정받아야堂堂하게 살고 싶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거 인정받을 필요 있어? 결혼이란 제도 따위 버리고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글쎄다 ..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불편함 들은 우릴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평생을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에게  
멋모르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남자와의 결혼을 강요할 것이며, 평생을 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마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들.

누가 누굴 인정하고 누가 누굴 인정하지 못하는 이따위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가 당신과 뭐가 다르기에 이런 차별을 받고 살아야하지?

By LK

a. G와의 결혼 - 나이는 되에도 어느 정도 의지가 될 수 있고, 원치 않는 성관계도 갖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파트너에 따라 L, G임이 쉽게 드러날 수도 있고, 서로 간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이성애에 대한 포비아라도 있을 경우 더더욱 심할 듯.)

서로 협력 하에 우정 정도의 감정으로 이성애가족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결혼 초에 협의를 뚜렷이 한다면 현재와 같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하지만 이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  
-> L과 G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론화 하여 다양한 협의사항이나 생활 전반에 대한 노하우등 이야기가 된다면 서로 파트너의 사생활에 대해 인정해주면서 노후문제도 해결 가능한 이상적인 삶의 될 수도...아직까지는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동성 파트너를 주위에 알리거나 공공적인 인정을 원하는 행동은 해결이 힘들듯. 하지만 이는 LGBT와 관련된 커뮤니티 등이 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b. B처럼 M과 결혼 -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아야 하고, 이성애적 사회 그대로를 수용해야 하는 단점.

-> 원치 않은 성관계문제와 원치 않는 사람과의 양육, 생활 등 개인적으로 거대한 감옥이 될 가능성 有.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인식 등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경우, 지쳐서 포기할 경우 이런 식이 될 듯. 결혼생활 중 아우팅의 문제도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에 따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길 바랄뿐.

c. 동거 - 서로 제도적 얽매임이 없기에, 헤어지기 쉬울 수도 있음. 물론 서로를 얽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나 미래에 외로이 지내고 점점 더 파트너를 구하기 어려워짐. 또 개인으로도 새로운 파트너를 원하는 감정이 들기 힘들 것이 예상되면서 외로움도 강할 것임. 이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이상에선 주위의 시선으로 L이라고 짐새를 짊 가능성 有

-> 사회적 인식만 바뀐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 아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증이나 이번에

제정된 미혼인 입양, 생명공학기술을 빌릴 수 있음. 다만 생명공학기술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미미하고, 체세포 복제의 경우, 모체의 세포연령을 지니고 태어나기에 아이의 건강과 수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런 형태의 생활이 흔해지고 사회적으로 특이하다는 느낌이 사라질 즈음이라면 아이의 사회적 문제도 줄어들 수 있음. 사회적 문제라 함은 아이의 성격이 원인이 된 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부모님과 관련된 교육에서의 문제. 이는 선생님들의 태도와 모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음. 교육에 관한 공부필요. 부모님이나 친지, 가족의 인정문제도 있고, 언제나 그렇지만 case by case.

d. 독신주의자 -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도 없고, L도 사랑하는 한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점. L이 이성애자와 동치관계도 아닌데 흔히들 L이라면 독신밖에 안되지 않을까

생각부터 드는 건 아무래도 주위 시선을 비켜나가려다 보니 종종 드는 생각인 듯.

-> 주위에서의 결혼해라 소리에 상처 입는다 거나 여성성에 의심 받는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큼. 개인의 노력으로 화려하고 능력 있는 독신으로 살 수도 있으나 노인이 될수록 외로움을 해결할 사회적 시설들이 절실함.

e. 외국으로 나가서 합법적 동성결혼 - 오랜 기간 파트너로 지내기로 마음먹었고 평생을 같이 할 파트너라면 방법이 가장 좋을 듯. 다만, 외국으로 나간다는 불편함과 외국문화나 외국어 등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있음. 국내로 들어오면 법 이외의 인정을 받기는 힘든 사회 실태.

-> 동성 간의 결혼인정을 법으로 제정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서나 기반되는 차별방지관련 입법이 더 시급하다고 봄. 성폭력 등 L이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고되지 않는 사회조성이 절실.

@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들, 그대들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당신이 이성애자든, 혹은 동성애자든. 그 누구든 간에..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누가 권리 찾기

by KAZE

우리가 태어나기 전,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권리라는 개념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해왔어요. 나라에서 정해진 권리에서부터 나아가 한 마을, 집단, 가족단위에 이르기까지 권리는 사회를 유지시키고 인간생활을 안정되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권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며, 누구에게나 훌륭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으로써,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써 살아가는 저에겐 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이 단어가 말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항상 궁금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린다는 그 '권리'가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소수자인 내가, 다수의 사람들인 이성애자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서로 마찰 없이 어울려 살기 위해선 이성애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앞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한다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단지 의미 없는 글자고, 쓸모 없는 종이짝에 불과한거죠. 그 전에, 권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교육의 권리,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옳은 말이고,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위험한 성병들이 동성애자를 통해 빈번하게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혈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헌혈 전 작성하는 서류에 항상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수개월간 동성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 이런 것이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위에서도 말했지만, '권리'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

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동성애자들에게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걸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권리는 결국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만약 이성애자들과 같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절차인데 한국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커플이 되는거잖아요.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동성커플이 사실혼관계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커플들은 법적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쪽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다른 한쪽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해요. 아무런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니 경조사로 휴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또한 의료보험제도도 이에 해당 되요. 서로 결혼하지 않은 남남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를 각자 부담해야 되구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보다 커지게 되는거죠. 이 밖에도 한쪽 사망 시 유산상속문제라던가, 이를 비롯한 가족중심의 어떠한 보장제도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동성커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은 현재 결혼을 꿈꾸는, 또한 함께 살고 있는 동성커플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레즈비언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우리를 드러내고 있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욕심이거든요. 그만큼 노력하고 땀 흘려서 권리를 얻을 것이고, 그 권리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어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떳떳해질 때까지 결코 동성애자 권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날이, 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을 위한, 레즈비언에 의한 축제!

- 2006 레즈비언 문화제

'위험한 레즈비언의 화려한 꿈'

그녀들의 화려한 꿈을 찾아서..

by dykeblue

2006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우리가 평소 매우 흔히 다니는 홍대의 어느 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라이브카페에서 특별한 그녀들을 위한 작지만 큰! 행사가 펼쳐졌다. 올해로 어느덧 7회를 맞은 '퀴어 문화 축제' 등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가 곳곳에서 크게 혹은 작게 펼쳐지고 있지만, 게이(남성동성애자)들 중심적인 모습이 아직도 덜 가신 동성애자들의 축제 문화 속에서 이번 독자적인 레즈비언 문화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성애자의 위치에서도 좀 더 약자의 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활력소와 두근거림이었다고나 할까.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 그러니까 대략 5월부터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레즈비언인권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화여자대학교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에서는 술한 회의와 세부적 논의에 걸쳐 철저히 이번 문화제의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과 장소선정의 커다란 문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섭외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여러 번의 검토와 수정을 통해 기울어진 상담소안에서 여름 내 팔죽땀을 흘려가며 우리들만의 문화제에 대한 열정 하나로 뚝딱 일을 해나갔다.

허나 사실, 기획과 준비를 하는 동안 국내 최초 독자적인 레즈비언 문화제라는 엄청난 기대감도 기대감이었지만 우린 ' 과연 사람들이 많이 올까'하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이전의 행사들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만큼 뜨겁지 않았었기 때문. (하루에 몇십명이 고작이었다고 하니..)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뒤 거의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열정을 쏟았다. 훗!

우리 기획단들의 걱정되었던 마음을 사람들이 알거나 한 걸까, 우려와는 달리 3일내내

행사는 호황을 이루었다. '여기가 맞아?' 하고 두리번거리며 용기종기 모여 들어오는 사람들, 두 손을 꼭 붙잡고 전시와 만화를 둘러보는 커플들, 교복을 입고 인천에서 홍대까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왔던 한 고등학생, 폴라로이드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수줍게 와서 말을 걸던 사람들, 기기문제로 종종 끊기는 영상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는 커녕 즐겁게 영화를 보아주었던 사람들, 토론회날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람들, 공연날 세상 어느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듯이 뛰어놀던 사람들, 정말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했던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하핫, 이쯤에서 잠시 성황리에 치러졌던 우리 문화제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자랑을 좀 해보자면..

8.9일

### ◆ 영상제 '찰칵찰칵! 스크린 안팎의 우리들'

- 해외영화상영: '그녀의 비밀', '걸플레이', 해외단편영화모음('신부들러리'의 4편) 상영.
- 국내창작물상영: 말그대로 국내에서 제작, 수집된 창작물 2편 상영.
- 기기 문제로 인해 영상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좋고, 감상하지 않은 작품들로만 선정되어서 좋았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 ◆ 만화제 '꽃보다 이반'

- 홍보기간내 옹모된 레즈비언 관련 일러스트 및 만화 작품들을 전시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 하였다.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도 보고, 만들어진 책자를 집에도 가져가서 또 보고!
- 더 이상 수상한 사이트들에 만연해있는 불건전한 레즈비언들의 만화가 아닌 순수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너무 이뻐다.

### ◆ 강연회 '역사속의 레즈비언'

-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케이님의 '역사속의 레즈비언' 강연회. 케이님의 목소리는 정말 양증맞으셨다. 강의는 어쩌나 유익하고 재미있던지. 레즈비언 언니들 중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다.

### ◆ 토론회(L talk show!) '레즈비언 문화운동 지도 그리기' '누구(들)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 '레즈비언 문화운동 지도 그리기'에서는 국내 레즈비언 문화운동을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각계의 분들을 초청하여 현재 레즈비언 운동을 점검하고 미래의 문화운동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누구(들)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10대부터 50대까지의 레즈비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 계획한 미래의 이야기들, 그리고 타이틀처럼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좋았지만 특히나 토론회에선 이름만 들어왔던 반가운 분들을 실제로 뵈 수 있어 좋았고, 평소엔 접하기도 나누기도 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속 시원히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뜻깊었다. 다만,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을 뿐...

#### ◆전시회 'LScene'

-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던 국내 외 레즈비언 관련 포스터, 광고부터 잡지, 갖가지 사진들까지..

신선하고 신기한 볼거리들이 많았다. 한 장한장 책장을 넘기고, 하나하나 자세히도 들여다 보던 사람들. 보안팀을 맡으면서 혹시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관심이 끊이질 않았다.



10일

#### ◆콘서트 'LezBe安'

문화제의 마지막 날을 장식했던 콘서트. 'LezBe安'이란, '레즈비언들이여, 편안하라!'라는 뜻으로, 이제는 편하게 한곳에 모여 거리낌없이 우리들만의 공연을 즐기자는 의미로써, 다양한 분들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풍물, 그림자극, 재즈댄스, 힙합댄스, 태보, 노래, 랩, 밴드공연에 이르기까지 참 뭐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일반 클럽공연이나 콘서트가 부럽지 않은, 뛰어난 자질을 지닌 언니들과 관객들이 하나가 되었던 멋진 공연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포춘쿠키 이벤트 행사와 폴라로이드 기념사진 촬영, 스티커설문, 화려한 꿈 적기 와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들과 기념 뱃지, 엽서, 스티커, 악세서리등도 마련되어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해줬다는.

대학에 갓 들어온 어리숙한 새내기인 나에게, 변날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러한 문화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변날과 다른 모든 기획단 분들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그리고,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 행사가 꼭 명맥을 이어나가 갈수록 번창하여 한국의 성대한 레즈비언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바람이다. 아아, 그 3일간 홍대 앞 프리버드 속 세상이 아직도 나에게겐 현실 아닌 꿈의 세상이었었던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들만의 너무나 즐겁고 평온했던 시간과 공간들이었기에, 문화제 후유증은 당분간 내 걸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



끝으로, 홍대 프리버드에 길게 드리워져있던 레즈비언들의 수많은 꿈들이 그녀들의 눈앞에 펼쳐지길, 비록 그곳엔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선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많은 레즈비언들의 꿈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그리고 꿈과 현실이 만나는 그 곳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길. 또 한명의 위험한 레즈비언인 나는 오늘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화려한 꿈을 꾸다.



가시기전에 **꼭** 챙겨가세요.

## 신촌에서 만나요

만남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수업... 귀찮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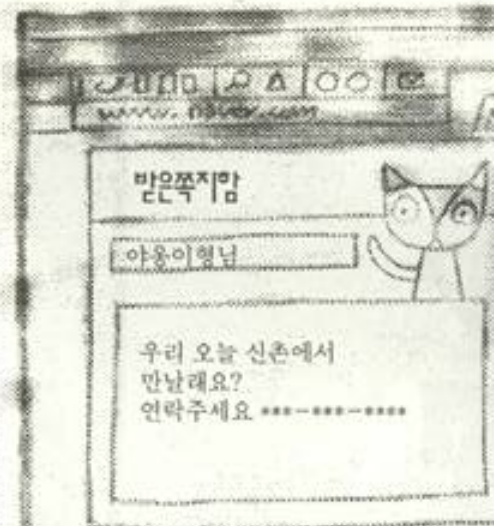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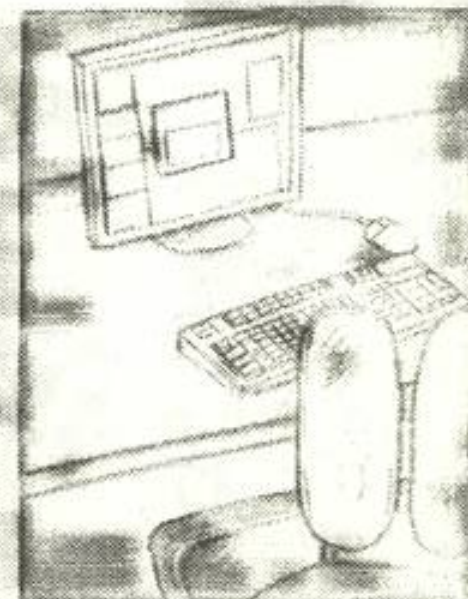


가 이터너를 -  
- 리본 리본 -





혹시...  
아이인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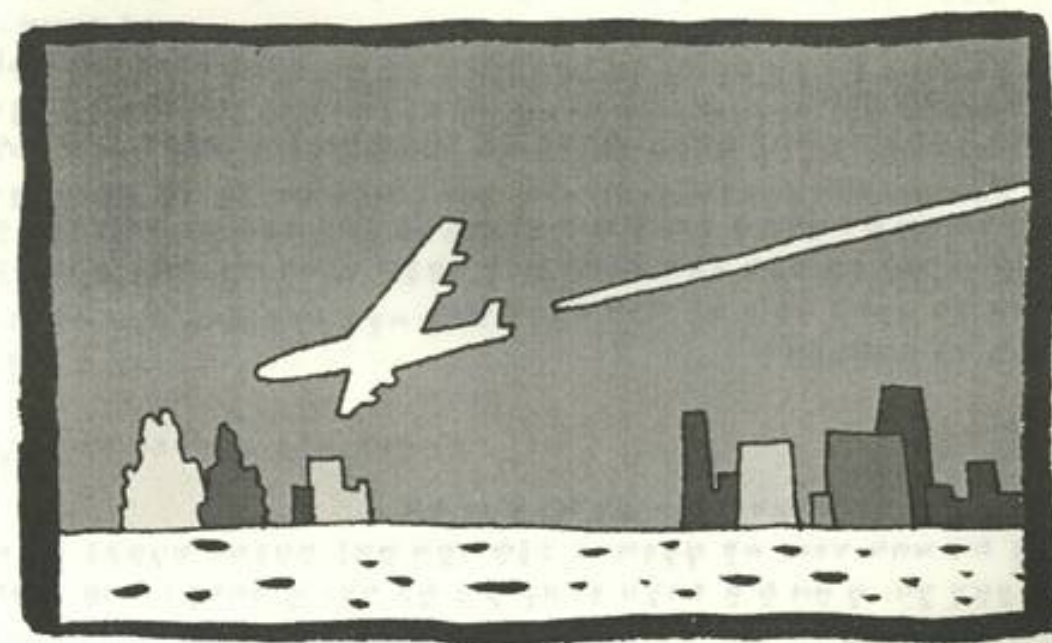
나 좀  
나갔다가  
올게요!!!

아편아,  
이 시간에  
아될 가!!

그바들어  
몸으  
즐거아^^



가장 길게 걸을 우리 두사람을 따라가 주세요.



와, 도착! 즐거운 비행이었어.

# D a l l l l l l l l l

갑작스럽게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덕에 무언가 정신없이 제대로 잘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를 열심히 한 우리의 이번 4번째 문화제..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새벽녘의 해를, 그리고 우리들의 바쁜 움직임.

또 다시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 다가왔다.

I love you . K ♡

# K A Z E

작년, 3월이라는 기간이 3시간으로, 또는 3년으로 느껴졌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만큼 긴장되고 숨가빔지만, 보람됐던 시간들.

올해도 그렇거다. 이러한 소중한 순간을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웃고 떠돌며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한다.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 난 잘 해내리라 믿는다.

# Black

처음으로 참여한 문화제.

부담감과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함께 있지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는 지금 뿐이라 우리들 잊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매년 어마 태풍의 우리의 목소리를 생소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가까운 친구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나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마탕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먼저 알게 해준 변나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이 맺어준 인연들이라 변나만큼은 더욱 애착이 갔던거 같다. 일 년에 한 번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 입 여미지말고 마지막 1초까지 제대로 즐겨보자. '—'

# L K

사실 그동안은 내가 L 인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왔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누구보다도 움츠려 있었던 나였었기에.

이렇게 문화제가 하나둘 구성될때마다 더 많은것을 배운것 같다.

언제나 거듭 말하지만 L 은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다.

그저 다름이와 다름없이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픈.

그리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들의 시선이란 이름하에 내가 방해받거나 착아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뜻깊고 기쁘다.

사랑을 하는것도 인생의 큰 일인데, 외부의 다른 압박까지 받는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 Dykeblue

입학 전부터 생각없이 재미삼아 호기심에 들락거렸던 변나방.

하지만 이곳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적재배런 너무나 든든한 내 삶의 에너지의 원천.

나라는 변태소녀의 첫 날개짓인 이번 변나 문화제. 부족한 나의 날개짓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도움과 깨달음을 줬던 변태소녀들,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있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나아닌 곳에서 늘 나를 응원해주고 보살피주는 다른 레즈비언 친구들과, 아직도 술한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겪고 있을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날개가 꺾여버린 레즈비언들. 이제 나를 비롯한 이곳의 변태소녀들이 당신들을 위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우. 함께 두팔을 벌리고 힘차게 흔들려 봅시다.

우린 날 수 있소!

끝으로, 내가 레즈비언일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 Sea

망상 thanks to 를 쓰려니 뭔가 아주 어색하다.

여름방학부터 박세에게 달려왔다.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즐거은 일들도 많았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고 ..  
 하지만 중요한건 무척이나 설레고 가슴두근거리는 시간이었다는 것.  
 이번 문화제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할수있는 만큼은 모두 한것같다.  
 평가, 혹은 비난. 그 모든 당신들의 평가는 지금의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변날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지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행복했던 .. 나중에 돌아봤을때 눈물이 날 만큼의 기억으로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 변태소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때마다 마치 자기일처럼 걱정해주고  
 옆에서 항상 웃으며 날 기다려줬던, 내가 기댈곳을 만들어줬던.  
 평생함께할 내 친구들 .. S, J, V, M, E .  
 진실으로 고맙고 사랑한다. 너희가 있어서 난 참 행복해.

마지막으로 내 목숨보다 소중한 당신 .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말로 다표현 못할 만큼.. 사랑합니다.

## LEGO

미칠곳이 필요해서 변날에 들어왔던 내가.  
 이번에도 미칠곳이 필요해서 이 당배연기 자욱한 방에 앉아서 문화제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 내가 미칠곳은 여기가 맞나보다.  
 이번에도 할수없는 사람들의 태도가 기대되지만, 뭘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나는 나다.  
 나는 레즈비언으로서 앞으로 어종의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것을 한다. 당신  
 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소용없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 인생의 최고점에 다다르면, 대사회적인 거침아웃을 할거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변날사람들.  
 레즈비언인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L.  
 모두 고맙고 고마워.

일년에 단 몇일 우리가 입당치지 않아도 될 순간이 왔다.  
 자, 이제 다시 날아보자.

피 키 피 키

영심씨, 잘 하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바쁜 가운데에서도 항상 열정적인 당신들에게 받은 에너지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즐거웠는데, 당신들은  
 어떡하었는지..? 내가 준 것이 너무 엇구나. (한숨) 다들 너무 사랑해.

후 리

이월을 다 해 주지 못한 탓에 어영부영 네 번째 문화제에도 키고 말았다!  
 하고 5년 다닌 거 탄로나 버렸어 x - x  
 변날과 함께 한 지난 5년.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한 시간들, 행복했어.

마지막으로, 나의 T♡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네 번째 문화제  
<하늘을 봐, 변태소녀가 날고 있어>

발행일 2006년 9월 15일  
편집디자인 맛탕. 휘린  
표지디자인 맛탕

펴낸곳 이화여자비엔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TEL 02.3277.4712

MAIL flyingsquirrel@hda.net